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박사학위 논문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익명성과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양호열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익명성과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esentation of Anonymity of Modern People and
Pretentious City Images in the Digital Era

- Focused on the Researcher's work -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양호열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익명성과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미술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양 호 열

양호열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김 유 섭 (인)

위원 장 재 욱 (인)

위원 문 형 선 (인)

위원 김 제 민 (인)

위원 조 윤 성 (인)

2024년 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 서	론	1
제 1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절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 디지털 시대의 중독성과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고찰	6
제 1절 . 디지털 시대의 중독성	6
1-1 . 과거와 현재의 중독성 비교	6
1-2 . 중독성의 문제	9
제 2절 . 현대인의 심리에 나타나는 익명성	17
2-1 .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정의	17
2-2 . 현대인의 심리학적 분석	31

III.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에 함축된 미술 언어의 특성과 의미	39
제 1절. 도시 이미지의 형태적 특성	39
1-1. 도시 이미지의 함의	39
1-2.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	41
1-3. 미술 언어로서 회화적 특성	51
제 2절. 도시 이미지에 표현된 미술 언어의 의미	73
2-1. 비언어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	73
2-2. 이미지에 대한 미술 언어의 재해석	76
2-3. 형식과 내용 구조에 대한 분석	78
IV. 도시 이미지에 나타난 현대인의 내면 탐구와 회화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작품 분석	84
제 1절. 현대인의 자화상으로서 내면 분석에 따른 연구자 작품에 관한 연구	84
1-1. 작품의 배경	84
1-2. 연구자 작품의 내용적 구조와 의의	87
1-3. 연구자 작품의 형식적 구조와 의의	101

제 2절 .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109
2-1. 연구자 작품의 도시 이미지의 묘사	109
2-2. 가식화된 풍경의 회화적 표현과 구도	111
2-3. 작품에 나타난 도시 자화상의 심층적 의미 표현	120
 V . 결 론	 135
 (참고문헌)	 138

<표 목차>

(표-1) 게슈탈트 이론의 구성요소	50
(표-2) 연구자의 작품과 연관된 키워드 분류	85
(표-3)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색채에 대한 분석	112

<도판 목차>

(도판-1)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 수준 변화	7
(도판-2) MZ 세대의 특징	9
(도판-3) 성별/연령별 스마트폰 주당 평균이용시간	10
(도판-4) 2017~2021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1
(도판-5) 2017~2021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1
(도판-6) 스마트폰 중독환자 촉방 엑스레이	12
(도판-7) 스마트폰 중독환자 전방 엑스레이	12
(도판-8) 청결, 확인, 질서정연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강박 장애	13
(도판-9) 강박 장애에 대한 인지 행동적 모델	15
(도판-10) 익명성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설문 결과	22
(도판-11) 익명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설문 결과	23
(도판-12)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중분류)	24
(도판-13) 사이버범죄 주요 발생 증가 유형	25
(도판-14) 서울 야경의 모습, 2023	40
(도판-15) 서울 여의도 빌딩들의 구조, 2023	42
(도판-16) 건축 인테리어의 도식적 형태, 2023	44
(도판-17) 부산 광안대교의 다리의 기하학적인 형태, 2023	44
(도판-18) 2점 투시 원근법	45
(도판-19) 부산 해운대 빌딩 면 구조, 2023	47
(도판-20) 서울 홍대 전통 한옥 카페 도식 구조, 2023	48
(도판-21) <타임스 스퀘어 오후 3시 53분, 겨울>, 1985, 개인 소장	52

(도판-22) 김주철, <요코하마>, 캔버스에 유채, 91x130cm, 2010	53
(도판-23) <뉴욕 야경>, 베레니스 아보트, Digital printing, 1932	53
(도판-24) 현대 건축의 설계도	56
(도판-25) 현대 건축의 조감도	56
(도판-26) 한스 호프만 <Auxerre>, 캔버스에 유채, 152.4x132.1cm, 1960	57
(도판-27) 잭슨 폴록, <number4>, 캔버스에 유채, 90x87.5cm, 1949	58
(도판-28) 마크 로스코, <red and orange>, 캔버스에 유채, 91x71cm, 1952	58
(도판-29) 피에타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20	60
(도판-30) 루트비치 미스 반 데로에 필립 존슨, <로렘 시그렘 빌딩>, 1958	61
(도판-31) 프랑스 샤르트르, <샤르트르 대성당>, 1194~1220	61
(도판-32) 피에타 몬드리안, <붉은 나무>, 캔버스에 유채, 70x99cm, 1910	63
(도판-33) 피에타 몬드리안, <꽃이 핀 사과나무>, 캔버스에 유채, 78x106cm, 1912	63
(도판-34) 피에타 몬드리안, <젯빛 나무>, 캔버스에 유채, 78.5x107.5cm, 1910	63
(도판-35) 피에타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20	63
(도판-36) 발터 그로피우스,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건축>, 1926	65
(도판-37) <제3 인터내셔널 기념물 모형>, 블라디미르 타틀린, 1914	67
(도판-38) 서울 청담동 린든그로브 전원고급빌라 전경, 2023	68
(도판-39) 화이트큐브형 미술관 실내 내부, 2023	69
(도판-40) 조근호, <해변도시>, oil on canvas, 97x162cm, 2011	71
(도판-41) 이탈리아 한 도시의 도심, Folco qulici, 2018	72

(도판-42) 만다라, F.no.758(원초적인 개화 파장), 2012	72
(도판-43) 반복적 표현의 패턴화, 2023	75
(도판-44) 손을 활용한 신체예술, 2023	75
(도판-45)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 캔버스에 유채, 63x48cm, 1886	77
(도판-46) 빅토르 바자렐리, <Vega-Nor>, 1957	79
(도판-47) 막시밀리앙 뤼스, <Notre-Dame de Paris>, 캔버스에 유채, 1911	81
(도판-48) 부산 야경	87
(도판-49) 웰렘 드 쿠닝, <여인 1>, 캔버스에 유채, 1950~1952,	94
(도판-50) 로이 리히텐슈타인, <In the car>, 캔버스에 마그나펜, 1963	94
(도판-51) 피에트 몬드리안, <구성, 빨강, 파랑, 노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30	95
(도판-52) 루드리히 키르히너, <베를린의 거리>, 캔버스에 유채, 121x95cm, 1913	98
(도판-53)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 캔버스에 유채, 349.3x776.7cm, 1937	100
(도판-54) 이응노, <춤추는 군상>, 수묵담채, 69x100cm, 1988	102
(도판-55) 마르샬 뒤샹, <자전거 바퀴>, 가변설치, 126.5×63.5×31.8cm, 1913	105
(도판-56) 로버트 라우센버크, <모노그램>, 혼합재료, 106.7x160.7x163.8cm, 1959	105
(도판-57) 앙드레 드랭, <빅 벤>, 캔버스에 유채, 79x98cm, 1906	114
(도판-58) 모리스 드 블라맹크, <로그니 길>, 캔버스에 유채, 1930-35	114
(도판-59) 앙리 마티스, <붉은 방>, 캔버스에 유채, 180x220cm, 1911	115
(도판-60)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	

207.5x308.1cm, 1886	117
(도판-61)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캔버스에 유채와 금, 180x180cm, 1907	119
(도판-62) 존 슬로언, <6번대로 30번가>, 캔버스에 유채, 81x62cm, 1907	121
(도판-63) 에밀 놀데, <그리스도를 조롱함>, 캔버스에 유채, 86x106.5cm, 1909	124
(도판-64) 조성배, <파도 2-강릉해변>, 캔버스에 유채, 116.8x91cm, 2016	129
(도판-65) Mark Rothko, No. 16, 캔버스에 유채, 216x164cm, 1961	129
(도판-66) 클로드 모네, <국회의사당>, 캔버스에 유채, 93x82cm, 1904	132

<연구자 그림 목차>

(그림-1) 양호열, <내면의 풍경1>, 72.7x90.9cm, acrylic on canvas, 2023	54
(그림-2) 연구자의 작품과 연관된 키워드 분석	86
(그림-3) 양호열, <중독1>,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89
(그림-4) 양호열, <중독2>,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89
(그림-5) 양호열, <중독3>,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90
(그림-6) 양호열, <중독4>,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91
(그림-7) 양호열, <내면의 풍경2>,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23	93
(그림-8) 양호열, <내면의 풍경3>,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23	93
(그림-9) 양호열, <중독5>, 130.3x390.9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97
(그림-10) 양호열, <중독6>,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99
(그림-11) 양호열, <내면의 풍경4>, 91x116.8cm, acrylic on canvas, 2023	102
(그림-12) 양호열, <훔쳐보기1>,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103
(그림-13) 양호열, <훔쳐보기2>,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104
(그림-14) 양호열, <중독7>, 91x116.8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108
(그림-15) 양호열, <내면의 풍경5>,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23	110
(그림-16) 양호열, <내면의 풍경6>, 130.3x162.2cm, acrylic on canvas, 2023	117
(그림-17) 양호열, <중독8>,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117
(그림-18) 양호열, <내면의 풍경7>, 130.3x193.9cm, acrylic on canvas, 2023	121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문명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사는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문제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이미지의 가식성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술로 표현방법 등을 정리함으로써, 연구자만의 독창적인 회화적 언어로 표현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세기 현대의 도시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지능화된 스마트폰의 편리한 서비스로 인하여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 아동에서 성인까지의 모든 연령대가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은 편리한 기계 문명에 종속되어 그 정체성을 잃어가며 개인주의화 경향이 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관찰하고 예술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특성들을 미술 언어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들은 익명성(匿名性)에 중독되고 있다. 익명성(匿名性)이란 자신의 정보를 몰래 숨기고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남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그로 인해 투사, 자기합리화, 퇴행, 부정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방어기제란 불안, 불리한 상황에 자기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심리 전략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인본주의 사상을 중시하는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현재를 통해서 스스로를 창조하고 미래를 향해 개척해가는 미래지향적인 존재라고 해석하였다. 두 학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프로이드는 ‘현재의 인간행동의 문제 되는 상황은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정적인 경향이라고’ 보고 있지만, 칼 로저스는 ‘인간은 현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개척하고 창조하여 미래를 향해 가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 현대인들의 익명성의 문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는 부정적인 방어기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현대인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외

되어 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의 익명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어기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제시하는 익명성(匿名性)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디지털 문명의 핸드폰을 통해 남의 사생활이 담긴 SNS를 통해 몰래 훑쳐보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현대인들의 관음증에 대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음증의 요소를 도와주게 되는 매체가 바로 핸드폰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문명에 중독되어 가는 인간 군상들을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현대인의 부정적인 자아 및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며, 현실에서 자신을 숨기면서도 남의 사생활을 탐닉하는 부정적인 자화상의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시 이미지는 우리 시각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겉으로만 화려하게 장식된 가식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가식적(假飾的)은 ‘무엇인가를 좋게 보이려고 일부러 거짓으로 꾸미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억압으로 인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의 심리들은 작품에서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된다. 감정 또한 색채로 대체되는데, 미술치료에서는 흔히 쓰이는 색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흑백의 색채는 주로 우울감, 죽음, 비애, 희미함 등의 여러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반대로 뚜렷하면서도 청결하고 자기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는 성격을 내포하기도 한다. 검정은 자신을 숨기려는 방어기제의 색채로 쓰이기는 하지만, 예술적인 의미를 지니는 색채로 쓰인다. 한국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친 화필, 산수의 자연 친화적인 풍류의 삶을 다룬 작품들에서 쓰이는 검은색은 그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갈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불안감, 자신에 대한 불신과 반항심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익명성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는 이러한 방어기제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서 표출되는 언어 및 감정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면, 어두운 흑색의 빌딩들과 조명의 밝은 색감들은 배경화면에 나오는 흑백의 군상들과 강한 대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대한 건물들은 급속도의 산업화로 발전하고 있는 문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의 이미지를 위해 배경화면의 분위기를 더 돋보이게 표현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풍경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형태도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극사실주의적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묘사를 거의 배제하고 디

자인적인 요소의 선, 면, 색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묘사로 표현되었다. 이는 감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사는 군상들의 자화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도시의 가식적인 이미지에 군상의 단순한 이미지를 추가하여 관람자에게 작품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작품에서 사용된 오브제는 블라인드와 거울의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거울은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한편,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블라인드는 현대 사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훔쳐보기,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오브제의 사용은 시각적 다양화와 함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평면회화의 변형으로써, 기존의 미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술 언어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평면과 입체의 뚜렷한 경계를 허물며 같이 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익명성에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디지털 문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다양한 미술 언어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 도시 사회 문명의 문제점을 다양한 미술표현을 통해 완성된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서 자각하게 하고, 나아가 미술이라는 장르가 사회, 윤리, 경제 등의 문제와 통합되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연구자의 작업 진행 방향은 더 다양한 미술 장르와의 연관성을 고민하면서 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Presentation of Anonymity of Modern People and Pretentious City Images in the Digital Era

- Focused on the Researcher's work -

Yang Hoyeol

Advisor : Prof. Cho yoon-sung, Ph. D.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negative problems of modern people who live in a splendid and developed urban civilization but are addicted to smartphones due to the anonymity of the digital age, and the pretentiousness of the city image that appears as a result. Through this, the researcher aimed to organize expression methods through art and present expression methods using the researcher's own unique pictorial language. Modern cities of the 21st century have created urban spaces of a new digital civiliz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convenient services of intelligent smartphones, these smartphones dominate all of our lives and have become an essential tool throughout our society. People of all ages, from children to adults, are immersed in smartphones, and as a result, humans are subordinated to a convenient machine civilization, losing their identity and becoming more individualistic, which is a problem in modern society. In this study, we observed how the appearance of social members is changing due to thes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view them from an artist's perspective, and presented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language of art.

Modern people in the digital age are addicted to anonymity. Anonymity means hiding your information secretly and not revealing it to anyone, so that no one knows who you are. Modern people feel fear and anxiety about their information being revealed to others. As a result, they use defense mechanisms such as projection, self-justification, regression, and denial, which are means to protect themselves. Psychoanalyst Freud interpreted defense mechanisms as an unconscious psychological strategy to prevent oneself from being involved in anxiety or unfavorable situations. Additionally, Carl Rogers, who values humanistic ideas, interpreted that all humans are future-oriented beings who create themselves through the present and pioneer toward the future. When looking at the views of the two scholars comprehensively, Freud believes that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human behavior in the present is a negative tendency of experiences from past influences that continue to the present', but Carl Rogers believes that 'humans solve current problems on their own'. 'They show a positive tendency to pioneer and create from their own perspective and head toward the future.' The problem of anonymity for modern peopl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which the negative aspects are more common. As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sserts, unconscious and impulsive behavior comes from a negative defense mechanism. Currently, modern people are becoming alienated from each other within the social commun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anonymity of modern people acts as a defense mechanism to sever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iming to protect themselves.

The anonymity presented in the researcher's work refers to the voyeurism of modern people who hide their identity to protect their information and engage in fraudulent activities, such as secretly spying on other people's private lives through SNS via cell phones in digital civilization. We aim to

highlight these problems in society. The medium that helps with the element of voyeurism is the mobile phone. By presenting this social problem, a group of humans who are addicted to digital civilization is expressed as simple silhouettes, which is an expression of the negative ego and identity of modern people and is a metaphor for a negative self-portrait that indulges in other people's private lives while hiding from their reality. City images appear beautiful to our eyes, but they only play the role of being extravagant and pretentious. Pretentious has the dictionary meaning of 'deliberately making something false to make it look good.' The psychology of dissatisfaction and anxiety that modern people feel due to the stress or oppression they experience in reality is expressed in various colors in the work. Emotions are also replaced by colors, and there are countless symbolic meanings for colors commonly used in art therapy. For example, the color black and white mainly connotes various negative meanings such as depression, death, sadness, and obscurity, but on the contrary, it also connotes a personality that is clear, clean, and seeks to stand out. Although black is used as a color for a defense mechanism to hide oneself, it is also used as a color with artistic meaning. The rough paintbrush mainly used in Korean paintings and the black color used in works that deal with nature-friendly and refined life in landscapes and paintings have their meaning. However,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anxiety, distrust of oneself, and rebelliousness that cannot be resolved from a mental conflict.

Anonymity mentioned in this study acts as a defense mechanism to hide oneself. The negative emotions felt by modern people come from this defense mechanism. Language and emotions expressed in human behavior or psychology can be expressed as works of art. Looking at the researcher's work, you can see that the dark black buildings and bright colors of the lights provide a

strong contrast to the black and white groups of people on the background screen. Huge buildings symbolically represent a civilization that is developing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ut they are also a means of expressing the atmosphere of the wallpaper more prominently for images of beautiful landscap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erspective, the shapes of the characters existing in the landscape were expressed through simple and mechanical depictions of lines, planes, and colors of design elements, almost excluding realistic depictions rather than hyper-realistic expressions. This is a metaphorical expression of the self-portraits of people living in a modern society where emotions are disappearing. In addition, the intention of the work is accurately conveyed to the viewer by adding a simple image of a group of people to the pretentious image of the city.

The objects used in the work are made of blinds and mirrors. The mirrors provide the audience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m directly, while also reflecting our appearance in reality. Blinds have negative connotations such as peeping and violating other people's privacy, which are major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 use of these objects can be seen as a transformation of flat painting that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through visual diversification, and an intention to break away from existing art methods and establish a new art language. It was a new attempt to break down the clear boundaries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and integrate them together.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sychology of anonymity among modern people, precisely understands the concept,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various social problems in digital civilization can be solved through various art languages. The researcher's works, expressed through various artistic forms, bring attention to the issues of modern urban

society and civilization. Moreover, they highlight the versatility of art in addressing a wide spectrum of issues, integrating with aspects such as society, ethics, and the economy. In this way,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searcher's work will be to seek newer approaches while considering relationships with more diverse art genres.

1.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익명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개인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자 작품의 회화적 표현에 함의된 도시 이미지의 가식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스마트폰은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가장 첨단 전자 기기이면서 현대인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의 도구로서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든 업무와 학업 등 다방면의 일 처리에 활용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중독으로 인해 삶의 정체성을 잃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을 접하면서 편협된 사고와 개인주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 신분의 방패 역할을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도 맘껏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들에 이 문명의 이기에 점점 빠져들어 가고 있다. 결국, 통신, 기술, 과학 장비 등 첨단의 디지털 기술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내었지만, 인간은 그들이 발명해 낸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성으로 인하여 그 기계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스로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는 도시 문명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익명성에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디지털 문명에 내재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미술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도시 문명의 사회적 문제점을 다양한 미술표현을 통해 완성된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서 자각하게 하고, 나아가 미술이라는 장르가 사회, 윤리, 경제, 정치 등의 문제와 통합되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차가운 추상의 선구자로 불리는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은 구체적인 형상을 그림에 표현하지 않고 선, 면, 색과 같은 기본적인 회화적 요소를 사용한 단순한 표현 방법만을 사용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기계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형태로 구사할 수 있음을 보였다.¹⁾ 반면, 순수 미술에서 나타나는 인물화, 풍경화는 주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자연들을 탐색하여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 구조의 깊이를 측정하고 그 표상들의 특징을 인지하고 기억한 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인간의 심상에 몰두하며 색채가 가지고 있는 미술 언어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심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에 따라 감정이 변화한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중독성(addiction)이란 개념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심리변화에 관해 연구 하였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색채의 표현은 미술의 모든 분야와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사고와 정신세계에 대한 분석이 미술 분야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현재 디지털 문명의 중독성과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현대인의 내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묘사한 현대인의 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다. 우리의 내면은 거울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우리 인간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오브제의 효과로 관객과 소통하고 현대 사회를 보는 인간들의 관점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자세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문제의식을 미술 언어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다. 가식적(假飾的)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숨겨진 인간의 진실한 내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면,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묘사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1) 고현, 김종인, 민형덕, 박광숙, 배서영, 신철호, 조근호,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pp.58-59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소재들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대비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작품 주제가 가지는 부정적인 내면에 대하여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 논문의 주제인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며, 심리 분석적인 측면에서 학자들의 견해 및 그에 나타나는 여러 방어기제의 종류들을 분류하여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군상의 심리에 해당하는 방어기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익명성과 가식적인 의미에 대한 함축하는 미술 언어의 의미를 찾고 작품 내용에 대해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인문학, 이상심리학 등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연구자 회화 작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들이 미술 언어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에 대한 심리 분석적인 측면의 사고와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익명성에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미술 언어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식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그에 존재하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의 인간 심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 문제의 하나인 익명성(匿名性)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을 분류하며 그중에서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투사, 부정, 합리화, 퇴행 등의 방어기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표출되며,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어기제들을 사용하게 된 원인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접근 방법과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의 두 가지의 이론으로 구분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위의 방어기제를 통한 미술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이 현대 사회의 익명성(匿名性)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비교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가 인간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두 학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여 익명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익명성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독성(toxicity)이란 주제의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

인 심리의 의미를 찾고, 예술적 표현으로 연구자의 작품 주제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식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가 함축하고 있는 미술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작품의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이 연구자의 작품에서 어떻게 구상되었고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식적(假飾的)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들인 점(點), 선(線), 면(面)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분석하며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해보면서 공통점을 찾았다. 가식적인 이미지에 적용하는 미술의 조형 요소들에 대한 구성과 이미지를 통한 미술 언어의 재해석을 통해 비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형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호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식적 이미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작품 주제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익명성과 가식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또 다른 재해석과 이를 통해 연구자 작품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이미지와 군상들을 통하여 현대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더불어 앞으로의 작업 방향성에 대하여 회화적인 표현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작품에 제시된 내용적 구조와 의의, 형식적 구조와 의의를 각각 나누어서 군상의 내면을 표현한 여러 가지 요소들, 방식들, 오브제의 효과 등, 다양한 방법들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군상들의 진실한 내면과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요소들, 기계적인 감정들을 다루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은유적인 암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주관적 보편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과장되지 않는 작품의 전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활용한 대표적인 오브제는 ‘거울’과 ‘블라인드’이다. 먼저 핸드폰의 액정 화면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매체는 중독성을 상징하는 사실적 매체임과 동시에 관객의 모습이 거울을 통해 비침으로써, 작품과 하나가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한다. 남의 사생활을 탐

닉하려는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자화상은 ‘블라인드’의 매체로써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작업 방식에 따라 이러한 오브제들은 작품의 입체 효과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관객들이 예술과 소통하고 작품의 다채로운 시각을 더 넓혀가려는 의도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고 향후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디지털 시대의 중독성과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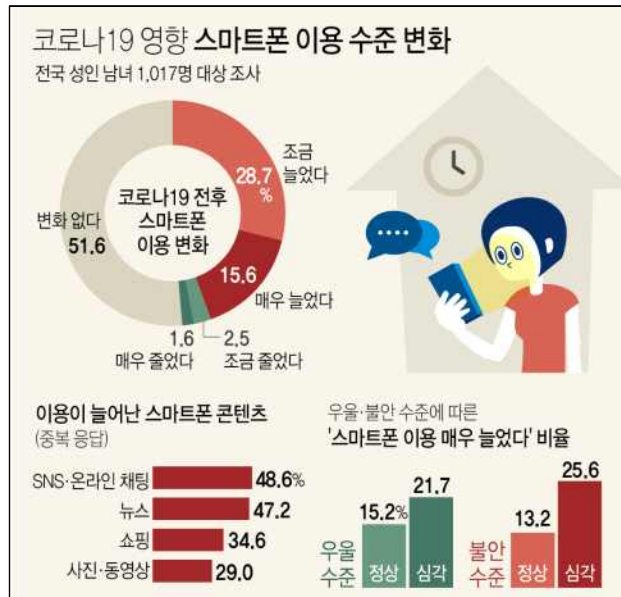
2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과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들의 이론적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것에 나타난 현대인들의 감정에 포함된 심리적 행동 변화와 반응이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적인 의도이다. 물질 문명화되어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익명성이라는 개념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디지털 시대로 표현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익명성과 관련된 이상심리학에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어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을 분류하고 익명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디지털 시대의 중독성

1-1. 과거와 현재의 중독성 비교

중독성에 관련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과거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주변 세상 관심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TV와 라디오, 비디오, 잡지, 신문 등의 매체들로부터 얻어져 왔다. 특히, 비디오나 잡지에서 관심거리나 유행하는 정보들을 접하며 사람들은 그것들의 중독성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급속한 산업 문명의 변화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통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디지털 문명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인터넷, 클라우드(Cloud), 스마트폰, 등이 있다. 이 중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생기면서 디지털 문명의 정보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매스컴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 문화를 향상하게 시켰다. 각각의 문서를 저장하고 일상과 공유하는 등의 생활 속의 사무 작업이 편리해졌고,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 인해 기존

의 사회, 문화, 교육, 연구 등의 다방면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중,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모바일 통신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문명을 가속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을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하고 있다. (도판-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의 이용 수준은 더욱 늘어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SNS·온라인 채팅이 48.6%나 늘어났으며, 우울·불안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이 매우 늘어난 비율은 각각 21.7%와 25.6%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유현경은 코로나 19시기 청년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고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하였다.²⁾ 연구결과, 코로나 19시기 청년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고, 증가한 스마트폰 중독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출처 : 중독포럼 「연합뉴스」

(도판-1).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 수준 변화

2) 유현경, 「코로나19 시기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1권 제3호 2023.09, pp.132-156

디지털 문명의 특징 중의 하나인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의 각 장르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우선시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직접 편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소비문화가 증가하였고, 산업혁명이 자리 잡으면서부터는 생산, 소비 구조의 산업디자인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기술 문화가 더욱 확대되었다.³⁾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사이버 문화와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였고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등의 여러 전자와 기계 장비들이 더욱 발전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과 이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미디어의 영향으로써 소비문화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온라인 게임 등이 우리의 사생활에 확대되면서 인간들은 삶의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⁴⁾ 최근 들어 텔레비전에 뜨고 있는 시사프로그램이나 예능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방송들이 연출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흥미롭게 익히고 빠르게 이해한다. 디지털 문명이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구조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 이메일, 영화감상 등의 모든 사생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증가하여 기술적으로는 진화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기계 문명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정보 통신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난무하고 있는 광고, 잡지, 텔레비전 등의 매체들을 통해 인간들은 그 매체에 계속 중독되어 가고 이로 인해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인간들은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보화 문명으로 인해 인간들의 정서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시대는 신속성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활용도가 커지면서 인간들은 무분별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판단력의 상실로 인간의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따라 인간의 심리는 탐욕으로 얼룩진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더불어 산업화의 주된 특징인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의 개념이 팽배하면서 이는 인간의 정서적 사생활까지 지배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임창영, 「디지털 시대 산업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퓨전디자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 1

4) 강남훈,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논문, 정보혁명과 자본주의」, Vol. 7, No. 2, 통권 18호, 2010, pp. 35-66, DOI : 10.26587/marx.7.2.201005.002

1-2. 중독성의 문제

디지털 문명은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에 삶의 윤택함과 편리함을 주었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문화에 중독되어 가면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디지털 문명을 가속한 주역인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매력으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중독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히, 현대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MZ 세대들의 부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2)은 MZ 세대의 특징을 보인다. 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보다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고 미디어를 다루는 모든 것에 융통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들이 미디어 문화에 능숙함으로 인해 그들이 통신 문명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어폰, 헤드셋 등의 디지털 기술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애호 품이 되면서 결국 그것에 중독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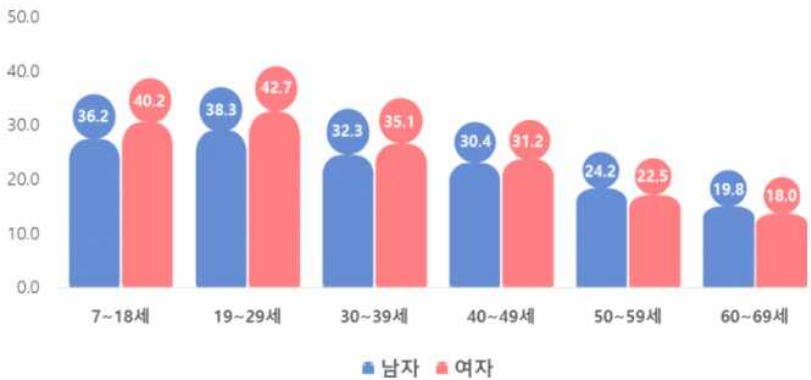


출처 : 이코노미 조선

(도판-2). MZ 세대의 특징

디지털 시대의 MZ 세대는 특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도판-3)은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가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일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세 이상 70세 미만 6,090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다.⁵⁾ 초·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주당 36.2시간으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량도 주당 23.5시간으로 초·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사용량의 약 2/3수준에 달하며 특히, 부모 세대인 30~40대의 경우 30대 평균 31.6시간, 40대 평균 29.3시간으로 자녀 세대와의 사용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17년 5월 1일 자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보도자료

(도판-3). 성별/연령별 스마트폰 주당 평균이용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만3세 이상 69세 이하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자, 1만 가구(2만9천712명)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2023년 4월 발표했다.⁶⁾ 조사결과 (도판-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년(17.8%) 대비 0.9%p 증

5) 임지선, 박근용,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통계실태조사, 2017.6 (참조 : <http://barunict.kr/?p=7490>)

6) 「2021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정보, 2023.4 (참조 :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74&mId=99>)

가하여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도판-4). 2017~2021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도판-5)는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보이고 있다.⁷⁾ 가장 높은 위험군은 청소년 군으로서 평균 36% 정도를 차지함에 청소년 3명 중의 1명꼴로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 연령 대상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도판-5). 2017~2021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7) 상계서, (참조 :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74&mid=99>)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심지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에 의한 게임의 중독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온라인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작업 성취도가 훨씬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도판-6)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목 통증이 심한 환자의 x-ray의 정면 사진, (도판-7)은 측면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위의 도판들은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스마트폰만 보는 현상으로 인해 목의 디스크를 느낀 x-ray의 사진들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져 이러한 신체에 이상까지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체적 문제, 인간의 정신적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한다



(도판-6), 스마트폰 중독환자
측방 엑스레이



(도판-7), 스마트폰 중독환자
전방 엑스레이

정신적인 요인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강박성 장애와 이러한 반복적 행동을 계속 보이는 이상 심리의 현상이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 삶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계속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에 자주 집착을 하며, 이와 비슷한 저장 장애나 환각 장애까지의 다양한 심리 이상을 발생하는 경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독성(addiction)은 강박과 집착을 일으키는 원인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강박과 관련된 장애는 무엇인가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식에 침투하여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사고에 괴로움을 느끼는 심상을 말한다.

(도판-8)를 자세히 보면, 과도한 강박 장애로 위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손을 자주 씻는 행위(손에 병균이 묻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나 문을 잠갔다 열었다 반복하는 행위(문이 제대로 잘 잠가졌나 의심하는 마음), 물건이 제대로 정리가 잘 되었나 확인하는 행위 등의 외현적 행동들의 총동적인 심리가 머릿속에 자주 떠올라 그에 대한 행동이 의무적으로 잘 시행해야 함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다.



(도판-8), 청결, 확인, 질서정연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강박 장애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외현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는 심리도 이와 같은 강박성과 관련이 많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면서 게임을 많이 즐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판을 끝까지 깨야만 오늘의 달성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강박관념에 장시간 동안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게임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학교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중독성(addiction)이 청소년들의 강박과 집착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강박 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강박적 사고나 행동이 존재한다.

먼저, 첫 번째는 순수한 강박적 사고 형으로 내면적인 강박 사고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사고가 계속 떠올라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면적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상 심리인데, 이 상황은 강박적인 사고에 존재하는 내면에 나타나는 행동으로써, 주로 숫자를 계속 세는 행위, 기도하기, 어떤 문자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연적 강박 행동성향을 나타낸다.⁸⁾ 대표적인 예로는, 걸레, 병균 같은 지저분한 것에 오염될 것 같은 생각에 이를 머릿속에서 제거하려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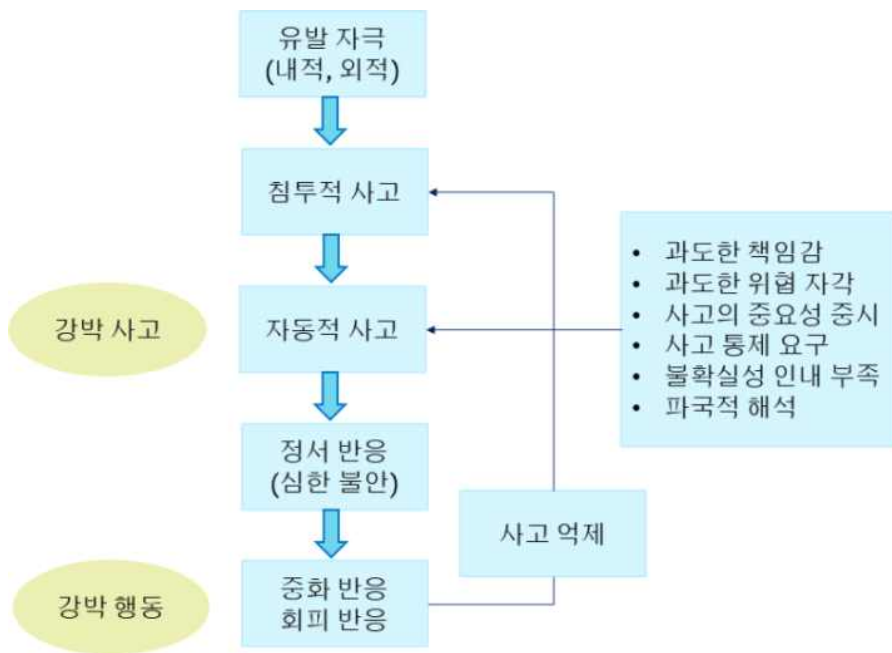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강박 장애를 앓고 있는 인간들은 흔히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많이 겪기도 한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처럼, 불안감과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심리는 강박 장애와 같이, 과대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침투적 사고는 라크만(Stanley Rachman, 1934-2021)⁹⁾에 의해 강박 장애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파국적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자신의 손에 병균이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침투적 사고가 의식에 떠오르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도판-9)는 라크만의 강박 장애에 대한 인지 행동적 모델을 나타내며 강박 장애 환자들이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침투적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시도하려 하지만

8) 권석만, 「이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4, p.85

9) 강박 장애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파국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투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파국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의식에 떠오르면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조 : 상계서, p.88)

이와 반대로 침투적 사고가 그들의 의식 속에 계속 떠오르며 역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강박 장애의 인지 행동 모델은 정상적인 침투사고가 강박 사고로 변질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과도한 책임감 지각이나 사고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 등이 침투사고의 현저성을 증가시키고 중화 행동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강박 장애 메커니즘을 유지 시킨다는 것이다.¹⁰⁾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대한 침투적 사고가 우연히 떠올라 그것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의무적인 행동을 해야만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다시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오히려 강박적 사고가 다시 역설적 효과로 나타나며, 또다시 계속 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침투적 사고를 더 강하게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강박적 사고가 의식 속에 머무르며 악순환의 과정이 반복되어 병적인 강박 사고로 발전하는 것이다.



출처 : 라크만의 강박 장애 인지 행동 모델

(도판-9), 강박 장애에 대한 인지 행동적 모델

10) 신민섭, 설순호, 「강박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7권 1호, 2007, p.17

정신분석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나타난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격리, 대처, 반동형성, 취소와 같은 특정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때, 강박적 증상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프로이드는 해석하였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침투적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지적 평가 및 사고 억제를 위한 부적절한 대처방안 행동이 강박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뇌의 구조적 결함 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았다. 전두엽의 기능손상으로 인해 강박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¹¹⁾ 기존의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투여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지만, 세로토닌 억제제를 사용한 치료 효과를 얻었다는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강박 장애의 치료는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보도의 주장이 제기되었다.¹²⁾ 강박 장애의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인지적 치료 및 약물치료가 지속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중독성(addiction)도 위와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한 악순환적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한 세상이 되었기에 이로 인한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며 우리의 심리를 더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에 우리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상실함으로써, 삶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독성으로 인해 나타난 강박 장애나 스트레스는 우리가 현실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이다.

11) 권석만, 전계서, p.90

12) 상계서, p.102

제 2절. 현대인의 심리에 나타나는 익명성

2-1.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정의

가. 익명성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비교

과거에도 익명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했다. 과거의 익명성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편지를 쓰거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출 수 있었다. 둘째는 익명 토론 및 출판에서 일부 작가나 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익명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정치 서적, 불온서적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익명의 토론이나 출판은 탄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셋째는 익명성을 이용한 저항 운동에서 특정 독재 정권이나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에서 익명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하 조직이나 저항 운동원들은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통신을 유지하여 반란이나 저항을 조직 했다. 넷째는 익명성을 통한 첩보 활동에서도 익명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첩보원들은 종종 가명이나 비공식적인 신원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한다. 다섯째는 익명성을 활용한 사적인 사업에서 일부 사람들은 부정한 활동이나 사적인 사업을 익명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이는 법적인 문제나 타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익명성을 통한 예술과 문학 활동 부분에서 일부 작가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익명으로 발표하거나 특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했다. 일례로,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다룬 김승옥의 문학 작품¹³⁾에 나오는 ‘안’ 과 ‘나’ 가 숙박부에서 거짓 나이와 직업을 쓰는 모습에서 자신의 신원을 익명화시키는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책임과 부담감에서 회피하려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을 익명화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 익명성이 어떻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익

13)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단편소설, 1965, p.6

명성은 때로는 자유로움과 안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목적을 감추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과거와 대비하여 현대의 익명성은 기술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의 다양한 이유로 변화하였다. 첫째는 21세기 이후, 현대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익명성이 매우 증가했다.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식별 정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세계에서는 타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정도로 이를 숨길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에서 현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원을 감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때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익명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셋째는 사생활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익명성은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넷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익명성은 다양한 익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양성과 열린 토론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법적 측면과 도덕성에서 보면, 일부 법적인 영역에서는 익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에 대한 법적 지원과 제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익명성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며,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인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나. 현대인의 익명성

현대인의 익명성이란, 현대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보나 신원을 감추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대한 구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프로세스 익명성과 내용 익명성으로 나누는 것과 둘째, 기술적 익명성과 사회적 익명성으로 볼 수 있다.¹⁴⁾ 먼저 프로세스 익명성과 내용 익명성의 구분에 있어 프로세스 익명성은 ‘누가 의견을 내고 있는지’와 ‘내고 있지 않은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내용 익명성은 어떤 의견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기술적 익명성과 사회적 익명

14) 최희재, 이준기, 김정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 사회적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0권 1호, 2009, p.63

성의 구분에 있어 기술적 익명성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토론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 관련하여 개개인의 이름이나 사진과 같은 정보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필명을 사용하거나 토론에 제시한 의견 각각에 식별번호를 붙이는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사회적 익명성은 그룹 토론에 있어 토론에 참여한 개별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익명성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먼저 문제 해결 능력 측면에 있어서 익명의 토론이 신원을 알려주는 토론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다양한 종류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누구인지 모를 때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이처럼 익명성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자유로우며, 신분이나 성별, 나이, 사회 문화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한 공동체를 형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익명성의 반대 개념은 신원(身元)인데 신원은 집단 속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속성들의 어떠한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각 신원은 많은 부분 신원(partial identity) 들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 신원들은 특수한 상황이나 역할에서의 개인을 나타낸다. 만약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그룹 구성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을 나눈다면 이는 부분 신원의 상황으로 사람들은 의견에 각자 이름이 붙더라도 어느 정도 익명성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처음 보는 사이라 하더라도 얼굴을 보면서 실명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이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완전 신원 상황이 된다. 사람들은 완전 신원의 조건보다 어느 정도 익명성을 느끼는 부분 신원의 조건일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익명성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해킹, 불법 온라인 성매매 등으로 익명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를 숨기고 실명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온라인 게임에서 익명의 아바타를 조작하고 다른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는 것은 자칫 중독성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칫 중독성을 떨 수 있으며, 자기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줌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익명성을 통해 피 감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익명성에 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과 인터넷 중독 모두 온라인 익명성,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대학 생활 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SNS 중독 경향은 불안이 가장 잘 설명하고 그다음 외현적 자기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은 내현적 자기애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온라인 익명성, 외현적 자기애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¹⁵⁾

‘대학 생활 적응 익명성이 사회적 존재감을 낮추게 한다는 연구도 있다. (Nunamaker et al, 1991; Short et al, 1976) 익명성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직접성을 낮추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감을 낮춘다고 하였다. (Latane, 1981; Nunamaker et al, 1991)’¹⁶⁾ 사람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나눌 때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 실재감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존재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과도한 익명성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 활동을 저하하며, 사회생활의 의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남수정은 긴장과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와 익명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긴장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익명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가 익명성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경로계수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익명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는데 낮은 통제력의 경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과 낮게 인식한 집단 모두 사이버 일탈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익명성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¹⁷⁾

15) 김정화, 이영호, 「대학생 집단의 SNS 중독 경향성과 인터넷 중독의 차이: 온라인 익명성, 자기애, 정신건강 및 대학 생활 변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0호, 2018, pp.27-52

16) 서응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집단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익명성 관점에서」, 한국유통과학회, 2015, p.78

17) 남수정, 「긴장과 낮은 통제력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와 익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 49권, 제 2호, 2011, pp.63-74

IT 전문 조사기관 K 리서치가 국내 네티즌 617명, 미·일·중 네티즌 각 300명씩 총 1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익명성 인식 조사’ 결과, 국내 네티즌의 46.8%는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답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16.2%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¹⁸⁾ 특히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10.0%인 데 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9%에 그쳤다. 익명성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소득과 학력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익명성의 중요성 인식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소득 및 학력이 낮을수록 익명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학력 수준에 따른 익명성 인식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고학력일수록 익명성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저학력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과 학력 차이에 따른 자기 책임성에 대한 의식은 정비례하고 있다.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기 책임성 역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는 사회의 주류 계층들은 인터넷 익명성이 가진 순기능보다 사생활의 보호, 인격 침해 방지 등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선호하는 태도로 풀이된다. 또한, 해외 네티즌 역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네티즌은 52.3%가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일본과 미국 네티즌도 각각 41.0%, 48.7%가 동일하게 응답했다.¹⁹⁾

에타는 대학생 시간표 만들기 겸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앱이다. 400개 대학에서 약 454만 이용하는 국내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다. 직장인에겐 블라인드가 있다면 대학생에겐 에타가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르게 에타는 해당 학교 재학생이 학생증 또는 학교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시간표를 짤 수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학교 재학생끼리 커뮤니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래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궁금한 것을 재학생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 또는 교내 근로 및 학교 상권 내 아르바이트 공고를 홍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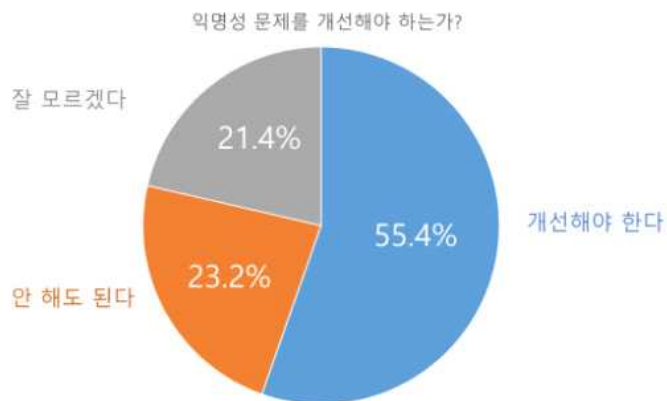
무엇보다 에타 커뮤니티의 장점은 익명성이다. 그래서 실명을 드러내고 어려운 고민이나 생각을 밝히고 또래 대학생들로부터 조언이나 공감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

18) 이강욱 ETRC 연구 기자, [K리서치]"인터넷 익명성 중요하다", 2008년 12월 8일,

(참조 : <https://www.etnews.com/200812080135>)

19) 상계서, (참조 : <https://www.etnews.com/200812080135>)

내 부조리나 부당한 사건을 밝힌 사례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에타의 이용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때론 조롱 또는 욕설과 같은 악성 댓글의 문제가 있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 허위 사실 유포가 되고 이에 대해 사실 검증도 되지 않은 채 비난을 하는 예도 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우들로부터 악성 댓글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사자는 그 상처가 더 크다. 이러한 점이 에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익명성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에타 익명성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설문조사 참여 인원 112명(100%) 모두 에타를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도판-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타 익명성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엔 절반 이상이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112명 중 ‘개선해야 한다’ 답변이 62명(55.4%)이 차지했다. 반면, ‘안 해도 된다’ 답변에는 26명(23.2%)이 나타났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답변에는 24명(21.4%)이 나타났다. ‘에타 익명성을 개선해야 한다’ 라고 답한 62명 대상으로 ‘익명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질문했다. 그 결과 (도판-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이 익명성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익명성을 유지하되 신고 기능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보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22명(35.4%)이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번이 나오게 하는 의견이 15명(24.2%)이 나타났다. 글쓰이는 익명으로 하고 댓글은 실명하자는 의견엔 8명(12.9%)이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원 실명제 하자는 의견이 7명(11.3%)이 나타났다. 글쓰이만 익명을 보



(도판-10), 익명성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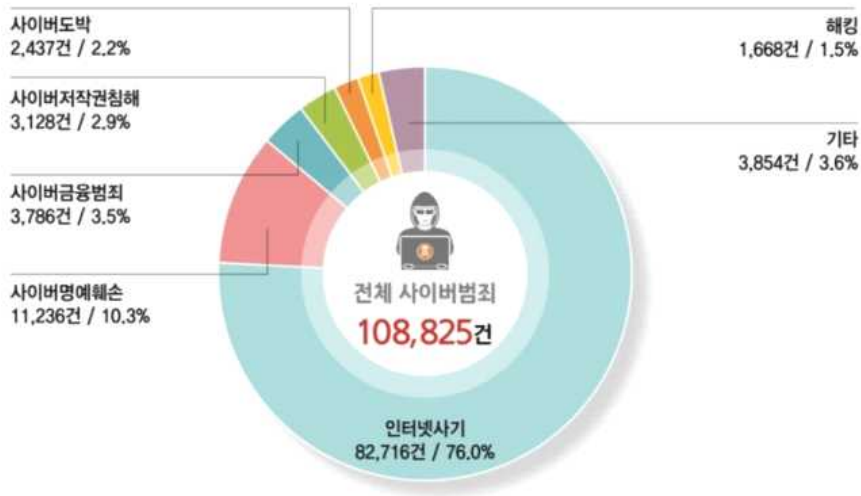


(도판-11), 익명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설문 결과

장하고 댓글을 학번까지 나오자는 의견엔 5명(8.1%)이 답했으며, 기타 의견 역시 5명(8.1%)이 나타났다.

위 통계를 통해 익명성을 유지하되 신고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보였으나 과반수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약 10명 중 1명 정도로 아직까진 소수의견으로 보인다. 이 외에 부분적인 실명제나 학번까지 공개되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교가 비대면 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나 또래 학생들로부터 얻는 조언, 학사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에타 내 커뮤니티 기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에타의 익명성 문제점 역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타에 익명성 개선이나 신고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물론 실명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익명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에타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인식과 태도다.

익명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서 사이버범죄를 들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도판-1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8년 3분기 기준 총 108,825건 발생했다. 2017년도(101,653건)에 비해 약 7.1% 증가했으며, 특히, 인터넷 사기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피싱과 이메일 무역 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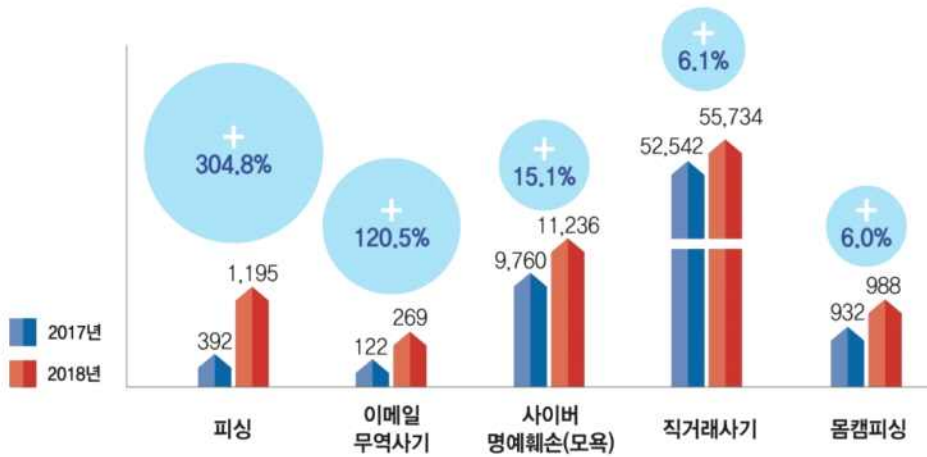


출처 : 사이버안전국

(도판-12),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중분류)

최근 사이버범죄 양상에 대해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사기가 확대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탈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사이버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올해 11만 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판-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글 게시로 돈을 이체받는 인터넷 사기가 전통적인 수법과 함께 가짜 안전거래 유도, 가짜 판매사이트 개설 등 보다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다. 두 번째로, 피싱과 같은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빼돌리는 사이버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39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인으로 속여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메일 수신자가 읽을 수밖에 없게끔 유인하는 교묘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주요 발생 증가 유형 (단위 : 건)



출처 : 사이버안전국

(도판-13), 사이버범죄 주요 발생 증가 유형 [자료=사이버안전국]

다. 현대인의 방어기제

인간들은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중독자는 부정과 투사,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중독 대상들에 몰두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려 한다.²⁰⁾ 특히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강박증, 우울, 불안, 대인 예민성, 공포불안, 정신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²¹⁾ 이 절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는 인간들의 나약한 심리에 따른 부정적인 방어기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방어기제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며,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심리에 방어기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분석하고자 한다. 방어기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 박상규, 「중독자의 심리와 회복에 대한 영성의 역할-호흡과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Vol. 25, No. 1, 2022, pp. 73-87

21) 상계서, p.75.

1) 투사

투사란, 자기 생각이나 미움, 욕구 등을 타인의 것으로 자각하는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타인에 대하여 애정이나 미움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타인이 본인에게 그런 감정이 있는 것으로 자각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투사 현상은 정신 분석에서 병리 현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자신의 욕구나 감정 등이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책임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는 일종의 자기 방어기제이다.

2) 합리화

합리화란,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본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거나 본인에게 주는 실망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 변명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거짓말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자존심이 손상당하는 것을 방어하거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기전 이다.

3) 부정

부정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방어기제로써, 현실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은 심리학적 방어기전 중의 하나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현실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 현실적인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방어기전이다. 예를 들면,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자신은 절대 암이 아니고 의사의 오진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이 있다. 부정은 현실적으로 진실을 마주할 만한 정신적인 힘이 없는 상태이며, 현실의 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고 부정이라는 방어기전으로 얻은 임시방편적인 마음의 평화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불편한 진실이

22) 정유진,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9, p.253

라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기전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 5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는데 첫 단계가 부정이고 그 이후 분노, 타협, 우울증의 단계를 거쳐 결국 마지막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²³⁾

4) 퇴행

퇴행은 예기하지 못한 난관이나 좌절에 빠져 당연한 현실의 과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유아기적인 행동이나 심리상태를 보이는 심리적인 방어기전이다. 예를 들면,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동생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보이게 되면 오줌을 잘 가리던 형이 바지에 오줌을 저리는 경우나 근엄한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동창을 만나면 근엄함은 사라지고 중학생처럼 행동하는 것 등이다. 누구나 심리적인 충격이 클 때는 엄마 품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찾게 된다. 현실의 충격에서 벗어나 위안받고 싶어하며 충격에서 회복할 때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다.

5) 지성화

지성화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사건이나 생각을 해명하여 없애버리기 위해 이론적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단어, 정의, 이론적 개념 등을 이용하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이런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먹지 못하며, 이러한 사람은 차갑고 논리적이며 “똑똑한 척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감이나 위안을 얻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서 날뿔 때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교수, 변호사, 학자 같은 논리적이며 탐구하는 직업에는 끌리지만, 간호사 예술가, 심리치료사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거나 남의 감정에 호소하는 직업은 싫다고 하며 한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람들이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는 모임에서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2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이진 옮김, 「죽음과 죽어감」, 이레, 2018, p.78

6) 유머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특정 상황에서 괴롭고 불편한 기분을 누그러뜨리려 웃음과 농담, 특히 풍자와 아이러니를 이용하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사람들을 웃긴다. ‘농담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며 웃지 않으면 울고 말 거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은 모임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깊은 속내를 나누는 상대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부터 웃기는 아이로 인기가 좋았으며 지금도 회사에서 재미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자신의 신체, 재산, 가족, 성취를 비하는 농담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체, 재산, 가족, 성취를 비꼬는 말을 자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자주 핀잔을 주며 사람들이 재미를 원할 때는 나를 찾지만, 문제가 있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는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데 정작 본인은 기대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7) 전치(displacement)

전치는 놀랐거나 굴욕적이거나 불쾌한 기분 충동을 덜 위협적인 사람이나 사물로 돌리는 방어기제로서 ~ 때문에, 불쾌한 이 기분을 무엇에, 누구에게 풀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출근하려는 순간 아내가 언쟁을 시작하자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난 채로 서둘러 출근해 과속하며 운전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빨리 출발하지 않자 크게 울려 대며 욕을 하는 경우나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에도 일하라고 하자 상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때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경우 등이다.

8) 승화(sublimation)

자신이나 혹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기분을 용인할 만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불편한 욕구나 감정을 가치 있는 활동에 쏟아붓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피카소나 앤디 워홀 같은 유명 예술가는 물론 지역 문화센터에서 조각을 배우는 사람이나 중학교 교향악단의 아이들 또는 대본을 몇 번이나 고쳐 쓰는 초보

시나리오 작가나 학교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승화하라는 방어기제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분노와 같은 여러 감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거나 비싸고 좋은 신제품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은 열등감을 물건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9) 지연 행동

내면을 고민을 피하려고 시작하거나 완료해야 할 일을 미루는 방어기제로 항상 "당장 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하라던 엄마를 떠올리며 아예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낼 상황에서 상관없는 엉뚱한 일에 매달리는 것 또는 원고 집필을 앞두고 차를 여러 잔 마시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과자를 먹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원고는 쓰지 않는 행동을 들 수 있다.

10) 이타주의 (Altruism)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에게 헌신적으로 바치는 것을 말하며 "내 존재의 의미는 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어기제이다.

예를 들어 고기에 탄 부분, 깨진 과자들, 덜 익은 과일은 항상 본인이 먹고 마지막 남은 초콜릿, 가장 큰 파이 조각,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경우이다. 또한, 형편이 되지 않아도 기부 요청에는 언제든지 응하며 남들에게 치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다. 또한, 파티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기보다 주최자 음식준비과정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 등이다.

11) 수동 공격 (passive aggression)

분한 마음, 적대감, 상처받은 기분을 무관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어기제로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미소를 지으며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 지연 행동이나 무응답, 무반응, 시선 회피, 연락 두절 등 우회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전 다툼 친구와 약속을 일부러 깨거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그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상사 없는 곳에서 동료들 모아놓고 상사를 비난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방어기제는 모두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위기 시에 어떤 방어기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어기제가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방어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²⁴⁾

결국, 익명성과 방어기제와의 관계는 익명성은 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SNS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익명성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세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솔직한 의견 표현이나 자기 표출을 가능하게 하며 자아 방어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익명성과 방어기제는 심리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채택하여 자아 방어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어기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최옥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08, p. 170

2-2. 현대인의 심리학적 분석

현대인의 심리에 대한 분석은 정신 역동적 분석과 인본주의적 분석의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 분석의 부정적인 측면, 인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인간이 현대 사회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 심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정신 역동적 분석(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²⁵⁾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모두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고 이중 성적 욕구(리비도, Libido)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정신 활동은 목적이 있고 과거 경험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²⁶⁾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원초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부분으로 충동과 본능의 원인이라고 하였다.²⁷⁾ 자아는 4~6개월부터 발달하여 현실을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긴장의 해소를 유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어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며 초자아와 원초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고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해 자아와 함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째 구강기는 0~1세 때이며 리비도가 입술 등 구강에 집중된다고 하였다. 이때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살핌을 갈망하게 되며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25)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기체에 대한 이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 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초기 뇌성마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참조 : <http://www.epicurus.kr/Humanitas/386985인용>)

26) 이근홍,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p.360

27)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성수, 한승완 옮김, 「과학과 정신분석학」, 열린 책들, 2020, pp.285-286

는 향문기인데 1~3세의 기간으로 리비도는 배설과 관련된 향문에 집중이 되며, 배변으로 향문 자극에 대한 쾌감을 얻는 동시에 배변훈련을 함으로써, 사회화의 기대에 직면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때는 부모 의존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창조성의 기초가 되는 자립과 자존을 배운다고 하였다. 셋째로 남근기는 3~5세까지의 기간이며, 이때는 자신의 성기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충동과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아이는 보통 부모 성별을 향해서 높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게 된다. 잠재기는 6~12세 사이이며, 리비도가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자아나 초자아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식기는 12세 이후이며 이성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며 이때 성격 형성이 이상적으로 정립되는 시기이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방어기제에는 억압, 저항, 부정, 퇴행, 반동형성, 투사 등이 있다. 2-1절에서 정의한 방어기제 외의 개념으로 억압은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버려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상실증이 억압의 대표적인 예인데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던 여성 중에서 기억상실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바로 자신이 강간당했던 그 부분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이는 그 부분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결과이다. 저항은 억압된 감정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 기전이다. 반동이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동생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을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즉 남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긴 유치원생이 아기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기를 너무 세게 껴안거나 너무 크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너무 거칠게 흔들어주거나 하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 의하면, 각 연령대의 정신은 이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격은 심리 성적 발달의 결과물이고, 5세 이전에 성격이 형성되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부터 표출되며, 무의식적인 사고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무의식’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억압에서부터 벗어난 동물적인 행위의 표출과정이라 정의하였다.²⁸⁾

28) 이용승, 「정신분석에서의 동기 이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Vol., No. 36, 2010, pp.155-171

나. 인본주의적 분석(칼 로저스)

칼 로저스(Carl Rogers, 1902~1987)²⁹⁾는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중시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쉽게 말하면, 인간존중의 사상과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현상학 이론(phenomenological theory)³⁰⁾을 체계화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모든 세계에 대한 자각,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및 수용적 자세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이론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항상 건전하고 자발적이며, 자기 일에 책임을 갖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척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보았다. 또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원래부터 전진적이고 건설적이며,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부의 본성이 진실로 드러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내적 본성을 경험하고 그것에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자기 책임감, 협동심, 서로 존중하며,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천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믿음 등은 자아실현의 동기를 얻어야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³¹⁾ 인간의 삶에 있어, 그 자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이다. 자아실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기충족, 성숙, 발전 등의 진보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아실현의 경향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기능 및 능력을 갖추게 된다. 로저스의 현상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이 제시된다.

29)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로, 심리학자 중에서는 가장 널리 영향력을 끼친 상담자이며 연구자이고 교육자다.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를 한 인격체로 대하며 무조건적인 수용적 태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최근 20세기에 자주 언급되는 심리학 학자이다. 이에 기독교 계통의 상담가들은 그의 이론에서 신학적인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의 이론을 크게 환영하였다. 하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인 그의 인간 이해와 상담이론은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조 : 방윤주, 「교회 현장에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적용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vol. 55, no. 2, 2023, pp. 173-196)

30) 개인이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동으로써, 행동은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 (참조 : <https://edospia.com/54인용>)

31) 에이브러햄 메슬러, 오혜경 역, 「동기와 성격」, 연암서가, 2021, p.11

1) 주관적 경험과 행동

로저스의 현상학은 현실을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즉각적인 의식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따라서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인자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로저스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이 현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경험이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과거 경험을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즉, 과거 경험에 대한 지금의 해석에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느냐에 따라 현재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의 성격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현재- 미래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자기의 중요성

자기 (self)는 로저스 성격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자기 개념은 인간이 본인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미래에 되고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로저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라는 개념은 항상 정형화된 형태적 특성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고 인간이 성장하더라도 본인은 자신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확고한 내적 감정이 있다고 하였다.³³⁾ 그리고 자기라는 개념은 인생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본인 자신과 주변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출현하기 시작하며 특히 부모 형제나 친구 등과 같은 중요한 이웃들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3) 긍정적 관심

긍정적 관심(positive regard)은 자기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서 발달하는 인간이 영원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이다. 이것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수용, 사랑, 승인, 존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긍정적 관심에 대한

32) 이근홍, 전계서, p.246

33) 송인섭,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아시아 교육 연구, 1권 1호, 2000, pp. 217-247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나타나는 만족과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좌절을 맛보면서 점차 발달하는 욕구이다.

로저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긍정적 관심을 요구하며, 긍정적 관심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의 개인적 만족과 인정하지 않을 때의 개인적 불만족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하였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같이 상호 간의 관계 특성과는 상관없이 타인에 관한 관심, 수용, 존중 등의 사고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³⁴⁾

4) 가치의 조건

가치의 조건(condition of worth)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행동이나 태도를 삼가고 상대방에게 칭찬받거나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때 수용할 가치가 있다 라는 믿음이다. 아동은 이러한 긍정적 관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으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영향을 받고 이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칭찬이나 인정 및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조건은 이전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며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현실을 왜곡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치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주거나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³⁵⁾

이와 같이,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적 현상학에 기반하여 주로 "클라이언트 중심치료" 또는 "인간 중심치료"라고 불리는 상담심리학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현상학은 상담심리학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육, 조직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의 관점은 개인의 내적 경험과 성장에 주목함으로써 심리학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34) 이근홍, 전계서. p.248

35) http://www.kclatc6.com/bbs/board.php?bo_table=co03&wr_id=43&page=2

다. 미술 심리 치료적 분석

미술의 발달단계에서 보면,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끄적거리는 난화기(낙서기)³⁶⁾를 거치기 시작한다고 했다.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1903-1960)³⁷⁾는 이를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하면서 표현 도구로 구체적인 의미가 없이 마구 끄적거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무엇을 섬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감각 운동의 즐거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물적인 행위는 무의식의 감정으로부터 표출되는 작용이다. 미술은 창조적인 힘으로부터 발산되는 수단으로 색채와 표현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무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표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도식기³⁸⁾의 공간개념이 생기면서 선과 면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도식의 개념을 자기만의 표현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가식적인 도시의 풍경에 그려진 거대한 건물들은 도식의 개념을 형성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되게 표현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생략한 경우이다. 또한, 사실적인 색을 표현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색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과 색에 대한 도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미술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조형 요소들은 상호 작용을 하고 모든 형태를 이루어낸다. 단순한 도식의 형태가 이러한 조형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유아들부터 성인들까지 인식하는 개념이다. 주변 풍경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건축물들은 점과 선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

36) 유아 미술 발달단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써, 그림에서 무의식적인 선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마구 끄적거리는 뜻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2~4세의 갓난아이의 연령에 해당하며, 유아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미술표현의 단계이다. 유아는 갓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을 경험해야 하는 초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에 관한 도식의 개념과 상관없이 근육운동 자체의 움직임을 즐긴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조 : 김은심, 김정희, 손미애, 유지아, 「유아미술교육」, 학지사, pp.107-108 인용)

37) 20세기 오스트리아의 미술교육자로서, 미술교육을 통해 아동의 순화 적인 발달을 위한 인간교육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학자이다.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전 단계를 미리 거치면서 발달의 속도가 높아지며, 전체적인 발달단계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참조 : 고현, 김종임, 민형덕, 박광숙, 박신영, 배서영, 신철호, 조근호, 「유아미술교육」, 학지사, p.97 인용)

38) 유아 미술의 발달단계의 전 도식기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로써, 7~9세의 아동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공간과 색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면서 도형에 대한 감각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기저선이 형성되면서 그림의 배경화면에 하늘과 땅을 명확히 구분한다.

(참조 :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p.40 인용)

이러한 기초적인 조형 요소들은 미술에서 감정과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용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현대인들에게서 따뜻한 인간적 감정이 인간의 행동 및 심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미술표현에서 선과 형태로만 표현을 결정짓는 것은 그만큼의 현대인의 정서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물이나 자연풍경을 표현할 때, 해부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사실적인 묘사를 강조하면서 그것의 생기가 느껴지는 색채가 표현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모든 그림이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풍부한 정서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따뜻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미술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어느 사물이나 인물을 그릴 때도 단순한 원색만을 표현하여 거의 정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현대 사회의 인간적인 내면을 빗대어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사회적 현상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예술은 그 한계를 넘어서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의 모든 장르와 통합되어 더 새로운 영역으로 진보하게 되었다. 또한, 예술에 의한 치료 효과는 오늘날의 모든 학문과 문화의 포괄적인 부분을 통틀어 미술치료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사고, 즉 창의성과 표현의 욕구는 무의식으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으로써, 모든 인간의 삶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미술이 가진 언어가 사회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대적 상황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성에 따라 미술의 표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도시의 가식적인 이미지는 시각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실제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개인적인 심리, 내면의 진실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단서인 것이다. 인간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인간은 기계화 시대가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점차 충동적으로 대처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임상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술치료 도입이 점차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술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과 색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인간에게 사회적,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 주변 자연환경을 접한 색채의 탐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색채란 요소는 17세기의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Sir Isaac newton, 1643-1727)³⁹⁾ 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프리즘으로 빛이 통과하여 여러 가지 색이 반사되는 물리적 현상에서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이러한 색채의 이론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색채론 이란 저서로 남게 되었다.⁴⁰⁾

위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미술 언어로 가식적인 도시풍경의 이미지와 익명성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미술에서 매우 강력한 언어 수단 중 하나로, 감정, 분위기, 그리고 주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파란색과 회색 톤은 현대적이고 냉정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색채는 건물들의 차가운 표면, 혹은 금속과 유리 소재들을 강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기계적이고 가식적인 면을 강조한다. 흑백 이미지 또는 단일 색조의 이미지는 익명성을 나타낸다. 회색 조나 세피아 톤은 개인들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만들어 익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 형광색은 도시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와 소음을 나타낼 수 있다. 강렬한 분홍, 노랑, 그린과 같은 형광색은 도시의 활기찬 면과 동시에 조금은 가식적이고 지나치게 과장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어두운 색조, 특히 검은색은 소외감과 고독을 나타내었다. 암울한 색채는 도시의 익명성과 개인의 소외된 존재를 강조할 수 있다. 대비를 강조하여 밝은색과 어두운색, 뜨거운 색과 차가운 색을 혼합함으로써 도시의 갈등과 긴장을 표현하였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색채의 표현을 통해 도시의 복잡성, 가식성, 익명성, 갈등, 소외감 등을 감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이러한 색채표현은 도시의 복잡한 실체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연구자의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게 하였다.

39) 잉글랜드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그는 최초로 반사망원경을 발명하였으며, 프리즘이 백색광을 색스펙트럼을 통해 여러 가지 색으로 분리된다는 색채 이론을 개발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를 통해 색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미술에서도 과학적인 요소가 적용되었다.(참조 : <https://cerveza.tistory.com/8> 인용)

40) 정여주, 전계서, p.95

III.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에 함축된 미술 언어의 특성과 의미

본 3장에서는 도시풍경의 이미지에 표현된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들에 대한 미술 언어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 언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도시풍경의 표현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도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미술 언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자의 작품에서 그에 대한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제 1절. 도시 이미지의 형태적 특성

1-1. 도시 이미지의 함의

(도판-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밝혀진 조명들로 인하여 빛나는 도시 야경의 건물들을 보면, 12~13세기의 중세 시대의 고딕의 첨탑 양식같이 우뚝 솟아 있다. 대도시의 거대한 빌딩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지각(視知覺)의 효과를 강조하며,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의 숭배가 높아지면서 도시경관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미적 감수성이 존재하기 시작했다.⁴¹⁾ 환한 색채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듯이, 어두운 밤의 배경에 대비하여 중앙에 빌딩들의 밝은 색감들이 표현되었다면, 이것은 풍경을 보는 관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효과를 준다. 하나하나 중점된 빌딩들의 이미지는 반사되는 빛들에 의해 사진 배경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그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다. 2장에서 미술 심리치료 부분에서 언급한 17세기의 물리학자 『뉴턴(Nuton)의 색채 이론, (1675)』에 의하면, 사물 안에서 빛이 반사되면 여러 가지 색채들이 나타나면서 눈의 얇은 막에서의 색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도판-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안에 비추는 여러 가지 색채의 조명들로 인해 인간들은 그 찬란함에 시각적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41) 이광석, 「디지털 폭식 사회」, 인물과 사상사, 2022, pp.161-162

외관에 반사되는 조명들이 가식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미술적인 시각에서 이미지를 감상할 때는 사물의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서 느껴지는 심상과 같은 내면을 파악해야 한다. 풍경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원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시의 야경처럼 인공적인 풍경은 사회와 문화의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순수함 그 자체를 잃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똑같은 풍경이 화려한 조명들로 인해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거나, 문명의 발달로 인해 예전에 순수한 자연의 꽃, 나무들이 존재하였었던 공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그 자리에 대도시의 빌딩들이 다시 차지하는 것들이다. 현대의 도시는 단지 인간들에게 시각적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지만 과거의 따뜻한 정서나 감수성은 보이지 않게 변화되었다. 그저 보기 좋게 포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함의를 가식적인 도시의 허구성으로 보고 작품에서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판-14), 서울 야경의 모습, 2023

1-2.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구성요소는 선적 공간의 유형과 면적 공간의 유형의 2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적용한 반복적 구도의 연속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시 이미지의 형태가 위 요소들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본다.

가. 선(線)적 공간의 요소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선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물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선은 도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선은 일정하게 도식의 면을 구성하는 단위로 사용되며, 뚜렷한 형태와 규칙적인 관계 속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도시의 건물이 사적 영역이라면 도시 공간은 도시의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인간의 삶은 도시의 공적 영역에서 접근하는 곳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일상적인 경험 대부분은 집단으로 공유하는 도시의 공적 영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 공간은 접근로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도시 생활이 의미하는 여러 기능과 활동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⁴²⁾

(도판-15)의 서울의 고급 건축물들의 형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선, 수평선을 활용한 구도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확한 윤곽선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고 이러한 윤곽선은 방향성과 안정감을 준다. 윤곽선은 여러 가지 크기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들의 형태는 길쭉하게 늘어뜨린 직사각형 구조의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공간에서 선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로 적용하며, 그러지는 방향성에 따라 그 길이 나타난다. 일례로, 선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직선과 곡선이 존재한다. 도시 이미지의 건축물의 형태는 거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구조로 딱딱한 모형으로 되어있다. 그것에 표현된 직선은 위엄과 장엄함을 상징하는데 건축물에 표현된 선의 모형을 보면, 전부 직선으로 되

42)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Chungbuk/LeeJun-Pyo/5.pdf> 인용

어있다.⁴³⁾ 그래서인지 대도시의 건축물들은 딱딱한 직선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 무언가 근엄하고 인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반복되는 패턴구조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도시 속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변화 없이 일정한 틀에 박혀 사는 일상의 단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의 힘과 탐욕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층 건물들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시각에 의해 웅장함을 뽐내고 있다. 그만큼의 힘을 과시하며,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현대문명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떠한 왜곡이나 변형 없이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만을 추구하는 현대 건물의 도식적인 형태는 도시의 모든 구조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있다. 흐트러짐 없이 인간들의 삶이 정지되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감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도판-15), 서울 여의도 빌딩들의 구조, 2023

43) 엄세나, 길효정,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유아 미술감상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9, P34

(도판-16)의 건축물의 구조와 (도판-17)의 부산 광안대교의 다리 형태를 보면, 모든 대각선과 평행선, 수평선 수직선, 곡선 등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의 공간을 한정 짓는 선의 효과는 면에 나타난 색이 일정한 선에 빠져 나오지 않게 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풍경의 모든 이미지는 미세한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선이 연결되는 것처럼, 선은 건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도판-17)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할 때에도 정확한 선을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도를 구성할 때는 직선이 많이 활용되는데 정확한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선의 미학에 따라 건축물은 아름답게 창조된다.

(도판-17)의 광안대교의 다리에 나타난 선의 구도를 보면, 곡선과 수직선, 수평선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곡선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아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요소로써, 야경에 비치는 다리의 찬란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치, 원근법이 활용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의 투시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도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둘 다 투시법과 원근법을 활용한 것이 발견된다. 다른 말로 선 원근법이라고도 불린다. 인간이 실제로 보는 공간을 중점으로 한 소실점이 모이고, 그 소실점에 따라 선이 이어지는 과정의 모든 사물이 중앙이나 측면에 배치되는 원근법이 활용되는 것이다.⁴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투시하여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먼 곳까지의 원근감이 명확히 나타나면서 사물들 위치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실제 생활에서도 원근법을 이용한 투시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 중앙에서 보면, 풍경의 모든 물체가 균형감이 잡혀 있고 움직임의 미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선이 선 원근법을 활용한 비례와 비율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

44) 김인숙, 「회화공간의 변화에 관하여(르네상스의 원근법으로부터 추상표현의 공간까지)」, 미술, 디자인학과 서양화전공, 조형예술학박사, 2008,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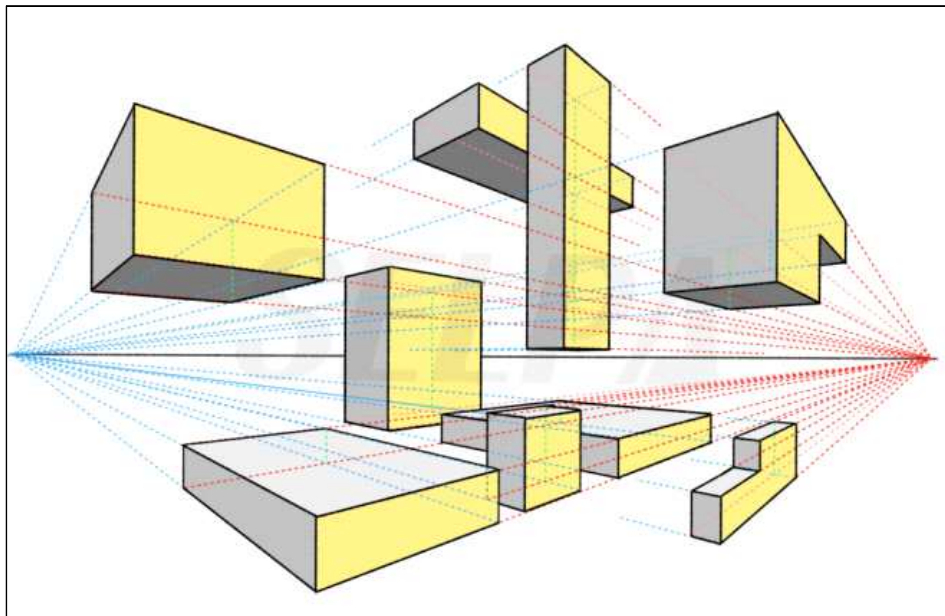


(도판-16), 건축 인테리어의 도식적 형태, 2023



(도판-17), 부산 광안대교 다리의 기하학적인 형태, 2023

(도판-18)을 보면, 선 원근법에 따라 2점의 소실점이 왼쪽과 오른쪽에 잡혀 있고, 그에 따른 2곳의 공간이 이루어지면서 1점 투시보다 공간감이 더욱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사물의 앞부분은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뒷면은 그보다 작게 표현된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그 외의 추가적인 요소들은 작게 표현하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직육면체의 구성을 보면, 거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면서 직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사각형의 꼭짓점에 따라 투시 선이 이어지면서 강한 원근감을 나타내어 3차원의 공간의 깊이감을 더 강하게 살려주는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강조하는 원근법의 원리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사조의 원근법에 따르면, 인물의 해부학적 지식과 수학적 과학적 이론에 따른 해석에 모든 사물의 비율을 정확한 선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이 특징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도판-18), 2점 투시 원근법

르네상스 시대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원근법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이전의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보았을 때는 선 원근법을 중시하면서 작품 속의 고요함, 엄숙함, 또렷함의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⁴⁵⁾ (도판-16)과 (도판-17)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선이 각 소실점에 따라 하나의 선 원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았을 때는 긴장감이 돌고, 정숙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 이미지들은 선 원근법이 적용된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원근법에 따라 비례와 비율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원근법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도시의 가식적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 면(面)적 공간의 요소

면은 선과 선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단위로 해석된다. 면은 말 그대로 형태를 의미한다. 기하학적인 선의 무한적인 이동으로 생성된 하나의 요소이며,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색감의 변화로 인해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질감과 깊이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입체주의에 유용하게 쓰이는 면은 분석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선의 연속성으로 결합한다. 건축물들의 면은 전부 직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판-19)는 부산의 해운대 마천루의 빌딩들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각각 면이 분석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뚜렷한 경계가 표현되고 있다. 풍경에서 강조하는 면의 구성은 일반적인 도식의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기호적인 특성을 함축하기도 한다. 마천루의 구조를 보면, 구축된 건축물들이 조형적인 질서가 있으며 무언가 암시적인 기호의 상징적인 도상들의 형태가 현대 도시의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⁴⁶⁾

45) 박송화 저,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메이트북스, 2023, p.174

46) 대동문화재단, 「생명의 긍정과 환희의 풍경」, 1991-2011, p.172



(도판-19), 부산 해운대 빌딩 면 구조, 2023

길쭉하게 뻗어있는 마천루는 다른 마천루보다 앞으로의 혁신적인 문명의 발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다른 풍경의 요소들에 비해 위압감과 근엄함을 강조하면서도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속도감이나 질주보다는 무게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산업 문명의 가속화로 고딕의 첨탑 양식(Gothic yanta architecture)처럼,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하늘을 떠받드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건축물 면의 색감으로 보았을 때, 무채색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다. 형태들은 모두 정해진 틀 안에 한 치도 벗어남이 없으며, 이러한 규칙 안에 담겨 있는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다.

(도판-20)을 보면, 서울 홍대 한옥 카페의 대문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의 느낌은 그대로 살려냈고, 측면에 있는 백색의 벽면들은 하나의 단순한 면을 구성하고 중앙에 배치된 대문은 무수한 검은 점들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와집 대문의 구조의 색감과 백색 벽면의 색감에서도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색이 완전하게 분리된 현대적인 미감을 그대로 살려냈다. 대문에 표현된

점과 문양은 기하 적인 패턴을 구성하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비워진 느낌의 새로움을 선사한다. 현대 도시 문명이 선호하는 기계적이고 모든 조형적인 요소들을 축약한 느낌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도판-20), 서울 흥대 전통 한옥 카페 도식 구조, 2023

다. 반복적 공간의 연속성

연속성은 완전한 보존과 재개발 사이에서 과거의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과거와 다음 시대 사이에서 지속적인 형태 진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⁴⁷⁾ 도시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끊임없는 산업 문명의 변화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한다. 또한, 건축 공간에 있어서 연

47) 김명식, 「건축 원리로서의 연속성 형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건축 공간과 도시 공간, 어제와 내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8), 2016년, pp.103-111

속성은 다양한 성격의 공간 간의 상호 밀접한 연결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⁸⁾ 연속성은 시간과 연관되어 시간적인 개념의 건축 공간은 일련의 출발점부터 시작하여 도달점까지, 그 사이에 개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의 연속성을 위하여 공통된 성격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 즉, 관찰자는 건물 내부로 들어왔을 때, 건물의 입구로부터 시작하여 도착지인 목적지까지 연속적인 시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경계의 모호함 속에 공간적 연속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공간 내에서 운동(동선)과 시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속적인 공간 체험을 자각할 수 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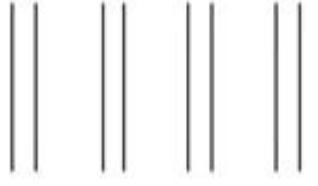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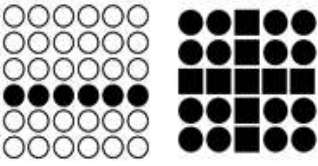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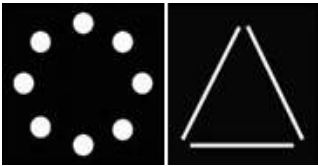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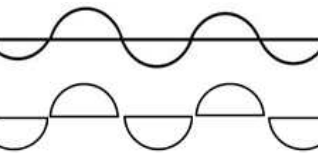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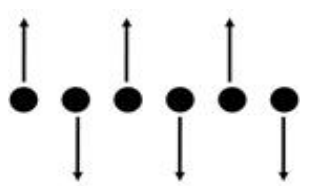

(표-1)에서는 계슈탈트의 실험실에서 정의한 시각 체계화(perceptual organization)⁵⁰⁾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이론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 패턴들을 만들고 이 패턴들을 보았을 때, 인간의 두뇌에서 어떤 시각으로 체계화하는가를 정의하였다.

48) <https://m.blog.naver.com/ygpkw/100003173293> 인용

49) 신승수, 김철수, 「건축에서 수직 이동수단의 반복과 공간 연속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계슈탈트 시각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체육학 > 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실내환경디자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16, no.1, 통권 70호, 2021, pp. 35-46

50) 조직화된 구조로써, 계슈탈트가 제시한 이론이다. 질서와 법칙에 따르는 전체적인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 (참조 : 정유진, 전개서, pp.63-70)

(표-1). 게슈탈트 이론의 구성요소⁵¹⁾

구성요소	정의 및 특성	그림 예시	설명
근접성 proximity	시각 요소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의 그룹이나 패턴으로 보이기 쉽다는 원리이며, 인간이 무질서한 자연 자극을 서로 근접한 것끼리 밀접한 관계성으로 구조화한다는 것		✓ 8개의 직선이지만 2개씩 묶여 있는 총 4개의 그룹처럼 보인다
유사성 similarity	유사한 모양, 크기, 색상, 질감 등 어떤 속성 적 요인들에 의해 우리 지어 보려는 통일화 경향이며, 비슷한 성질의 요소를 가진 것끼리는 떨어져 있어도 그룹으로 인식됨		✓ 검은 원의 배열 때문에 가로 열로 보인다(좌) ✓ 네모 십자와 4쌍의 원 그룹으로 보인다(우)
폐쇄성 closure	닫혀 있지 않은 도형이 기존의 지식에 의해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도형이나 집단처럼 보이며, 끊어지거나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어도 하나의 완성된 닫힌 형으로 인식한다는 것		✓ 열려있지만 배열로 인해 큰 원으로 인지된다(좌) ✓ 세 모서리가 열려있으나 삼각형으로 보인다(우)
연속성 continuation	선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졌는지 상관없이 가장 부드러운 경로의 선으로 시각이 따라가는 경향을 말하며, 어떤 형태나 그룹이 일정 방향으로 연속해서 배열되어 있을 때 이것이 전체 형태의 고유 특성이 된다는 것		✓ 곡선과 직선 두 개의 연속 선분으로 인식(상) ✓ 어색하게 단절된 형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임(하)
공통성 common fate	대상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배열이나 성질이 같은 것끼리 집단화되어 보인다는 것(ex:도로 위 차들의 흐름, 새 떼)		✓ 1, 3, 5는 위 / 2, 4, 6은 아래를 향하므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됨
도형과 배경 figure-ground	어떤 대상의 윤곽선에 의해 화면이 두 영역으로 나뉘고 두 영역의 형은 동시에 관찰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 즉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명료할 경우 전체적인 지각이 쉽고 불명료하면 모호하고 어렵다는 것		✓ 루빈의 컵, 검은 배경과 흰색 화병, 흰색 배경과 마주 보는 검은 얼굴

51) 신승수, 김철수, 「건축에서 수직 이동수단의 반복과 공간 연속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게슈탈트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전계서, p.40

건축 내부에서 우리는 모든 시각적 인식과 주관적 판단 속에 인간 개개인이 처음 보는 공간을 본인의 시각을 통해 머릿속에 인지함으로써,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건축물 내부 구조의 동선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어떠한 방향에 따라 부여되느냐에 개인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기도 한다.

1-3. 미술 언어로서 회화적 특성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모방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베끼거나 그려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모방은 일상의 환경과 자연으로부터 얻는 영감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시각에 자극을 주어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행위일 수 있다.⁵²⁾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그려내는 창작 활동의 장르로는 극사실주의와 사진을 일례로 들 수 있는데 주로 일상을 주제로 차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일명 극사실주의는 다른 말로, 하이퍼리얼리즘(hyper realism), 포토리얼리즘(Photo realism), 슈퍼리얼리즘(Superrealism)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1960년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미술사조로써,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아 정교한 사실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회화로 재생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⁵³⁾ 실제의 장면을 정말 사진처럼 아주 똑같이 그려내는 표현기법으로써, 이러한 화폭들은 그만의 사실주의 기법이 너무도 생생하여 안반 에이크(Jan van Eyck, 1395-1441)⁵⁴⁾의 화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도판-21)의 극사실주의 작가인 리처드 에스티스의 화폭은 미국 어느 도시풍경의 일상을 한 단면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날카로운 시각에 의해 그려내는 화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재현하여 보는 관객들도 실제와 똑같다고 착각을 할 정도다. 빛의 반사에 따른 명암법과 원근감도 작가의 정확한 시각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었다.

52) 강재영, 김예성, 황혜림, 김연우, 오가영, 아키토모 유지, 유조 우에다, 이엔왕, 김효진, 마키코 사카모토-마트벨 공저, 「사물의 지도」, 샘터, 2023, p.325

53)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옮김,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p.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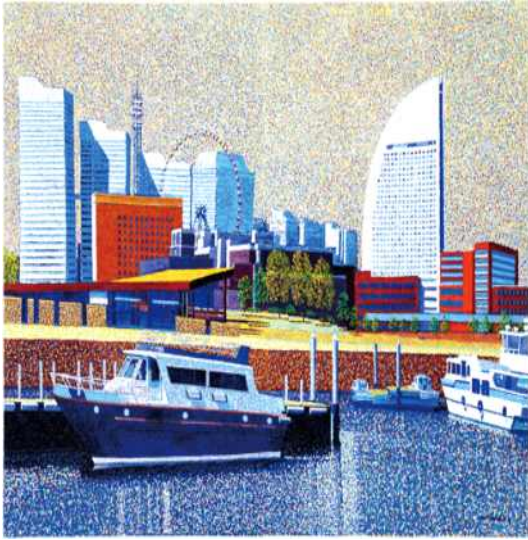
54) 15세기의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뛰어난 관찰력과 시각으로 정교한 사실주의를 추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의 주제로는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잇는 그대로 재현하며 화폭에 생생하게 담아내며, 개개인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 상계서,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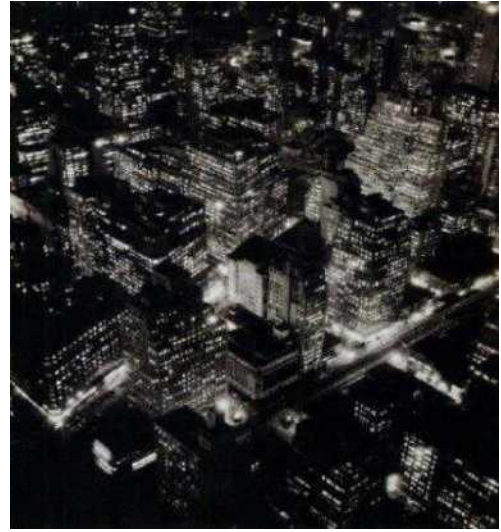
(도판-21), <타임스 스퀘어 오후 3시 53분, 겨울>, 1985, 개인 소장

(도판-22)의 김주철 작가의 점묘화 작품의 캔버스에 빼곡히 들어찬 점들은 가까이
 에서 보면形形色색의 조합이지만 멀어질수록 선명해지고 실물처럼 느껴진다. 마치 한
 장의 사진을 보는 듯하다. 김주철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점묘화와 다른 특징이 있다.
 후기 인상주의자들이 빛에 의해 순간적인 효과를 추구했다면, 그는 빛을 통해 자기 생
 각을 담고 생명감을 불어넣는다.⁵⁵⁾ 현대 도시의 특징을 점묘로 표현한 (도판-22)는 세
 밀한 터치로 현대 도시의 고층빌딩과 철재 구조물, 유리창 등을 무수한 점으로 표현하
 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특수재료로 코팅해 조명을 비추면 야경으로 변하는 환상적
 인 효과를 보여준다. 연구자 작품의 도시풍경의 건축물도 (도판-22)의 김주철의 점묘
 법같이, 단순한 조형 요소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55)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30>인용



(도판-22), 김주철, <요코하마>, 캔버스에 유채, 91x130cm, 2010



(도판-23), 베레니스 아보트, <뉴욕 야경>, Digital printing, 1932

현대 사진에서도 보면, 산업 문명으로 인한 기계의 발달과 카메라의 기능으로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사진의 특징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도판-23)은 미국의 뉴욕의 야경사진을 담은 현대 사진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의 구도는 위에서 아래로 야경을 그대로 찍으면서 도시의 활력을 포착하였다. 대도시에 비친 불빛들의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묘사하였고,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의 직사각형 도식을 정교하게 잘 담은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구성은 역동적인 느낌과 흑백 속의 찬란한 야경의 생동감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것이다. 이는 현대 도시의 삶을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작가의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어떠한 왜곡도 없이 현장의 분위기를 실감 나게 재현하는 현대 사진의 기술은 극사실적인 화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극사실주의와 현대 사진은 현실의 상황을 실제 나타나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 도시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도식(schema)은 일정한 양식으로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를 그려내는 그림을 의미한다.⁵⁶⁾ 이러한 의미에서 도식은 주로 공간 도식에서 모든 기호와 상징들에 대한 반복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된다. 이로써, 공간 관계에 질서를 발견하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미술로 풀어낼 수 있다.⁵⁷⁾

연구자의 작품 (그림-1)을 보면, 건물들의 형태가 직사각형의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정교한 선이 서로 만나면서 단순한 형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든 건물이 도식의 개념을 형성한 것이다. 건물들의 형태는 기본적인 도식의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통 건축에 이용하는 도형은 사각형의 모형을 따른다.



(그림-1), 양호열, <내면의 풍경1>, 72.7x91cm, Acrylic on canvas, 2023

56) <https://dic.daum.net>인용

57)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치료심리상담사」, 2017, p74

사각형은 주로 인간적인 것, 인간의 생활, 편리함, 안정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단단하고 무거움을 상징하기도 한다.⁵⁸⁾ 긍정적인 의미로는 놀이 나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 폐쇄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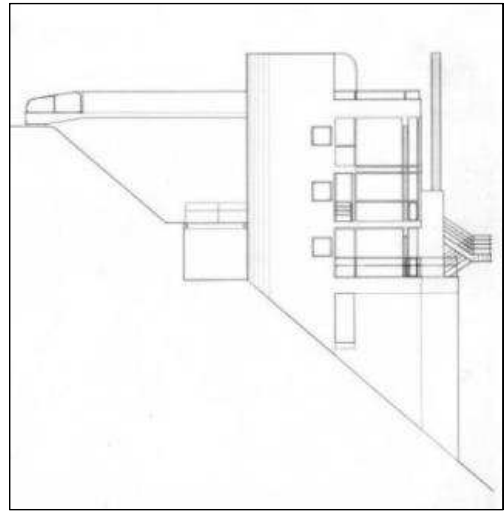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자의 작품에서 표현된 빌딩의 선과 면은 적절히 활용되었고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이러한 빌딩의 도식적인 이미지를 통해 공간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배경화면의 도시풍경의 이미지 윗부분에 빌딩들의 모습과 아래의 바다 풍경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 도식적인 빌딩들의 형태는 반복적이며, 단순화되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공간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에서는 현대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 빌딩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빌딩들은 검은색을 띄우면서도 화사한 조명의 색이 점으로 변하면서 인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빌딩에 표현된 조명들의 색인 점들은 하나의 형태 안에 반복, 리듬, 패턴화의 미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도식적인 빌딩 안에 수많은 기저선과 점들의 회화적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나면서 선명한 효과와 안정감이 느껴진다. 도식은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과 경험에서 지각하는 미술 활동의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에 나타난 기본적인 도형에 따른 기저선이 그려지면서 모양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원형,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에 기저선을 반복적으로 그려나가며 어떤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도시 이미지의 형태는 디자인적인 도식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단계에서도 뚜렷한 선과 면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설계도나 조감도에 따라 내부의 각 방의 구조를 뚜렷한 선과 면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다. 단순한 면을 다방면의 크기로 분산하면서 큰방, 안방, 거실 등의 내부들을 구분한 것은 도식의 구조를 잘 정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58) 정여주, 전계서, p.135

59) 상계서, p.136



(도판-24), 현대 건축의 설계도



(도판-25), 현대 건축의 조감도

위의 (도판-24)의 현대 건축의 설계도와 (도판-25)의 현대 건축의 조감도를 보면, 전체적인 건물 디자인을 보았을 때, 모든 구조가 기본적인 면을 구성하는 도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식의 구조는 건축들의 설계와 조감도를 완성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건축에서도 사각형 도식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각형의 도식이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을 상징하는 건축물의 대표적인 화이트 큐브형 전시장도 일상적인 공간의 요소를 띄우고 있으면서 공간이 모두 사각형의 구조로 나타나면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생략되고 모든 형태가 기능성에 따라 극도로 단순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⁶⁰⁾ 시민들이 전시장에 들어오면서 전시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도식의 형태가 근·현대 미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려고 한다.

60) 박우찬, 박종용, 「동양의 눈, 서양의 눈」, 도서출판 재원, 2016, p.189

1) 한스 호프만(Hans Hofmann)의 절제된 도식



(도판-26), 한스 호프만, <Auxerre>, 캔버스에 유채, 152.4x132.1cm, 1960

(도판-26)을 보면,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1880-1966)은 색 면을 작품에 표현한 작가로 유명한데, 배경화면에는 사각형의 도식이 강렬한 색채가 표현되면서 분석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석적으로 나누어진 사각형의 구조를 보면, 거의 단순화되어 있으며, 절제된 느낌을 준다. 추상표현주의에서 강조하는 표현에 대한 즉흥적인 행위보다는 아주 단순한 사각형의 도식만이 작품에 남아 있으며, 작품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비워놓는 것이 작가만의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호프만은 색감을 ‘밀고 당기기’ 라는 이론을 적용하여, 뿌리기 실험을 선구적으로 시도하였던 작가로 유명하다. 그가 작품에서 표현한 직사각형의 도식 형태는 색종이를 캔버스에 붙여놓은 듯한 선명한 느낌을 준다.⁶¹⁾ 그와 비슷한 작가로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가 있었는데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앵포르멜 미술(Informel Art)’의 운동을 일으켜 사실주의 미술에 반기를 들었다. 잭슨 폴록은 추상표현주의에서 강렬한

61)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옮김, 전개서, p.283

필치와 과잉 행동 장애(ADHD)에서 나타나는 거칠고 산만한 표현을 강조하지만, 로스코의 작품은 차분한 느낌을 준다. 그에 대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도판-27), 잭슨 폴록, <number 4>, 캔버스에 유채, 90x87.5cm, 1949



(도판-28), 마크 로스코, <red and orange>, 캔버스에 유채, 91x71cm, 1952

(도판-27)의 잭슨 폴록의 작품과 (도판-28)의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표현에서 차이가 크다. 잭슨 폴록의 작품에서는 무의식적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작품에서의 중심이나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잭슨 폴록과는 달리, 산만함보다는 서정적인 경향에 속하며, 색 면과 색 면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지으면서 미묘한 질서를 구축시키는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다.⁶²⁾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흐릿한 색 면에 구체적인 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색 면의 도식들끼리 미묘한 질서를 잡고 있으며,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로스코의 작품에 나타난 흐릿한 경계로 분리된 색 면들의 도식은 위와 아래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내적 감정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정이 절제되어 있으며, 어떠한 주제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판-28)의 호프만의 작품에서는, 사각형의 도식이 로스코의 작품보다 좀 더 선명하게

62) 프랑크 솔츠, 황중민 옮김, 「현대 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솔고와, 2020, p.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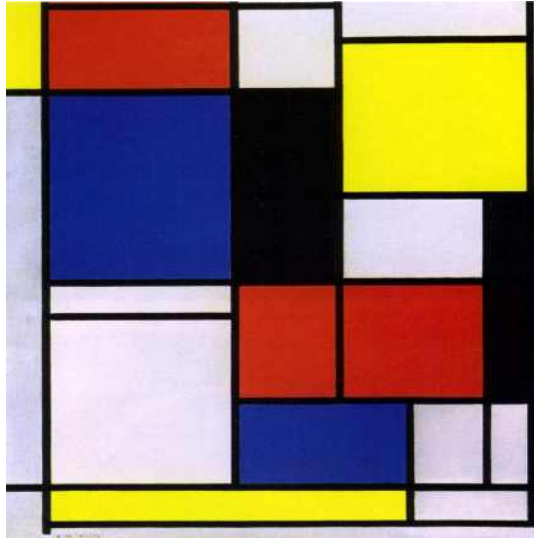
보이며, 사각형의 도식에 대한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인다. 로스코의 작품은 거대한색면으로 비워진 채, 무의식에 잠겨있지만, 호프만의 작품에서는 사각형의 도식이 좀더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호프만은 로스코보다는 잭슨 폴록처럼, 뿌리기 기법을 활용한 물감으로 밀고 당기기의 이론을 적용하여 색채 간의 상호 작용과 흡인력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도식의 형태를 뚜렷하게 구사하였다.

모더니즘 미술(Modernism Art)에서도 절제된 도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기초적인 표현단계에 속하는 미술교육에서 아이들이 자주 다루는 도형의 도식기는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준비단계로 해석되어 사물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호프만의 작품에서 나타난 사각형의 도식은 형태와 형태끼리의 관계성을 탐구한 것이다. 사각형의 반복적인 형태는 아주 복잡하고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감정보다는 선, 형태, 색채와의 긴밀한 상호 작용과 공간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대부분 건축물의 형태는 규칙적이면서도 크기가 서로 다른 구조를 띠고 있다. 그것은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단순함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현대 건축에서 강조하는 형태와 색채의 독자적인 구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 사각형 구조가 거의 모더니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유연성에 의미를 두면서도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조형 언어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호프만의 작품에서 표현된 사각형의 도식은 물감의 촉촉함과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느낌을 살려 도식의 형태를 뚜렷이 나타낸 장점이 있다. 재료에 대한 표현기법의 새로움과 단순함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추상미술의 발전은 앵포르멜 작가들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2) 피트 몬드리안(Piet Mondriaan)의 기계적인 면

선과 면의 기계적인 묘사로 가장 선명한 도식의 형태를 띠는 몬드리안의 작품은 호프만의 작품보다 질서가 견고하게 잡고 있다. (도판-29)에 보이는 몬드리안의 작품은 감정이 아예 멈춰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적인 느낌을 강하게 살려내었다. 그가 추구하는 데 슈틸(양식)은 수직선, 수평선의 아주 단순하고 질서가 완전하게 잡힌 직사각형의 구도로 되어있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미친 건축물들의 형태를 보면, 독특하고 새로운 면모를 돋보이면서 여러 감각으로 인지할 수

수 있는 현대의 도식적인 형태로서, 인간의 새로운 생활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함과 다의성을 갖춘 복잡하고 모순에 넘친 건축을 창조하려고 건축 작업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판-29), 피에타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20

(도판-30)을 잘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루트비치 미스 반 데 로에 필립 존슨은 미국의 뉴욕 시그램 빌딩을 지으면서 사회의 정체성과 지역 및 지방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담으면서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창안한 현대 건물들은 거의 직선의 구도를 하고 있으며, (도판-31)의 고딕 양식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선의 구도가 하늘 높이 솟아 있으며,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의 도판들은 모두 웅장하고 거대한 크기의 구조를 띄우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판-30)의 건축물은 권위를 상징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상기시키고 (도판-31)의 고딕 성당은 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와 차이점이 있다.

(도판-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일상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건축들의 형태는 그만큼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

고 권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부르주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비유하기도 한다.



(도판-30), 루트비치 미스반 데로에
 필립 존슨, <로렘 시그렘 빌딩>,
 1958

(도판-31), 프랑스 사르트르, <샤르트르 대성당>,
 1194~1220

(도판-31)의 샤르트르 대성당의 이미지는 뾰족한 직삼각형의 도식이 정교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고딕 양식은 ‘신’을 상징함으로써, 질서가 완전하게 잡힌 절대적인 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고딕 성당은 개방성과 부유성,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⁶³⁾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판-31)의 고딕 양식의 기술적 발전은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하는 사상에 따라 사실적인 묘사와 빛의 색감에 나오는 감각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3차원의 입체미술에서 중시하는 원근법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보는 사람들은 현실을 중시하면서 경험과 감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등, 수평을 강조하며, ‘색’이라는 감각적인 미적 요소를 활용하면서 종교, 시민사회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⁶⁴⁾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나타나는 수직선과 수평선은 신, 왕권의 상징을 의미하여 성당 외관을 보았을 때는 아주 우아하고 섬세한 구도를 가지지만,

63) 박송화, 전계서, p.127

64) 상계서, p.131

움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적인 느낌을 준다. 수직선이 끝까지 뻗어 나아가는 것을 보면, 끊임없는 방향성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된다.⁶⁵⁾ 반면에, (도판-30)의 건물들의 형태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엄격한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이 앞에 있는 건물과 뒤에 배치된 건물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선적 공간의 요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물의 윗면과 아랫면 투시의 중점을 찾아내면, 윗면과 아랫면의 꼭짓점을 찾아 그대로 선을 대각선을 그으면 멀리 있는 건물의 형태는 작아 보이는 것처럼, 투시 원근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⁶⁶⁾

현대 건축에서 강조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도식의 형태에서 아주 딱딱한 차가운 추상의 미술 요소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다.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인 화가인 몬드리안은 가장 대표적인 미적 요소인 선과 색만을 활용하여 사물의 본질이나 구조를 탐구하며 미술에 대한 사고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가 추구하는 추상표현주의는 자연과 감정 세계로부터 추상적으로 변모하는, 또는 독자적으로 형태가 변모하는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도판-32)~(도판-34)의 사과나무 연작 시리즈를 보면, 반복적인 작업으로 형태가 서서히 단순화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분석적인 구조를 시도하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보이며, 자연을 정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특수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형태들을 없애고 화면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것이다.⁶⁷⁾ 시리즈의 첫 작품인 (도판-32)의 붉은 나무는 대담한 색채와 굵은 곡선으로 묘사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 그 형태들이 기하학적으로 나누어져 가며, 마지막 작품인 (도판-35)의 사각형의 도식 모양이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각이 정해져 있다. 그만큼의 감정이 아예 사라졌으며, 하나의 패턴으로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는 몬드리안의 작업세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성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에서 강조하였던 감정과 감각의 체험을 통해 장식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대 미술의 특성을 잘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65) 정여주, 전계서, p.130

66) otto G.ocivrik Robert E. Stinson Philip R. wigg Robert O. Bone David L. Cayton, 곽재은, 황진영 옮김,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2008, p.195

67) 프랑크 솔츠, 황중민 옮김, 전계서,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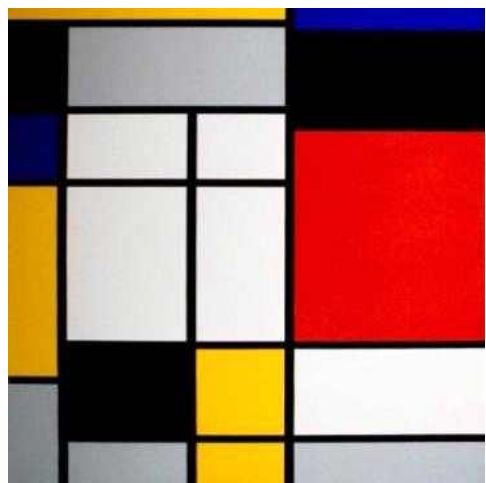
(도판-32), 피에타 몬드리안, <붉은 나무>, 캔버스에 유채, 70x99cm, 1910



(도판-33), 피에타 몬드리안, <꽃이 핀 사과나무>, 캔버스에 유채, 78x106cm, 1912



(도판-34), 피에타 몬드리안, <햇빛 나무>, 캔버스에 유채, 78.5x107.5cm, 1910



(도판-35), 피에타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20

나. 인위적 구조의 도시 이미지의 미적 표현

인위적이란 의미는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예술 작품이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조형물들은 인간의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축과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시각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그중에서 현대 건축은 우리 실생활에서의 실용성과 시각적 가치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인간의 손에 의해 대형 백화점, 주상 복합 단지 아파트 등 현대 도시의 모든 일상생활 공간이 설계되고 창조되며, 20세기의 새로운 미래의 예술을 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 미술에서 중시하는 색감은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결정되고 구사된다. 산업 문명의 변화로 인간의 삶은 차츰 자연적인 것을 떠나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자율적이고 자기만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인간 정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은 추상 회화의 정신성 표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건축은 미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등을 중시하며,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⁶⁸⁾ 대표적인 예시로, 바우하우스(Bauhaus)의 건축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개성을 살려서 현대 건축의 미적 감각을 드높이기 위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을 시도했다. 디자인과 건축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고, 재료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았으며, 명료한 형태, 재료에 맞는 색채를 추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⁶⁹⁾

(도판-36)을 보면, 현대 건축의 특징을 잘 살린 바우하우스 건축의 전경 사진이다. 모든 유리 구조는 강철관과 라미네이트 목재를 선호하였으며,⁷⁰⁾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수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정의로운 사회를 다지고자 하는 이념을 가진다.

68) 김성래, 「학예사를 위한 예술론과 서양미술사」, 예문사, 2023, pp. 152-153

69) 에이미 텀프시, 전게서, p.66

70) 프랑크 솔츠, 황중민 옮김, 전게서, p.142



(도판-36), 발터 그로피우스,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건축>, 1926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가 말하는 바우하우스 생산의 원칙에서는, 모든 사물은 실용성이 있어야 하고 견고하고, 저렴하며, 아름다워야 한다는 신념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⁷¹⁾ 이러한 신념에서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은 수공예라는 새로운 재료를 예술과 접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대량 생산을 축적해냈다. 주로 날렵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기술로 발전한 것이다.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기하학적 형태와 단색의 사용은 20세기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기하학적 형태와 단색의 구조는 현대 건축가들의 사고에 따라 변화해가는 인위적 구조로 해석되며, 이는 다양성 속에 단순함을 추구하는 방식에

71) 서송석, 「예술과 손기술, 그 닮음과 차이에 관한 시대적 변주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나타난 예술 이해와 발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건립 이념 비교」, 한국브레히트 학회, 제 48호, 2023, pp. 257-281

입각한다. 현대 미술에서 주로 추구하는 단순함은 상상 속의 산물이며, 역동적인 공간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기하학적 형태와 단색의 구조는 현대 건축가들의 사고에 따라
 변화해가는 인위적 구조로 해석되며, 이는 다양성 속에 단순함을 추구하는 방식에 입
 각한다. 현대 미술에서 주로 추구하는 단순함은 상상 속의 산물이며, 역동적인 공간의
 세계에 대한 공허함을 나타낸다. 이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순수 영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예술의 변천사로 확장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되
 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미술은 미국에서 유래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까지 영향
 을 미쳤다. 추상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패턴은 구축주의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 그중에서 기하학적인 양식은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우주
 의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도 있었다.⁷²⁾

(도판-37)의 블라디미르 타를린의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미술의 아방가르
 드(Avan-Garde)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미술은 항상 새로운 진리를 개척하기 위한 혁신
 적인 미술적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원칙은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실용성, 기능
 성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자 한 시도와 같았다. 바우하우스와 구축 주의 예술이 이
 러한 디자인의 기능과 새로운 재료들의 도입으로 사회와 연관된 내용을 다루었을 뿐
 만 아니라, 미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하학적인 추상적 구조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공통분모로 엮을 수 있다.

72) 프랑크 솔츠, 황중민 옮김, 전게서, p.144



(도판-37), <제3 인터내셔널 기념물 모형>, 블라디미르 타틀린, 1914

현대 건축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소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구축하였다는 정보보다 단색조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색채표현은 현대 건축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의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도 색채는 감각에 따라 작가의 시각에 의해 결정되고,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인 발상에서 도출되는 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색채는 구성에 따라 현대 미술이나 건축에 활용되면서 이상적 조화와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고, 이러한 단색조의 계열은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시각에 흥분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패턴은 건축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지만 예술 작품에서는 일정한 리듬의 형식에 맞춰 반복적인 형태의 규칙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⁷³⁾ 현대 건축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도입되며, 리듬과 통일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인위적 구조로서 정확한 질서와 안정감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미적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73) 심성경, 백영애, 이영희, 이효숙, 박지애, 박주희, 「유아미술교육」, 공동체, 2013, P.67

(도판-38)은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의 현대식 구조를 보인다. 이는 현대 건축에서 사용하는 단색과 일정한 패턴이 안정감 있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검은색의 창문 구조를 보면, 정확한 직선들이 사각형 도식을 이루며, 반복되는 패턴을 이루었다. 또한, 흰색, 청색, 브라운 계열의 단색조가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현대인들의 시각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현대 건축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단색조의 계열은 부르주아들이 현대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18세기의 건축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세련된 느낌을 준다. 건물의 베이지색과 흰색은 고급 사회와 상류층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적용되기도 한다. 모더니즘의 미술에서 추구하는 흰색은 보통 (도판-39)의 화이트 큐브형 미술관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며, 실내 내부의 깨끗하고 순결한 의미로 흰색은 미술관의 청결함,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도판-38), 서울 청담동 린든그로브 전원고급빌라 전경, 2023



(도판-39), 화이트 큐브형 미술관 실내 내부, 2023

백색의 느낌은 생활 욕구의 단순함과 무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나,⁷⁴⁾ 한편으로는 미술적 개성을 살리려는 미적 요소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색으로 뒤덮인 미술관 내부 구조의 세련됨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벽면에 장식적인 문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는 예술의 철학에 따라 순수한 추상으로서의 길을 연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형태를 구축하는 현대 미술의 특성은 예술이 사회와 결합하여 대중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회 분야에 포함된 정치, 경제, 윤리 등의 포괄적인 개념을 예술과 연관시키고 미술의 또 다른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 접하는 예술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을 활용한 여러 조형물 전시나 공원 속의 나들이를 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 위해 수많은 현대 건축가, 디자이너 등의 예술가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상 속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와 예술이 많이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발전은 도시 생태계가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현대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74) 정여주, 전계서, p.121

다. 패턴적 구조의 도시 이미지의 미적 표현

모든 기하학적 구조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패턴은 반복성과 규칙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 이미지의 딱딱한 건축물 구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정한 형태에 따라 질서와 규칙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며, 이는 현대문명에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처럼, 도시 속의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패턴은 하나의 기호적인 의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호적 형태는 아주 미세하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는 상징을 강하게 내포한다. 도시의 유기체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조형 요소들이 생략되거나 첨가된다. 예를 들어, (도판-40)의 조근호 작가의 도시 풍경 작품을 보면, 모든 형태가 단순화되었고, 각각의 점들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었다. 아주 장식적인 효과를 연출하면서도 단순함이라는 모더니즘적인 화풍이 강하게 느껴진다. 겹겹이 쌓여 있는 하늘의 패턴은 다채로운 푸른색이 채색되어 있으며, 그 밑에 표현된 건축물들의 형태는 미세한 색 점들로 메워져 있다. 작가가 표현한 색 점들은 동그란 모양으로 표현되었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의 기호를 나타내는 패턴구조로 볼 수 있다. 아마 저녁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야경에서 찬란하게 비추는 불빛들을 동그란 패턴의 은유적인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건물에 표현된 규칙적인 색 점들은 현대 도시의 문명을 상징적인 매개체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는 유토피아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면서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순수한 감수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미적 사유를 추구한다. 그만큼 현대적인 감성에 따라 풍경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축약법을 활용한 색채의 강한 대비와 실제 풍경을 미적으로 단순화시킨 형태의 운율감을 강조시키기 위한 수단을 활용했을 것이다.



(도판-40), 조근호, <해변 도시>, 97x162cm, oil on canvas, 2011

음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요하고 좋은 노래를 연출하기 위해 모든 음률과 음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부드러운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림에서도 작품의 감수성과 분위기의 효과를 창출하려면, 형태와 미적 요소의 적절한 율동감과 리듬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리듬감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움직임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도판-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되어 가는 건축물들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색 점들은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작품의 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정확함, 정교함, 기능적, 합리성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총괄하고 있지만, 순수 미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자연적인 모든 형태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강렬한 색감과 균형감, 규칙과 질서는 패턴이 가지고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도판-41)은 어느 한 사진작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이탈리아의 도심 전경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이탈리아 도심의 건축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미세하고 똑같은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면서 완벽한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는 마치 공간의 수학적 법칙을 적용한 것처럼, 뚜렷한 질서가 유지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의 법칙과 완전히 대비된다. (도판-42)의 그림은 만다라의 반복된 문양들의 특정적 형태로서 패턴적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으로써, 패턴은 관

객들의 시선을 이끌고 동시에 착시 적인 효과를 준다.⁷⁵⁾ 건축물의 도식적 형태가 반복적으로 중첩되면, 하나의 새로운 화면을 구성한다. 이는 패턴의 반복적인 구조가 적용됨에 따라 현대 도시의 사회 환경과 지역적인 위치, 현대인들 삶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느껴주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41), <이탈리아 한 도심>, Folco qulici, 2018



(도판-42), 만다라, F.no.758(원초적인 개화 파장), 2012

75) 나수빈, 「차원의 경계에 나타나는 조형성과 ‘이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p.76

제 2절. 도시 이미지에 표현된 미술 언어의 의미

연구자의 작품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미술 언어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표현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살펴보면, 그에 상징적인 미술적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미술 언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2-1. 비언어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

비언어적이란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를 입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몸짓이나 자세, 시선 등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굳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작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 직접적인 표현과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⁷⁶⁾ 해리엇 와데슨(Harriet Claire Wadeson, 1931-2016)⁷⁷⁾은 비언어적 소통수단을 미술 활동으로 보고 이를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밀접시켜 표출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인 미술 활동을 하고, 현재까지 상실되었던 자기 내면과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는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다.⁷⁸⁾ 특히 아동 미술 분야에서 아동들이 사용하는 미술 언어는 비언어적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크다. 성인에 비해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기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감성이 창의적인 생각과 더불어 그림 표현에 있어서도 평면과 입체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술치료에서도 치료사가 내담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을 피하려고 할 때, 제일 적절하게 사용되는 치료기법이 바로 미술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치료사에게 전달해주지 않아도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때로 언어적인 수단보다도 훨씬 효과적이

76) 주리애,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5, p.34

77) 미술치료의 대표적인 학자로 프로이드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의 정신 분석, 인본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등의 이론의 임상병리학적 관점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절충해 들어가는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해리엇와데슨, 장연집, 최호정, 김태은 번역, 「임상미술치료학」, 시그마 프레스, 2012)

78) 최나야, 김태연, 김도연, 김수희, 조연수, 전은옥, 「아동 미술 이론과 실습」, 학지사, 2021, p.91

다고 볼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이런 비언어적인 미술 활동을 심화시키면서 이를 소통의 중심 매개체로 적용하고 있다. 치료기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미술 매체를 사용한 조형적인 방법론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통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여 판단한 후, 상대방에게 언어를 전달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인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를 꺼린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대신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즉, 비언어적 수단은 의식 속에서 표출되는 수단이 아닌 무의식적인 사고에 발산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은 곧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 보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고 문화에 따라 정서적인 경험은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으며, 인간 경험의 한 부분으로서 동일 시될 수 있다.⁷⁹⁾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는 생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욕구는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는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고 내면의 이야기를 자유연상을 통해 사고하고 미술 작품을 생산하는 창조적 과정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⁸⁰⁾

심리분석 미술치료에서는 작가가 미술 작업을 통해 창조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의식적 사고를 얻고, 자기 치유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 반영되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⁸¹⁾ 작가의 상상은 개인의 무의식에 잠겨있으며, 그림을 그림으로써, 본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자신을 먼저 통찰 하면서 적극적인 상상을 하고, 집단의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추가하여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79) 강철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감정 표현 연구」, 조형예술학박사 미술디자인학과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p.45

80) 상계서, p.156

81) 정유진, 전계서, p.61

(도판-43)과 (도판-44)를 보면, 미술 표현기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한 작품들을 제시하였는데, 왼쪽 (도판-43)은 하나의 동물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화가 된 것이다. 즉,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도식이나 반복적 기법으로 활용하여 그리는 방식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좀 더 새로운 화면을 재구성하여 관객의 관심을 끌며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도판-44)는 신체의 행위예술인 하나의 퍼포먼스를 제시한 것인데, 손에 이미지를 직접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마치 그 이미지가 실제와 같은 착시 현상을 준다. 신체를 이용하여 그림을 종이에 직접 그리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이미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전체적인 이미지상으로만 보았을 때, 관객들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수단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의 작품세계를 그림이나 다른 화법으로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도판-43), 반복적 표현의 패턴화, 2023



(도판-44), 손을 활용한 신체예술, 2023

2-2. 이미지에 대한 미술 언어의 재해석

예술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수많은 미술 언어들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에 표현되는 각각의 요소들에 따라서 미술 언어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이의 풍부한 언어들을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하고 해설해주는 것이다. 관객들이 현실에서 알지 못했었던 것을 작가는 새로운 사고에 의해 미술 언어로 풀어내고 있으며, 상상적인 의미와 비유적으로 쓰이는 이미지들의 표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이미지는 다른 의미로 심상(心像)이라고도 한다. 이미지는 미술사조와 연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작품 안에서 쓰이는 문자나 기호 등 이러한 언어들은 그만큼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고, 내면 안의 잠재되어있는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매개체로 쓰인다. 작가의 작품 속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미지의 형태가 상호 작용하지만, 작품 명제의 난해함과 모호함 속의 언어를 해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지라는 미술의 영역을 생산하고 사물의 직관적인 형태와 구조에 의해 감정이 포함된 것처럼, 표상적 형식(presentational form)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기호학적인 접근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일종의 조형적 특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⁸²⁾

조형적인 요소들은 미술 언어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부여와 작품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작품에서 주로 나타낸 도시 이미지에 담긴 순수 조형적 요소들은 찬란한 불빛들의 야경을 비유하는 점들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이미지의 내면에 담긴 조형 언어를 이해하면, 작품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전개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와, 자신만의 개성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하는 수단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더 확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형 언어를 구축하여 문화적, 사회적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예술가가 현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표현에 대한 방식이 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82) 진은정,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 탐구가 시사하는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p.257

조형 언어를 더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미술에 적용하는 표현 매체나 기법은 이미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림의 형태와 이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들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한 주변의 상황이나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며 그것의 본질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풍경의 이미지를 예술적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순수 시대를 뛰어넘는 시선의 변화로써, 대상화된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아⁸³⁾ 각각의 사물들이 나타내는 미술 언어를 형태와 색채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판-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주의 화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풍경구성법⁸⁴⁾에 따라 빛의 반사로 비치는 명암법에 나타난 색채들을 순식간에 묘사하였다. 그가 표현한 건축물들은 희미하고 어두운 실루엣 적인 느낌을 살려냈고, 아랫부분의 묘사된 강은 햇빛에 반사된 강한 명암법을 순간적인 포착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판-45),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 oil on canvas, 63x48cm, 1886

83) 노소영, 「디지털 아트, 우리 시대의 예술」, 자음과 모음, 2014, p.12

84) 모네의 화법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풍경을 주제로 시각적인 판단보다는 지성적 판단에 앞서, 순수한 사실을 인상으로 바라보았다.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물들의 집합체였고, 사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박송화, 전개서, p.457)

강에 떠다니는 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단순한 화법으로 묘사되었으며, 미묘한 색의 건축물과 원근감이 느껴진다. 희미하고 어두운 실루엣의 건축물은 퇴폐한 산업 문명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적한 강의 오후의 풍경은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의 여유로운 일상의 흔적을 담아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또 다른 색채의 구별을 통해 자기만의 주관적 관념으로 형태와 색채가 자유롭게 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작가의 주관적인 관념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작가의 주관적 사고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경험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이를 인지하여 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할 수 있다.

2-3. 형식과 내용 구조에 대한 분석

내용은 작가의 작품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과정이며, 형식은 그에 따른 이야기를 화면에 구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작가의 작업론에서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작품의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가. 심상(心像)적 표현의 내용분석

마음속에 내재하여 있는 무의식에 의한 표현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화한다. 미술에서 주로 나타나는 선과 형태는 작가의 무의식을 담은 요소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작품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심상(心像)의 이미지는 이러한 선과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소이며, 감각적인 미적 표현으로 많이 해석된다. 이는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파생될 수 있다.

작품 배경에 다른 부분보다 세밀하게 묘사된 이미지는 심상(心像)적 의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작품 주제를 더 부각할 수 있는 요소로 적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감을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의 이미지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선과 형태의 조형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서 관객들의 눈속임 효과를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적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46)의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 1908-1997) 작품을 보면, 옵아트(Optical Art)의 눈속임 효과를 들 수 있는데 공간 형식에 따라 빛, 색, 재료가 어느 것이든 일종의 표현 매개체로써, 작품은 기하학적인 구성요소의 선, 면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동일한 요소가 규칙적이지만 주기적인 비율로 구성되면서 움푹 들어가 있거나 볼록 튀어나와 있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이는 관객들이 새로운 예술적 체험에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의도적인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⁸⁵⁾ 즉, 관객의 시선의 초점을 중점으로 두어야 할 부분을 더 과장하여 그에 대한 심상(心像)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준 것이다. 결국, 심상(心像)적 이미지는 작품에서의 주체가 되어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도판-46), 빅토르 바자렐리, <Vega-Nor>, 1957

85) 이약빙, 「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옵아트(Optical Art)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p.28

나. 심상(心像)적 표현의 형식 분석

미술 작품에서 조형 언어는 필수적인 요소로 쓰이며, 작품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가의 사고에 따라 작품의 형식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러한 조형 요소가 생략될 수도, 첨가될 수도 있다. 작품의 세부묘사를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형 요소인 선과 형태의 적절한 묘사가 원활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의 주제를 관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형 언어가 미술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보조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일례로, (도판-47)의 신인상주의 막시밀리앙 뤼스(Maximilien Luce, 1858~1941)는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는데 프랑스의 재빠르게 변화해가는 산업 문명과 발달하는 도시의 전경을 비판적으로 본 자신의 시각을 분명하게 화폭으로 전달한 것이다.⁸⁶⁾ 이 작품은 강한 붓 터치로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그의 화풍은 마치 후기 인상파의 반 고흐의 스타일처럼, 모든 풍경 이미지에 존재하는 조형적 요소로서 굵은 붓 터치의 강렬함이 묻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패턴으로 작용하면서 형식적 구조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붓 터치는 쇠라의 점묘법을 연상시키면서 풍경의 색다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고향인 프랑스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의 거대한 문명과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급속한 사회 변화로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이나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농부, 노동자 등의 일상적인 주제를 차용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근대적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⁸⁷⁾ 작가의 포괄적인 시각에 따라 모든 사물이나 풍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풍경에 나타난 거대한 건축물과 인물들의 형태는 평범한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조형적인 언어를 구축하고자 하는 작가의 열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상주의 회화에서 추구한 명암법에 따른 빛의 반사에 따라 색채와 형태가 달라지는 표현기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방향을 추상적으로 갈 것이냐, 구상적으로 갈 것이냐의 방향성은 결국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람자들의

86) Sicnac, Bonnard, Redin, and Their Contemporaries, 「The Avant-Gardes of Fin-de-Siecle Paris」, Peggy Guggenheim, 2013, p.60

87) 국립중앙박물관, 「거장의 시선-사람을 향하다」, 2023, p.191



(도판-47), 막시밀리안 뤼스, <Notre-Dame de Paris>, 캔버스에 유채, 1911

관심을 끄는 풍경화의 색채와 일정한 터치를 가진 조형 요소들의 독특한 멋은 작품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들의 시각에 이러한 미술 작품에 구성된 조형적 언어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미술 작품의 깊이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단순히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술의 언어의 개성을 더 살려주며 작품의 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미술 언어는 작가의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은 사물에 대해 이상적이면서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전주의에서 추구하였던 특성인데, 모든 물체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려져야만 지성으로써,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⁸⁾

위의 (도판-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 근대 회화의 풍경에서는 사물이나 자연

88) 박송화, 전계서, p.358

의 풍광을 시각적으로 보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낮에 보는 시각이나 밤에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자유로운 감각과 감성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보는 감각에 따라 표현되는 조형적 언어는 그만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형태와 색채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작가가 풍경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들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해야 하지만, 우리는 풍경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각각의 조형 언어들이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현대의 작품은 19세기의 시각으로 보면, 순간적이면서도 우연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즉, 현재를 중시하면서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⁸⁹⁾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써, 현재는 항상 변화하게 되고, 우연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급격한 산업혁명이 이러한 현재 상황을 변화시켰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대도시의 현대인들은 경제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돌렸다.⁹⁰⁾ 그래서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의 방탕한 일상적 생활을 화폭에 그리는 작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현대는 원래 새롭고 근사한 것을 의미하였으며, 미술의 영역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몸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의 작가들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며, 지나간 역사를 현재화시키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물의 특성이나 생김새와는 별도로 독특한 상상력과 조형의 언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재를 더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하게 보았다. 모든 풍광에 존재하는 사물은 기본적으로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가들은 이러한 조형적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한 사고를 한다. 선(line)은 우리의 시각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역동 때문에 변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작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물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변화하면서 더 새롭게 창의적인 결과물로 생성될 수 있다.

89) 상계서, p.434

90) 노소영, 전계서, p.107

예술 작품이 끊임없이 변화하려면, 작가의 창의적인 사고가 지속해서 따라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복잡한 구조로 인식되지 않고 가볍고 단순한 사고로써, 예술가의 자기표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선과 형태의 조형 언어를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의 결정은 작가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과 움직임을 강조하는 사물의 본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⁹¹⁾

91)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 2019, p.132

IV. 도시 이미지에 나타난 현대인의 내면 탐구와 회화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작품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디지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과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작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회화적 기법과 표현방법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제 1절. 연구자의 작품의 내용적 구조와 의의

1-1. 작품의 배경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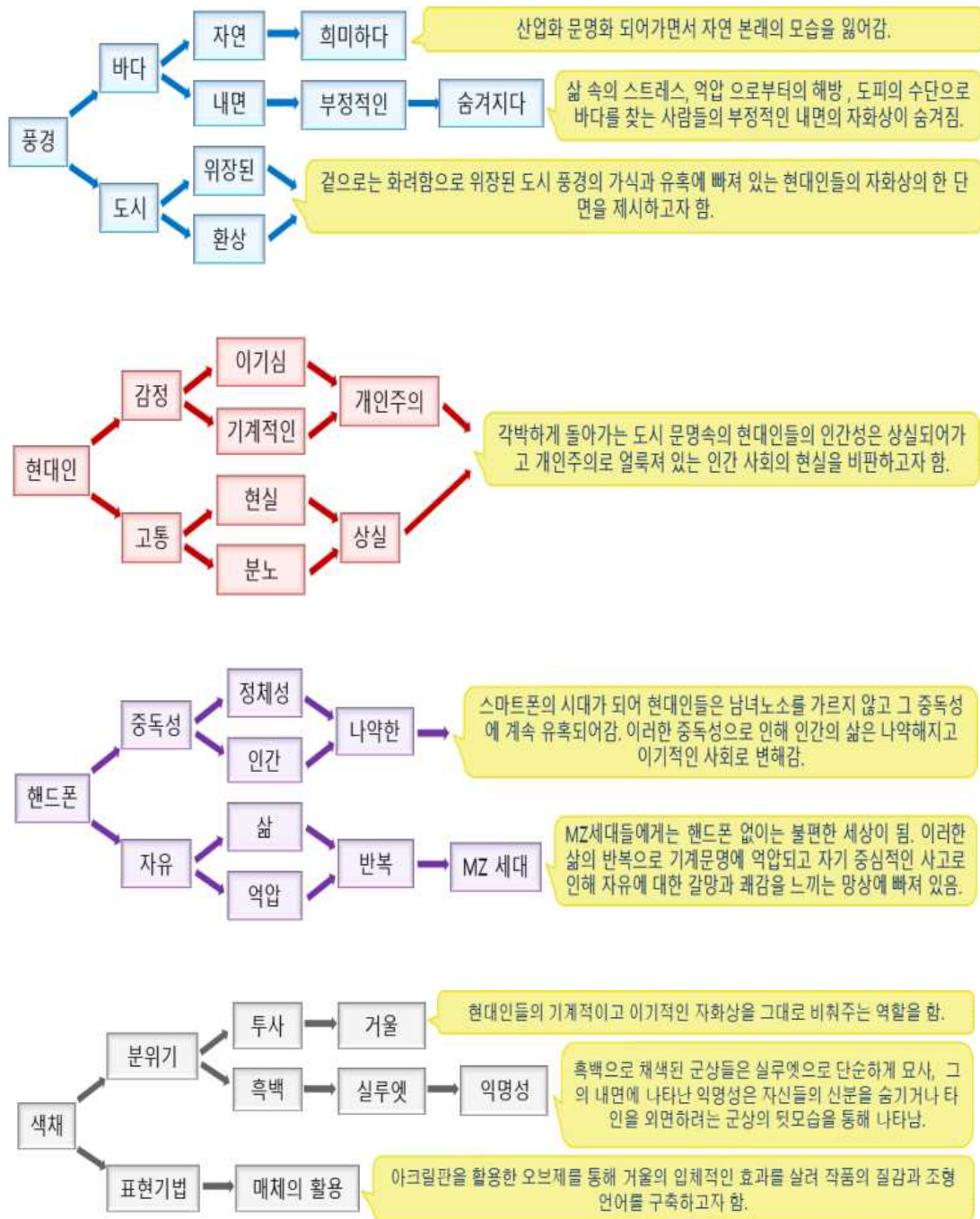
연구자의 작품에서 제시하는 작품의 배경에는 현재 스마트폰이 현대 문명사회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이러한 시대가 지속 되면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들어 중독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인간적 소통은 단절된 체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인간성과 정체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문명에 포장되어 있지만,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한 체 기계 문명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깊은 내면을 분석하여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면을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미술 언어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3)은 본 연구자 작품의 키워드와 그들 간에 존재하는 연관 관계를 보여준다. 연구자 작품과 관련된 대표적 키워드는 ‘풍경’, ‘현대인’, ‘핸드폰’, ‘색채’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풍경, 현대인, 핸드폰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열은 작품의 심상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과 연관되는 구상이며, 색채로 시작하는 네 번째 열은 연구자 작품에서 활용된 표현기법과 매체 등을 나타내는 형식적 측면에 해당하는 구상이다.

(표-3), 연구자의 작품과 연관된 키워드 분류

풍경	현대인	핸드폰	색채
바다	감정	중독성	매체의활용
자연	분노	반복	표현기법
도시	기쁨	자유	분위기
희미하다	고통	억압	흑백
내면	현실	정체성	실루엣
숨겨지다	이기심	삶	익명성
부정적인	개인주의	나약한	거울
위장된	기계적인	인간	투사
환상	상실	MZ세대	자화상

(그림-2)에서는 연구자 작품의 대표적인 개념과 관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연관 관계와 의미를 나타내는 마인드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 연구자의 작품과 연관된 키워드 분석

1-2. 연구자 작품의 내용적 구조와 의미

가. 가식화의 의미

‘가식화’란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부러 거짓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물의 겉면만을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단순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들은 모든 사물의 외관만을 보고 그 형태와 모습을 인지함으로 인해 그 내면의 다양성은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도판-48)은 부산 야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도판-48)에서는 아름답게 빛나는 화려한 도시 야경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데, 건축물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발상과 뛰어난 기술로 지어진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하지만 빌딩들은 권위의 상징이자 부르주아들의 탐욕이 존재하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들은 그러한 숨겨진 내면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빌딩들의 외관만 보고 가식적인 화려함에 끌리게 된다.



(도판-48), 부산 야경

나. 현대인의 내면 : 정체성 상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에 변화해가는 인간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시 속의 군상들은 반복되는 일상의 고뇌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세상과 상호 경쟁 관계에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은 오히려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만큼이나 그들을 구속하고 있으므로 현대인들은 인간사회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토피아적 세계를 찾아서 현재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벗어나고자 한다. 항상 안락과 즐거움만을 원하는 군상들의 나태한 모습들을 통해 연구자는 이것을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연인과의 평범한 데이트에서부터 건전한 스포츠, 사치스럽고 방탕한 일탈 행위 등과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기며 깊은 내면에는 그들이 고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도피처를 찾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의 작품에 표현된 단체로 모인 군상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뒷모습들로 묘사되었다. 이는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모른 채하는 그들의 이기주의적인 내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유하고자 하였다.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최첨단 시대의 문명은 발전되어가고 있지만, 인간성은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연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기주의와 경쟁 사회에 몰두어가 있는 도시 속의 자화상, 겉으로 보이는 가식과 화려함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현대인의 깊은 고민은 결국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환상과 공존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3)의 연구자의 작품을 보면, 가운데 그려진 손의 모양은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에 나타난 색깔은 3가지 그라데이션의 색깔으로 경계가 정확하게 지어져 있다. 이는 인물에 대한 기계적인 묘사를 단순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림-4)에서의 군상의 표현은 핸드폰에 유혹되어 중독되어 가며 흔들리는 인간들의 정체성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계 문명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없이는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마저 지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복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계 문명에 종속되어가는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을 연구자의 작품에서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3), 양호열, <중독1>,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그림-4), 양호열, <중독2>,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심리에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석하고 그에 담긴 의미를 찾아 내면에 담긴 정체성을 미술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림-4)의 군상의 묘사에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도태되어 가는 나약한 인간상의 표현을 최소한의 무채색과 단순한 실루엣 형태로만 묘사한 이유이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도시풍경에는 이러한 인물의 단순한 묘사가 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디지털 시대의 요소들을 작품에 개입시켜 중독성의 주제를 더 부각시키는 예도 있다. (그림-5)에서 핸드폰이 무한적으로 반복된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 만연하는 스마트폰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모더니즘의 색감을 직접 표현하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마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작품처럼, 선의 구조가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 반복되는 핸드폰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의 도식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 문명으로 인한 중독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한순간에 기계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것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림-5), 양호열, <중독3>,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그림-5)는 모더니즘의 강렬한 원색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사라져가는 것을 미술의 조형 언어로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묘사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만을 작품에 투입 시키는 것을 볼 때, 작품 주제의 의미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작품에 인물의 묘사가 개입된 것보다 작품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의 반복적인 묘사가 이야기의 전달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그림-6)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이미지를 작품 안에 크게 확대하여 중독되어 가는 인간의 눈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는 연구자의 작업세계에서 새로운 발상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경화면에 표현된 ‘미로’는 중독성으로 인해 정체성이 혼돈되는 인간들의 심리를 연상하게 한다. 빨갛게 충혈된 ‘눈’은 중독성 그 자체를 실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감과 몰입감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림-6>, 양호열, <중독4>,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위 연구자의 작품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작품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은 (그림-5)하고 (그림-6)이다. 두 작품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기기의 모습 그 자체로 작품에 여러 가지 조형적인 요소가 추가되면서 연구자의 작품에 입체적인 효과를 좀 더 살리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품에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에서 새로운 매체의 활용과 참신한 기법으로 연구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오브제의 사용과 디자인적인 표현이 미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연구자의 작품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본다.

다. 기계적인 감정 : 이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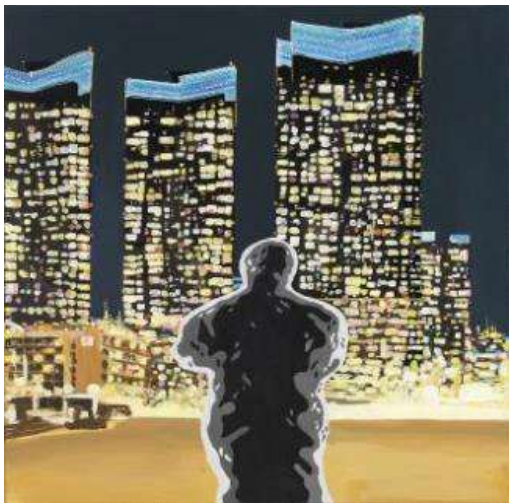
연구자의 작품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들은 각자 현실에서 도피하여 여행을 다니거나 여가를 즐기면서 서로가 행복해하고 마음속의 힐링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가식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도시의 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서로의 행복한 일상도 잠시, 그들이 서로 같등하고 치열한 경쟁에 맞서 서로가 적이 되는 잔인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의 겉면만을 보고 상자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화려한 도시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불안하고 개인주의로만 얼룩져 있는 내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가식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도시풍경의 외면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그 내면에는 각박한 현실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고뇌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표현된 도시 속의 군상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면서, 남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의식도 없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 우울, 불신, 거짓은 우리 현대인들의 무의식적인 감정에서 분출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7)과 (그림-8)을 자세히 보면, 인물의 묘사가 흑백의 실루엣으로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산업 문명의 영향으로 감정이 기계적으로 변

해함에 따라, 인간들의 감정도 굳어져 가는 모습을 가정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려한 도시풍경의 공간 안에 인물이 홀로 서 있으면서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각박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과 도시풍경의 아름다움의 가식적인 면에 심취되어 걸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대변한다.

이기주의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림-7)과 (그림-8)의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인물의 실루엣이 전부 뒷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의 어려움이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 서로 다른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사이의 소통을 외면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7), 양호열, <내면의 풍경2>,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23



(그림-8), 양호열, <내면의 풍경3>,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23

연구자의 작품에서 인물의 표현은 선과 면의 뚜렷한 경계가 정확하게 표현되었으며, 인물을 구성하는 면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어필한다. 인물의 흑백 효과와 선과 면의 강렬한 대비는 원근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면적으로 보이는 인물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자기 자신만의 사고만을 가지는 독단적인 인간의 부정적인 내면으로부터 존재하는 어두운 감정 요소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를 작품에 표현하였으며, 도시 이미지의 양면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도판-49)과 (도판-50)을 비교해보면,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도판-49)의 추상표현주의의 화가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은 인물의 묘사에 관심을 두었는데 거칠고 과격한 붓놀림으로써, 마치 인물을 괴물처럼 묘사하였는데 괴리된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감정의 절제됨이 없이 충동적인 행위로서의 창작을 시도한 것이다.



(도판-49), 윌렘 드 쿠닝, <여인 1>, 192.7x143.3cm, 1950~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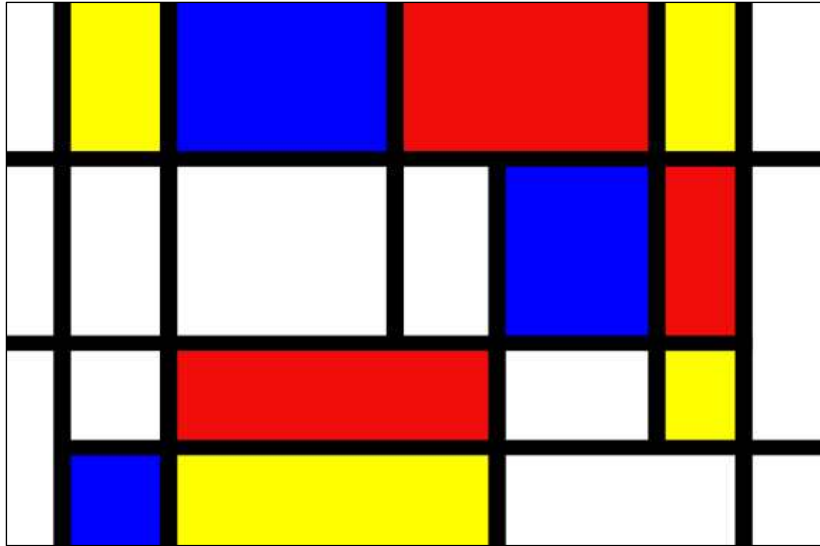
(도판-50), 로이 리히텐슈타인, <In the car>, 캔버스에 마그나펜, 1963

하지만, (도판-50)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의 작품을 보면, 드 쿠닝의 인물 묘사보다 아주 기계적으로 표현되었다. 팝 아트에서 차용되는 선명한 애니메이션의 효과와 만화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상업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은 검은색의 뚜렷한 선으로 밝은 원색과 강하게 대비되었다. 단순한 형태에 뚜렷한 윤곽선을 표현함으로써, 드 쿠닝의 작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더 섬세하고 강렬한 현대적인 인상을 준다.

드 쿠닝과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흑백으로 채색된 인물은 정교함을 추구하면서도 표현의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이 표현한 인물의 묘사와 약간 비슷하면서 선명하고 독특한 색감의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도판-51)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수평선과 면의 기계적인 구조와 유사하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도 모든 선과 직선으로 면이 경계가 정확하게 잡혔고 엄격한 질서가 강조되어 있다.



(도판-51), 피에트 몬드리안, <구성, 빨강, 파랑, 노랑>, 캔버스에 유채, 51.5x60cm, 1930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모든 면 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강한 원색만으로 현대적인 정서가 나타나지만, 검은색의 뚜렷한 경계선을 통한 감정의 정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의 감정 표현은 주로 색감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실루엣은 어두운 무채색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흑백으로 채색된 인물상들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고립감, 독립적인 감정이 연구자가 표현하려는 이기주의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 군집된 집단 : 공동체

인간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군집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현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군집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기적인 욕망과 함께 각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로 모여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자의 작품에 주로 표현된 군상들의 실루엣들은 서로가 옹기종기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서로 함께 모여 협동하고 도와가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그것이 갈등으로 빚어져 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서로가 한 집단이 되면서도 때로는 적이 되는 인간의 간사하고 이기적인 내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동체를 이루는 군상들의 실루엣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9)의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이는 군집된 군상들의 실루엣은 각자 여유롭게 도시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서로 풍경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상들을 어두운 흑색과 백색의 음영으로만 표현함으로써, 서로를 경계하고 갈등하는 우리 현대 사회의 비판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군상들의 실루엣이 흑백의 색감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것은, 연구자가 인물의 부정적인 심리와 감정을 색감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검은색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실루엣은 부정적인 자아,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적 불안을 담은 자화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타인과 괴리된 자기 자신만의 편협된 사고방식, 나약한 자아들이 검은색의 실루엣처럼 숨겨져 있다는 표현을 통해 연구자의 작품 이야기 주제를 전달하려 하였다. 마치 내용물은 보잘것없으나 겉은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처럼, 가식적인 이미지의 속에는 겉과는 완전 다르게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불신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자화상은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9), 양호열, <중독5>, 130.3x390.9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실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과 인간사회의 공동체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에 숨기면서도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이 되면 이것이 분노로 쌓여 남에게 그대로 투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앞서 언급한 현대인들의 방어기제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충동적인 감정은 서로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현대인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점차 타락되어가는 부정적인 인간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실루엣의 군상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내면에 편안함을 좇으려는 나약한 자아상을 표현한 것이다. 도시라는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은 서로가 갈등과 경쟁의식에 치우쳐 있으며,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배려심이 없는 비인간성을 고발하고자 하며, 인물들의 흑백의 실루엣처럼, 정서가 메말라가는 인간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실루엣의 군상은 다른 의미로 디지털 세상의 현대인들의 방어기제인 인간의 익명성을 대변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비유하는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흑백의 색감은 우울함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인물들의 감정 또한,

우울과 불안 등이 공존함을 표현하고 있다. 실루엣으로 표현된 군집된 군상은 각자의 자아상이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불분명하고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다는 인간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군상의 시리즈를 작업한 작가들의 작품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 (도판-52)은 독일 표현주의 선구자인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의 군상들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인데, 인물들의 색채를 보면, 거의 붉은색의 야수적인 색채가 표현되어 있다. 주관적인 감정에 충실한 키르히너의 표현주의적(Expressionism) 스타일은 과감하고 대담한 필치를 구사하였으며, 다소 공격적이고 거친 화필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감정에 일그러지는 비통과 불안의 부정적인 인상들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⁹²⁾ 구상된 인물의 이목구비는 어느 정도 뚜렷이 표현되었으나 단순하게 그려졌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의 생동감이 넘치며, 부정적인 내면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었다.



(도판-52), 루드비히 키르히너, <베를린의 거리>, 캔버스에 유채, 121x95cm, 1913년

92) 정유진, 전개서, p15

(그림-10)의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상은 흑백의 경계가 그래픽 아트처럼 디자인적으로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작품의 인물상들은 현실에서의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이 다양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미동이 없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흑백의 실루엣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반면, 키르히너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인물들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한 감정변화를 승화시키는 작용으로 보이는 것처럼, 키르히너의 작품은 인물들에서 표현된 색감과 선의 필치가 정확한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과장된 상상력의 표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예술가의 상상은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시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자세는 표현주의 작가들이 선택한 시도였다.⁹³⁾ 키르히너는 부르주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시도한 미술적 표현이 현대인들의 부패한 삶을 모티브로 시도하였다면, 연구자의 인물표현 방향과 비슷한 면이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상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삶을 실루엣의 느낌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는 유사하게 해석된다.



(그림-10), 양호열, <중독6>,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93) 에이미 뎀프시, 조은형. 전게서, p.33

(도판-53)을 보면, 입체주의의 선구자인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게르니카의 작품에서 나타난 인물상들은 거의 단순한 면과 원근감의 거리감을 모두 제거한 2차원적인 평면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스페인 에스파냐의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서 인간들이 군인들에게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도판-53),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 캔버스에 유채, 349.3x776.7cm,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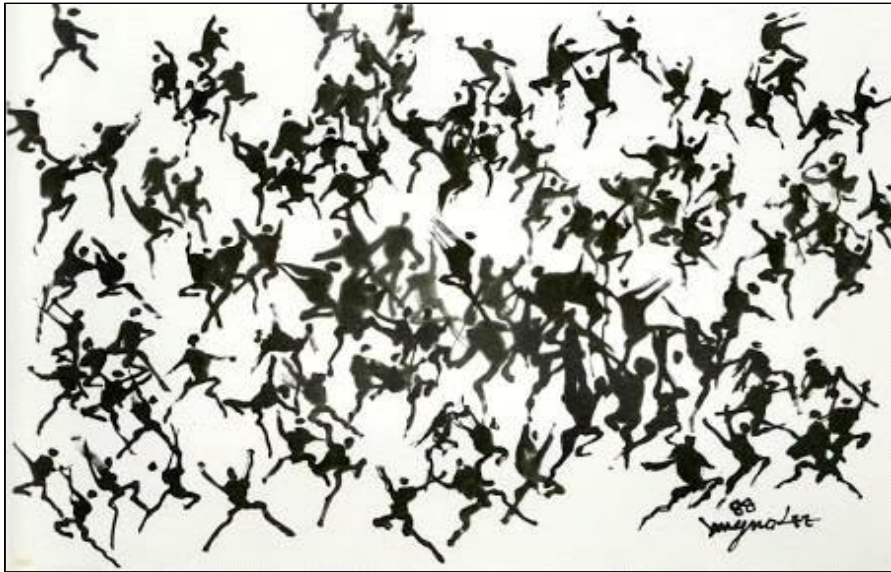
죽어가는 인물들은 단순하게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주의에서 중시했던 감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목구비에서 눈에 대한 표현, 또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측면을 보고 있는 듯하지만, 정면을 주시하는 다방면의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장면에서 전체 인물상들은 조각 적인 형태로 나누어졌다. 죽어가는 인물상의 감정이 마치 부서져 가는 것처럼, 의도적인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품의 이야기에 관해 작가가 그 시대의 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른 작가만의 연구 방식이었을 것이다. 피카소의 인물 묘사를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연구자 작품의 인물들은 연구자의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표현함으로써, 공동체라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모두 깨끗한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하나의 가면을 쓰듯이, 가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의도적인 행동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인물들의 표현을 원래의 시각 그대로 아름다운 형태의 묘사를 구사하지 않는 단순하고 왜곡된 표현으로 인물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1-3. 연구자 작품의 형식적 구조와 의미

가. 실루엣 적인 표현 : 군상

연구자의 작품의 실루엣은 인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 감정이 죽어가는 메마른 인물의 부정적인 심리를 단순 화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었다.

(도판-54)의 이응노(1904-1989) 작가의 군상 시리즈를 보면, 추상 회화에서 나타나는 유기체적인 형태들이 아주 작은 인간 모양을 하고 있다. 검은색의 군상들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가 춤추는 듯이, 군집된 집단을 이루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에 저항하고자 하는 군중들의 독립 정신을 보여주고자 한 내용이다. 인물들의 움직임은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며, 모두 분노에 가득 찬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군중들의 형태가 아주 작은 입자처럼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입자들의 형태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반복적인 율동감을 주면서 작품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이 서로 움직이는 효과를 잘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응노 작가의 실루엣 군중들과 (그림-11)의 연구자의 실루엣 인물상은 모두 그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정 표출에 의한 자기중심적인 표현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경험에 따라 작가는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작품에 담아내기도 한다. 연구자가 표현한 군상들도 현대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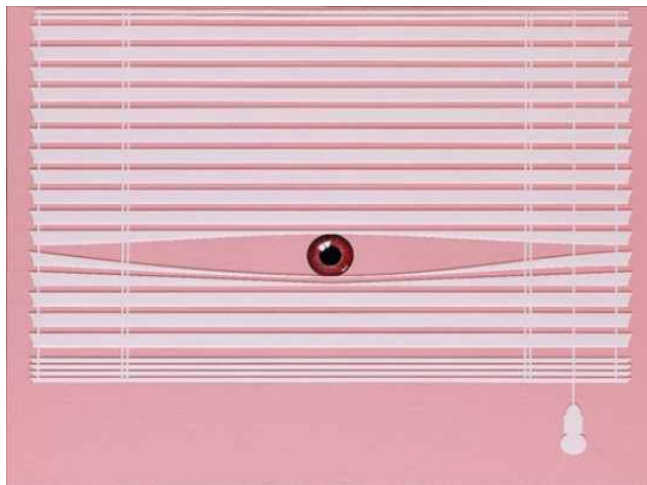
(도판-54), 이응노, <춤추는 군상>, 수묵담채, 69x100cm,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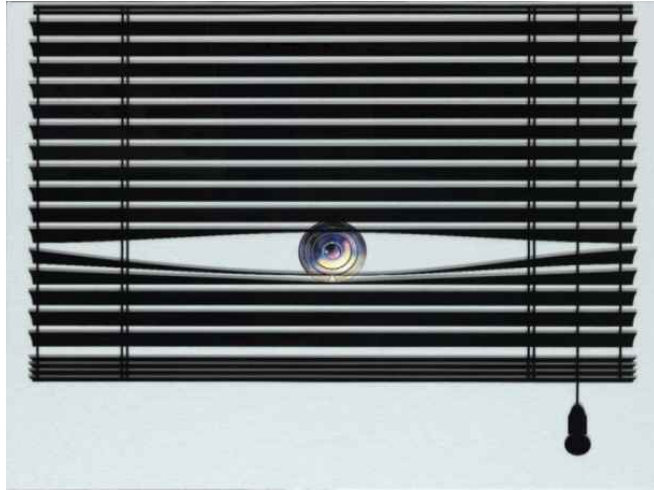
(그림-11), 양호열, <내면의 풍경4>, 91x116.8cm, Acrylic on canvas, 2023

나. 오브제를 활용한 입체적 효과 : 블라인드

‘블라인드’는 남의 사생활을 몰래 훑쳐보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쓰인다. 현대문명 사회에서 관음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나체로 벌거벗고 있는 여성의 몸을 몰래 훑쳐보는 변태성욕자의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는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훑쳐보는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나체를 찍고 동영상에 올려 퍼트리거나 블라인드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대를 관찰하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현대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우리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대변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업에서 (그림-12)와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라인드’라는 오브제가 활용되어 그 오브제를 사용한 작품 중앙에 ‘눈’이라는 이미지와 ‘카메라’가 개입된다. ‘눈’은 주변 환경이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현대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의 의미로도 쓰인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 범죄문화에서 성범죄자들이 남의 사생활을 비밀리에 찍고 다니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음란물 유포 및 성범죄사건을 일으키는 도구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는 일종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이자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림-12), 양호열, <훑쳐보기1>,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그림-13), 양호열, <훔쳐보기2>,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연구자는 현대 사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눈’과 ‘카메라’라는 매개체를 소재로 오브제의 효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리즈의 작업을 해왔다. ‘블라인드’라는 의미는 상대방하교의 소통을 단절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자신의 정보나 신분을 숨기면서도 익명성을 이용해 남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갖고 몰래 훔쳐보기를 즐기기도 한다. 오브제의 사용은 이러한 은유적인 의미를 미술 언어로 심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작품에서 더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오브제 활용은 연구자 작품의 진행 과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라 하겠다. 관객들이 전시를 감상할 때, 단순한 아름다운 회화 작품들은 무심히 보고만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 ‘오브제’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작품의 미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효과를 주면서 작품의 내용에 대한 깊이 감을 추가할 수 있어서 관객들의 시선을 더 많이 끌게 되어있다.

“예술가가 미술 재료들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창조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새로운 사고를 얻고,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⁹⁴⁾

94) 박진영, 「화에 설치작품의 오브제 활용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p.64

다다이즘과 개념미술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내용처럼,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예술 작품을 창조적으로 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예술의 방향성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오브제의 사용이 미술 작품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판-55)는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프랑스의 미술가, 1887~1968)의 작품으로 기성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설치한 작품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물건을 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전시장에 그대로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모든 것들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다이즘을 채택하면서 현실의 부조리와 기존의 예술 관습에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일상용품에 자전거 바퀴를 그대로 부착한 것을 보면, 자전거 바퀴와 의자가 그의 오브제가 된 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오브제를 일상용품 본래의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시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의문을 갖게 하였다.



(도판-55),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26.5×63.5×31.8cm, 가변설치, 1959



(도판-56), 로버트 라우센버크, <모노그램>, 106.7x160.7x163.8cm, 혼합재료, 1913

(도판-56)의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는 개념미술의 레오 다다를 일으킨 실험적인 예술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모노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혼합재료와 일상에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캔버스 화면 위에 부착한 것을 알 수 있다. 폐품의 타이어로부터 시작하여 앙고라 염소에 금속, 나무, 고무, 오일 등을 부착하며, 이러한 물체들을 가지고 여러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는 ‘모든 것은 확장되는 것’⁹⁵⁾ 이라고 말하였다. 비예술적인 것들을 예술 작품에 새롭게 변화시켜 재치와 유머러스한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창조적인 예술정신을 지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노그램 예술은 미학적 형식과 문화적 내용 사이의 균형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모더니즘 예술과의 실현성에서 미적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서양미술의 영향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⁶⁾ 뒤상과 라우센버그의 예술 작품은 오브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술 세계에서는 작가가 보는 관점들이 다르므로 뒤상의 작품처럼, 일상의 소재들을 오브제로 그대로 해석하여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고, 라우센버그의 작품처럼, 실험적인 방법으로 오브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작가의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두 명의 작가들 모두 지역 사회와 대중문화사회에서 보는 작가만의 시각으로 예술을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작가가 현대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술 재료의 사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창조되고 발전한다. 연구자가 주로 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관음증, 중독성)도 마찬가지로 작가가 이것에 대한 시각을 예술로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미술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연구자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오브제는 연구자의 작품 주제에 대한 내용적인 의미를 더 심화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블라인드’의 오브제도 위의 작가들처럼, 무언가 의미부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활용방법일 수 있으며, 이는 작가가 새로운 재료들을 탐색하고 시도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본다. 또한, 작가가 자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이 작가의 예술 작품에 더 깊숙이 들어와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95) 에이미 뎀프시 조은형, 전게서, p.112

96) yoon jong-gu, 「The body in installation practice : a contemporary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in Taoism」, Thesis(doctoral)— RMIT University: Fine art by project, 2003, pp. 35-36

다. 오브제의 입체 효과 및 관객 체험 : 거울

캔버스에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오브제의 효과는 평면의 한계를 벗어나 관객에게 흥미를 유도한다. 연구자 작품의 ‘거울’의 효과는 스마트폰 라인 안의 렌즈를 거울로 표현하여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직접 비춰주기 위해서 활용된다. 이는 현대 사회 문명에 디지털 기기로 인해 중독되어 가는 소외된 인간상들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선명한 핸드폰 거울과 반복되는 패턴으로 제작된 블라인드로 만들어진 아크릴 판은 오브제의 입체적인 효과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재료의 새로운 방식을 꾸준히 시도해온 결과물이다. 또한, ‘거울’의 오브제는 연구자의 작품에 입체적인 효과를 더 강렬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배치하면 관객들이 작품을 바라보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울’에 비친 관객의 모습은 마치 관객이 작가의 작품 안에 하나의 실사 체로 존재하면서 관객의 모습이 매번 바뀔에 따라 작품도 변한다. 관객은 본인이 투영된 모습을 제삼자적 관점에서 감상하면서도 그림 속의 관객과 어우러진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는 예술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림-14)에서 만약 단순히 그림만으로 제시한 것과 거울의 오브제의 입체적인 효과를 강하게 살려서 작품을 보는 관점은 분위기에서부터 다르다. 오브제는 연구자의 새로운 상상력에서 창조되고 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관객들의 시선을 이끌려면, 작품에 제공되는 모든 재료가 잘 조합되고, 통일되어야 미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작가들은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으므로, 작가의 손에 의해 오브제가 제시되었다면, 작가는 곧 새로운 시도를 한 창조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현대 미술을 이끄는 모든 예술가가 창조자가 되어 끊임없는 실험과 독창성으로 작품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평면회화 작품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 단순히 판단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실험과 4차원적인 미디어의 시도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⁹⁷⁾

97) 김남인, 이광석, 히어트 로빈크, 레프 마노비치, 서동진, 곽영빈, 빅토리아 이바노바, 케이 왓슨, 홍이지, 사라 켄더다인, 레베카 칸, 우다쿤 공저, 「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 국립현대미술관, 2022, p. 109.



(그림-14), 양호열, <중독>, 91x116.8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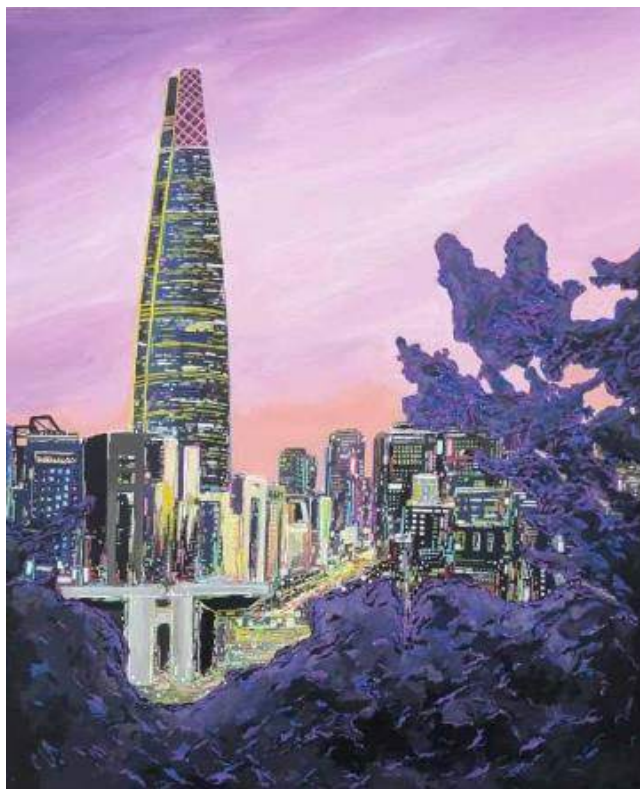
(그림-14)의 배경화면에 중첩된 스마트폰은 핸드폰의 중독성에 빠져들어 가는 현대인들이 그만큼 디지털 시대에 핸드폰에 의해 조종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거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품 내용의 어떠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브제가 사용되었는지, 왜 ‘거울’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작가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해줌으로써, 관객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예술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술로써, 관객들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놀이문화처럼, 연구자의 작업은 관객들의 흥미를 돋우는 색다른 실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절 . 가식화된 도시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2-1. 연구자 작품의 도시 이미지의 묘사

연구자의 회화 작업은 색채가 단계별로 중첩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어두운 색감을 살려두고 그라데이션의 단계로 밝은 색감으로 풀어지는 마무리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캔버스에 색감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체 바탕화면의 유연함을 느낄 수 있다. 바탕색은 도시풍경의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효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배경화면의 빌딩들은 작품의 추가적인 요소로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묘사되었다. 화려한 밤하늘의 분위기는 독특한 색감으로 표현되며, 배경의 어두운 색감에 밑 색이 계속 올라오면 빌딩들에 비치는 화려한 조명들의 반사가 퍼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 긴장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것이다. 연구자 작업 과정에서 캔버스에 초벌칠을 할 때, 3번 정도의 똑같은 색채가 계속 중첩될수록 붓질의 유연성을 느낄 수 있으며, 청결하고 뚜렷한 표현이 완성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품 (그림-15)에서 나타난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표현기법은 도시풍경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연구자의 작업 진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빌딩의 형태는 수직선의 구도로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사되는 층층의 환한 조명들은 흰색과 노란색 계열의 아주 밝은 색감으로 구성되며, 묘사의 깊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작품 공간 안의 도시 이미지는 질서와 균형감을 적절히 잘 이루고 있지만, 빈틈을 계속 메워 뻘뻘하게 채워낸 복잡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은 예술가의 관점으로 작품에서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이다. 극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인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은 연구자의 상상에 달려 있지만,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것이다.



(그림-15), 양호열, <내면의 풍경5>,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23

2-2. 가식화된 풍경의 회화적 표현과 구도

가. 색채의 강한 대비

색채는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연구자 작품의 도시풍경은 거의 붉은색 계열의 색감이 표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붉은색은 강렬함과 정열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죽어가는, 또는 긴장감이 너무 높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작품 배경에 나타난 색상은 주로 남색과 보라색을 섞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두운색 계열은 우울감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표-3>은 연구자 작품 주제의 대상인 군상과 풍경 표현에 사용된 색채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군상 시리즈>의 군상들의 실루엣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이 채색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색감은 흰색과 검은색인데 흰색과 검은색은 밝고 어두움의 명암의 정도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색채의 대비가 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풍경 시리즈>는 붉은색의 강렬한 색감과 검은색의 가장 어두운 무채색 계열 사이에서 강한 대비가 나타나면서 원근감이 보인다. 군상들의 본래 색감은 살색을 나타내지만, 연구자의 의도로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표-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검은색이 상징하는 의미로서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인물들의 색감을 무채색으로 선택한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우울감 및 불안감은 군상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이다. 검은색과 흰색은 원래 디자인에서 현대적인 느낌을 강하게 살리기 위해 쓰이는 색감들에 해당하지만, 연구자가 사용하는 흑백의 색감은 인간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한 단순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빨간색과 노란색은 따뜻한 색감에 해당하는데, 빨간색은 부정적인 의미로 분노에 찬 감정으로 사용한다. 이성을 잃는 인간의 분노는 야수적인 충동성을 갖고 있다.⁹⁸⁾ 현대인들이 현실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경험하는 분노는 빨간색과 가깝다. 연구자의 작품의 <군상 시리즈>의 흑백 색감과 <풍경 시리즈>의 붉은 색감은 서로 강

98)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게서, 2017, p.126.

한 대비를 주면서 우울감과 분노가 결합 되어있는 감정의 대비를 나타낸 것과 같다. 이러한 우울감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현실에 겪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 작품에서는 주로 붉은색과 검은색의 비율이 다른 색감들보다 더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둡고 분노를 나타내는 강렬한 색채로써 표현하고, 인간의 심리를 통한 자화상의 내면은 밝은 색감과 어두운 색감의 강한 대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3),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색채에 대한 분석

작품 주제	작품 이미지	추출 색상	나타난 색채	상징적 의미
군상	 		검은색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우울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열정적이다 화가나다 즐겁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풍경	 		검은색 밤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우울하다 위험하다 범죄 열정적이다 화가나다 즐겁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연구자 작품의 도시풍경은 야수파 작가들의 도시풍경 묘사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데, (도판-57)과 (도판-58)은 야수파 작가 중에서 풍경 회화를 거칠고 강렬하게 묘사한 대표적인 작가인 앙드레 드랭(Andre Derain, 1880-1954)과 모리스 드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 1876-1958)의 작품들을 비교한 것이다.

(도판-57)의 앙드레 드랭은 거대한 건물들의 색감을 파란색의 원색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외의 풍경들은 초록색과 노란색의 거친 터치로 표현하였다. 파란색, 초록색은 한색 계열로써, 시원하고 청결한 느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한색을 거친 터치로써, 색감의 강한 대비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풍경의 정적인 느낌보다는 생동감이 있고 정열적인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도판-58)의 모리스 드 블라맹크의 작품을 보면, 그는 야수파 작가 중에서 제일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앙드레 드랭보다는 무수히 많은 터치가 개입되지 않았지만, 풍경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질감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검은색과 흰색의 강한 색감을 사용하였다. 흑백의 무채색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흰색의 바탕은 마치, 태풍이 부는 듯한 질감을 대범하게 묘사하였고, 바탕의 색감은 주로 무채색을 표현함으로써, 무언가 암울한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침체한 느낌을 준다. 연구자 작품의 붉은색으로 덧칠한 하늘 배경은 난색 계열의 따듯한 느낌을 주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 온화한 분위기를 주면서도 야수파 작가들의 성격처럼 분노에 차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양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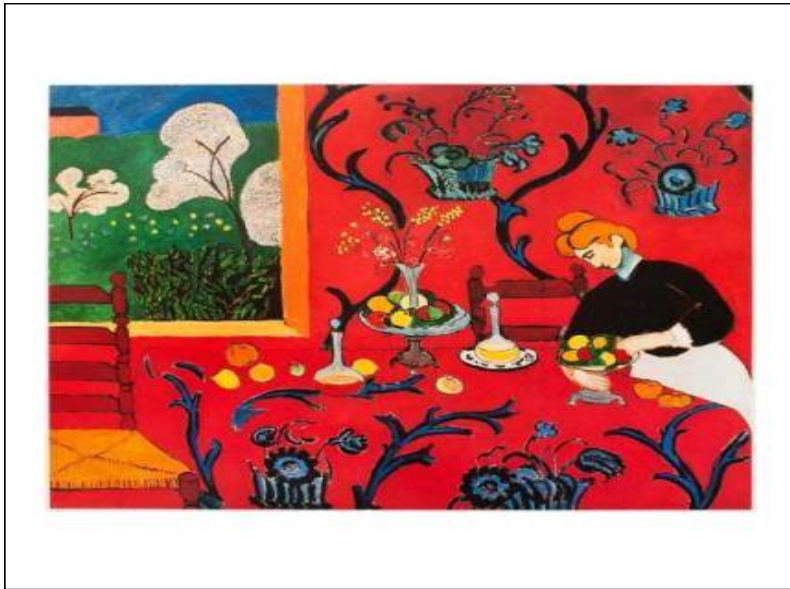


(도판-57), 앙드레 드랭, <빅 벤>, 캔버스에 유채, 79x98cm, 1906



(도판-58), 모리스 드 블라맹크, <로그니 길>, 캔버스에 유채, 1930-35

(도판-59)는 색채의 거장인 앙리 마티스의 <붉은 방> 작품이다. 작품을 보면, 붉은 색의 단색으로 장식된 평면적인 방의 구조로 되어있다. 주변에 사람과 자연의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어떠한 붓 터치도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붉은색의 단색만이 장식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색채로써, 그의 작품 분위기를 대표할 수 있었다. 3차원 입체적인 실내 공간을 표현하였지만, 빨간색의 강한 원색이 그의 작품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효과를 준 것이다. 야수파 작가들이 사용했던 난색 계열은 좀 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의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연구자의 작품에서 채색된 붉은 색은 현대인의 ‘불만’, ‘부정’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 정열에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현대 사회를 작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도판-59), 앙리 마티스, <붉은 방>, 캔버스에 유채,
180x220cm, 1911

나.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성

도시 이미지는 각기 서로 다른 요소들이 중복된 구조로 모호한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 연구자 작품에 표현된 건물들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복합매체들은 복잡하고도 난해하지만, 이는 서로 중첩되면서 대비되는 이미지들을 연결하는 관계성이 나타나 있다. 이는 작가가 변화의 의도적인 관계성⁹⁹⁾을 작품에 제시하면서 이미지의 상호작용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자 작품의 대표적 시리즈인 스마트폰의 오브제 형태는 반복적인 구도와 하나의 패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디지털 문명의 중독성을 비유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 도시라는 공간 안에 다양한 인간의 자화상이 존재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 작품에 표현된 밤 풍경 불빛의 아주 작은 입자들은 서로의 모호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하늘과 도시 불빛으로 그라데이션 된 중간층이 도시의 화려하고 밝은 색감과 대비되면서 관객들의 시각에 먼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시선을 끌어내는 효과를 보인다.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반복된 색, 점들은 여러 가지 색상을 활용한 채도와 명암법을 사용하여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미세한 색 점들은 크게 색채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질서의 원리(principle of order), 명료성의 원리(principle of unambiguity), 유사성의 원리(principle of familiarity)의 이 3가지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같은 모양이 서로 반복되면서 통일감과 균형감을 이루고 있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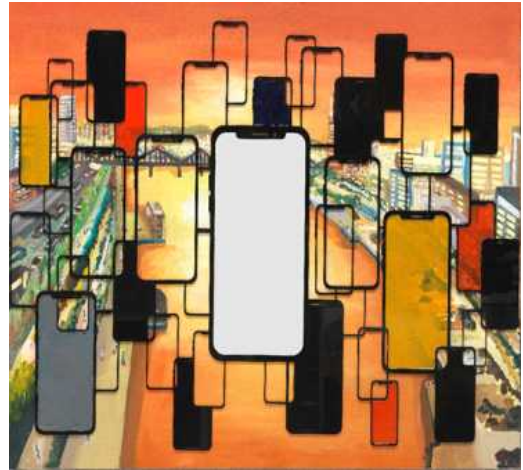
(그림-17)은 스마트폰 모양들을 패턴의 오브제로 제시하면서 그 안에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들이 채색되어 있다. 몬드리안이 강조한 기계적인 선이 정확한 면을 구성하며 엄격한 질서의 구조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6)은 색, 점들이 크기별로 차이가 있으면서 복잡한 관계를 이루는 산만한 느낌을 준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연성의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불빛 야경의 색 점들은 (도판-60)의 인상주의 화가의 조르주 쇠라(Georges Pierre Seurat, 1859-1891)의 점묘법을 연상하게 한다.

99) 윤민희 저,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2008, p.41

100) 김용숙, 박영로 공저, 「색채의 이해」, 일진사, 2016, p.137



(그림-16), 양호열, <내면의 풍경6>, 130.3x162.2cm, acrylic on canvas, 2023



(그림-17), 양호열, <중독8>,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도판-60),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 207.5x308.1cm, 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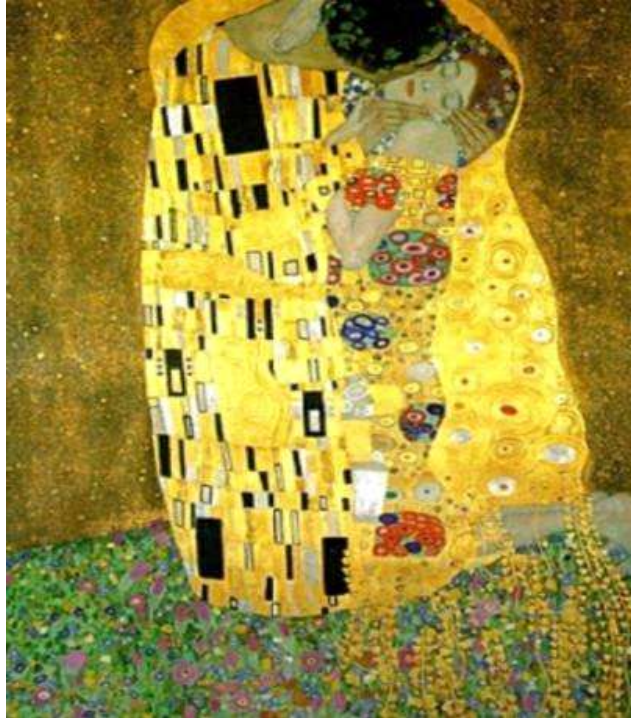
조르주 쇠라의 작품을 보면, 부르주아의 한가로운 일상을 주제로 한 풍경과 인물의 묘사가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붓으로 주도면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 같지만, 사실은 물감을 잘 섞지 않은 채로 점 하나만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며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같은 점을 무한히 찍어낸 것은 그가 최초로 창안해낸 점묘주의의 기법이였다. 그는 점으로 모든 인물과 자연물을 연결하는 화법을 사용하였다. 아주 미세한 점들이 모이고 모여 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변화의 과정은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예술 작품 안에서의 분위기와 깊이감을 살리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살려 주지만, 질서와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체를 활용한 것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입체주의의 변화무쌍한 면들의 구조는 물체에 대한 특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서로에 대한 관계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하학적인 패턴과 해체된 물질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콜라주 기법은 균등한 요소가 불규칙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품 전체의 일관성을 보이게 한다.¹⁰¹⁾ 연구자 작품의 스마트폰 모양을 분석해보면 각 스마트폰 형태가 나누어지면서도 서로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어 작품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브제라는 특유의 매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형식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다.

(도판-61)의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보면, 인물 의상에 표현된 아주 작은 사각형의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구성되어 반복성과 리듬감을 나타내는 미적 원리를 적용한 요소들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사각형 문양의 패턴은 키스하는 남성의 의상을 더 고급스럽게 묘사해주고, (그림-17)의 연구자 작품의 스마트폰의 유기적 형태와 같이, 검은색, 흰색의 다양한 색감들이 구분되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 노란색의 과감한 색감의 대비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이의 구조는 ‘아르누보(Art Nouveau, 1890~1905)’의 양식을 띄고 있다.¹⁰²⁾ 인물의 묘사는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었지만, 순한 표현의 기하학적인 접근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이끌게 한다. 그의 작품은 회화의 2차원적인 평면과 재료의 질감으로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를 동시에 줌으로써, 작품의 조화와 함께 면과 면을

101) E.H.공브리치(E.H.Gombr ich), 백승길, 이종승 옮김, 「서양미술사(양장본)」, 서울: 예경출판사, 2017, p. 574

102) 에이미 뎀프시, 전계서, p.15

활용한 고유의 관계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하여, 오브제의 이미지 형태도 뚜렷한 질감과 반복적인 구도로 변화와 통일성을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61),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캔버스에 유채와 금, 180x180cm, 1907

2-3. 작품에 나타난 도시 자화상의 심층적 의미 표현

인물의 표현은 연구자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주관적인 시각에서 표현된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디지털 문명에서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인간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작품의 연구 배경을 가지고 연구자는 작품의 도시 속의 인물 군상들의 묘사에 있어서 인체의 형태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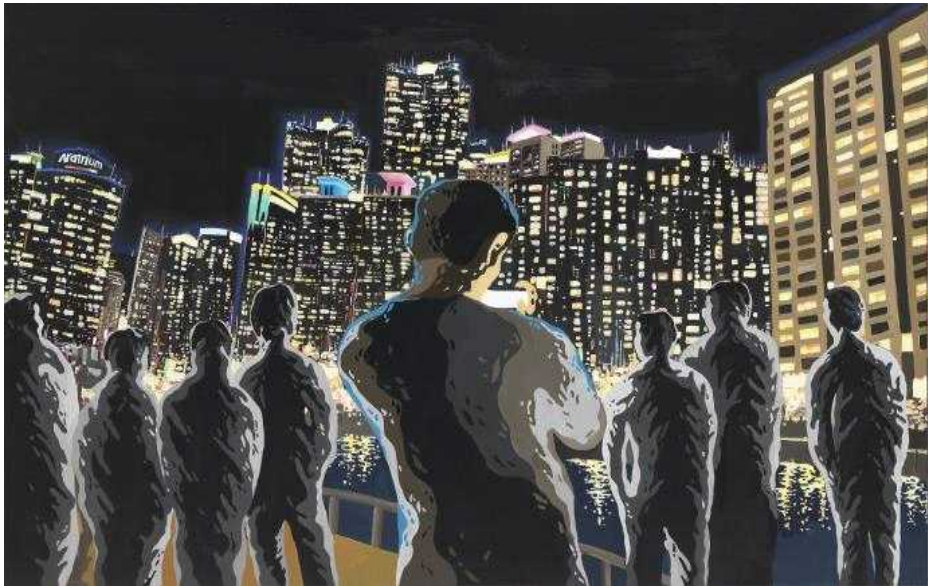
미술에서 일상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접한 내용을 담은 사실주의의 작품들을 보면, 미국의 ‘재떨이파(Ashcan School, 1908-1913)’¹⁰³⁾ 화가들이 주로 일상을 담은 화폭을 그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인들의 일상을 정교한 화필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었다. (도판-62)는 존 슬로언의 작품인데, ‘재떨이파’의 대표적인 작가인 존 슬로언은 도시인들의 방탕한 생활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잘 활용하였다. 도시 생활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활력을 솔직하고 명료한 화필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재떨이파’ 화가들이 추구하였던 도시인들을 주제로 미국만의 독자적인 사실주의 미술유파를 증가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저속한 하층민들의 부정적인 생활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비평가의 입장으로 볼 때, (도판-62)는 단순히 평온해 보이는 군상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작품 주제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작품을 어떠한 의도로 그렸는지, 정확한 해석과 비평 없이는 미술 작품의 내적 정보(internal information)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작품의 묘사하기(describing)는 비평가가 언어로 해설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술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술 작품의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¹⁰⁴⁾ 따라서 슬로언의 도시 현대인들의 방탕한 생활을 그려냈다는 내적 정보에 한해 이를 비평가가 풍자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 방식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림-18)에서 볼 수 있는 연구자 작품에서의 군상 표현은 인물의 배치 및 시각적 구도가 뚜렷하고 명확한 군상 실루엣과 단순한 화법의 구사로 현대인의 개인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103) 조잡스러운 일상의 광경에서 진탕 마시며 떠돌고 있는 하층민들을 묘사한 작품은 재떨이 통에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주로 도시 속의 일반 사람들의 방탕하고 일상생활의 주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옮김, 전계서, p.275)

104) 테리 바렛, 이태호 옮김, 「그림 읽는 즐거움, 미술비평」, 아트북스, 2000, p.111



(도판-62), 존 슬로언, <6번대로 30번가>, 캔버스에 유채, 81x62cm, 1907



(그림-18), 양호열, <내면의 풍경7>, 130.3x162.2cm, Acrylic on canvas, 2023

존 슬로언의 작품과 (그림-18) 연구자 작품과의 실루엣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연구자 작품의 군상 실루엣은 정확한 경계를 단정 지어 딱딱한 구조로 표현되었다. 도시의 일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포착하여 순간적인 장면을 빠르게 묘사한 슬로언의 방식에서는 현실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현장 그대로의 사진을 찍은 듯한 장면이어서 표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없지만, 인물의 색감을 생동감 있게 살려내어 생기를 느껴지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18)의 연구자 작품의 군상 실루엣은 색 면이 정확한 무채색으로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물 묘사로 보았을 때는 딱딱하고 감정이 없다. 슬로언의 작품은 특히, 도시인들의 부정적인 삶을 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자 작품 주제와 서로 관련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상들의 묘사 방식을 변화시킴에 따라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일상을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작가가 현장에서의 느끼는 감정에 대해 작가의 해석하는 시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작품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업관에 의하면, 예술은 수많은 경험과 주관적인 심상을 내포하여야 한다고 본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을 주제로 화려한 도시의 다른 이면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군상의 모습들을 새로운 화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한호중은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태에 어떠한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신만의 습관에 따라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기질이라고 하였다.¹⁰⁵⁾ 이러한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의 모티브를 담은 현대 회화 작품들은 유럽 미술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 미술이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슬로언의 화법은 인간의 일상생활만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과 미국 현대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간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일견 연구자 작품 주제처럼 현대인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려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주로, 슬로언 작품 속 인물의 생활상을 담은 작품 주제의 내용과 접목하여 인물상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들을 연구자 작품의 군상 실루엣과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미술치료의 동적 가족화 개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에서 가족 모두가 정말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있

105) 한호중, 「현대인의 일상을 통해 본 고독감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4, p. 120

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¹⁰⁶⁾, 도시 군상들의 행위가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잘 묘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품에 배치된 각 인물의 행위를 중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각각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상징과 양식을 통해 전체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양식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 및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⁰⁷⁾ 작품에 나타난 군상들의 행위가 서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듯, 인물의 그림 해석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인물의 특징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인체에 음영을 그리는 경우, 그 부분에 불안이나, 우울 등의 성격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또, 신체의 어느 부분을 생략했다면, 불안이나 죄의식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 있다. (그림-18)의 연구자 작품과 같이, 군상 실루엣의 특징을 보면, 뚜렷한 윤곽선과 각 음영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의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물상에서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상을 미술 심리와 연관 지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관객들이 (그림-18)의 연구자 작품을 보았을 때, 인물에 표현된 윤곽선과 경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미술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치료사가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만으로 내담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작품에서 그려진 인상의 표면적인 형태로만 보아도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심리에 담긴 심층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술 작품에 나타난 ‘자화상’이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려내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이들의 일상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작가가 군상들의 일상을 작가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표현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하는 사고에 따라 색채와 표현이 변화할 수 있다. 일례로, 작가가 삶의 경험을 통해 군상들을 바라보았던 시각을 통해 심상적인 표현이 변화하는 대표적인 작품인 에밀 놀데의 작품 (도판-63)을 보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로마인들의 표정에서 나오는 비웃음,

106) 정유진, 전계서, p.253

107) 상계서, p.254

조롱 등의 혐오스러운 감정들을 거칠고 충동적인 묘사로 표현하였다. 그는 종교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종교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삶과 죽음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강렬한 빨간색, 노란색의 난색 계열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색채에 대한 의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도판-63), <그리스도를 조롱함>, 캔버스에 유채, 86x106.5cm, 에밀 놀데, 1909

그는 노란색은 유다의 색채이자 로마인들을 비유하는 허상과 조롱의 색채이며, 빨간색은 살해 욕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비유하는 의미로 표현하였다. 녹색은 동시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⁰⁸⁾ 이러한 색채의 불협화음으로 로마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녹색이 그리스도에게 퍼져가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죽음의 공포를 연상시키게 한다. 여기에서 종교화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로마인들의 군상은 강렬한 색상을 통해 격렬한 감정들이 신랄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빨간색은 곧, 공격적이고 야만적인 그들의 비인간성을 내포하며, 노란색은 왕관을 쓴 그들의 탐욕과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난색 계열의 의미를 다른 부정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놀데의 작품은 군상들의

108) 프랑크 슐츠, 김호경 옮김, 전게서. pp.106-107

표정과 색채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종교화나 풍경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예술적 장르에서 색채는 예술적 의미를 해석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색채는 곧,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이자 분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은 감상자로서 작가의 작품에 표현된 색채와 이미지에 담긴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에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작품에서 사용하는 미술의 언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사물이나 인물들에 대한 형태와 색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객들이 감상자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태와 색채는 미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¹⁰⁹⁾ 미술 작품에서 형태와 색채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작품의 시각적 표현을 결정하며, 작품의 감성, 메시지, 그리고 관람자와의 상호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색은 특정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 작품에서 빨간색은 현대인의 불안과 긴장감을 표현하고, 군상의 고독감은 무채색으로 나타내었다. 작가는 이러한 색의 감정적 효과를 이용하여 작품에 특정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색채는 형태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색의 사용은 작품의 요소 간의 거리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원근감이 강조된 공간적 표현을 위해 색채의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작가는 색채의 대비를 이용하여 작품에 동적인 요소를 부여할 수 있다.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색은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정한 하나의 색조나 색상 계열만을 사용하는 모노크롬 작품은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적인 표현이나 중요한 디자인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 색채는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이다. 색의 선택은 관람자의 눈길을 끌어 미술 작품의 주요 부분을 강조하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는 고유의 색을 사용하여 주제나 메시지를 강조한다. 특정한 주제에 연관된 색을 선택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태와 색채는 상호작용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미적인 경험을 조성한다. 형태의 윤곽과 색채의 경계가 만나면서 작품이 어떻게 관람자에게 인식될지가 결정된다고 할

109) 상계서, p.30

수 있다. 이처럼 형태와 색채는 미술 작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합은 작품의 전반적인 미적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현대인의 자아를 통한 심리분석과 고뇌의 성찰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인물상의 자아(Ego)는 스스로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잠겨있는 상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호처럼 표현되었다.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생명체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의 과정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자아는 무의식의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과 주변 환경과의 중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현실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¹¹⁰⁾ 고 하였다. 이는 자유연상에 나타나는 심리로 판단되며,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적인 사고와 잠재적인 능력을 내면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분석학인 측면과 일치한다. 자아는 외부 현실 세계에서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현실에서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창조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감으로 자아에 대한 자존감이 하락하게 된다. 불안감은 곧 자아의 위기를 나타내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인간이 흥분감이 폭발하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무언가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낄 때, 망설인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신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인간은 자아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위기의식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자괴감 때문에 우울 증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로 많은 인간이 삶에 대한 고뇌를

110)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성수, 한승완 옮김, 전게서. p.41

강하게 느끼며, 결국에는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심리들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으로 발생하며 인간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군상 시리즈>에서 이러한 인물들의 감정에 충실한 연구자만의 묘사 방식과 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소재들을 다룬 심리적인 부분을 미술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작품에서는 인물의 단순한 표현, 변형 등의 여러 가지 회화적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작품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대 사회의 심리를 좀 더 새롭게 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흔히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의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되고 그것을 성찰한다. 경험은 인간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며, 주변 환경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아가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며, 현실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내면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개인적인 심리는 위와 같은 진정한 자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건강한 자아는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자신감과 잠재적인 사고의 표출로부터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연구자는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현대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위선과 거짓을 보여주는 가식적인 사회의 현실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아는 현실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나약한 내면의 진실이며, 이를 작품의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정한 삶의 형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의 사고가 분산되어 있으며, 항상 남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아에 대한 사고가 가지각색으로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거나 자책감을 가지기도 하며, 시대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현대인의 자화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간의 자화상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능적인 충동과 정신적인 세계를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미술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나. 무의식적 풍경의 시각적 고찰

풍경에서 보이는 조형적인 요소들은 선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속의 풍경은 선들을 서로 연결하여 면이 형성되는 것처럼, 미술 작품은 이러한 미적 요소들을 조합하여 창조하는 과정이다. 선과 형태가 풍경의 구상적인 요소를 이루었다면, 연구자의 작품 속 색채는 추상적인 회화의 새로운 표현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의식을 담은 색채는 사물 본연의 색채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풍경의 색채가 아닌 작가의 무의식적 사고에서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즉, 수학적으로 공식화된 표현의 접근법이 아닌 감각적인 깊이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의 직관이나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우리는 풍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도판-64)는 어느 바닷가의 풍경을 감각적인 화법으로 표현한 추상 회화 작품인데, 가느다란 선의 묘사가 희미하게 표현되었고, 파란색과 황토색의 색감이 강하게 대비되면서 (도판-65)의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년 ~ 1970년)의 작품에서와같이 단순한 색, 면이 희미한 경계선으로 나누어진 모습이 보인다. 거칠게 표현된 선의 굴곡은 작가의 무의식에 따른 동물적인 행위의 손놀림이 연상된다. 이는 무의식에 침잠해 있는 상태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거친 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의식에서 이러한 본능적인 마음을 분출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묘사의 기법을 추구하지 않고 작가의 해석에 따라 기호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미술적 언어를 새롭게 채택하였을 것이다.

연구자의 작품과 대조해서, (도판-64)의 작품에 나타난 선의 형태와 풍경의 전체적인 색채의 톤은 그만큼의 조형적인 언어의 구축을 통해 작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연구자의 작품에 제시된 미술적 언어는 인물의 왜곡된 형태와 색채를 통해 인간사회의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현대인들의 내면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억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심리에 대한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도판-64), 조성배, <파도 2-강릉해변>, 캔버스에 유채, 116.8x91.0cm, 2016



(도판-65), Mark Rothko, <No. 16>, 216x164cm,
캔버스에 유채, 1961

(도판-64)의 풍경은 이상과 실재를 구분하면서 단순히 자연풍광을 외양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기억에 남는 요소를 떠올리며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을 끊임없이 연구한 것이다. 바로 실제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바와 상관없이 현상에 의식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작가의 굳건한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성보다는 감각에 따라 선과 색채가 무의식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체험의 과정인 것이다. 작가는 이상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조형적인 요소들의 독특한 기법과 배치를 자신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고민한다. 풍경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재해석하는 작가의 관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만약, 작가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예술 사조의 역사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써, 현대 사회의 인간상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모든 풍경의 사물에 대한 조형적 요소들을 단순한 화법으로 재현하였을 것이다. 단순화는 세부의 묘사를 아예 제거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마음에 대한 정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의미로도 쓰인다. 현대 미술에서 단순화는 모든 정신적인 상태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진리와 본질만을 탐구하는 목적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즉, 자신만의 철학에 관해 지속적인 탐구를 하며, 자기중심적인 언어와 사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작품구성은 작가의 상상에 따라 형태와 색채가 묘사되며, 작가만의 미술 언어로 작가의 심리와 전체적인 이야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객들에게 예술 작품은 체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한다. 작가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자기만의 특유한 미술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를 특유의 언어 예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풍경은 관객의 시각에서 보면 환상적인 공간이자, 이상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을 더 심화시키면, 산업 문명에 따른 현대인의 내면적 고뇌라는 시대적 반영과 우리 현대인의 인간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자화상을 비유하여 미술적인 언어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적인 사회의 현실을 풍경이라는 소재와 접목하며 작가만의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다. 군상과 풍경의 모호한 공존성

연구자 작품의 군상 시리즈의 인물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이미지들로 비유할 수 있다. 또한, 풍경은 그들이 존재하는 사회 문화적 공간으로서 삶의 터전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발달해 가는 현대문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의 공동유기체가 되어 인간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시의 공동체는 인간 집단이 이루어내는 하나의 군상이자, 풍경 안에 존재하는 유기체적 집단일 것이다. 풍경은 전체적인 모든 집단을 구성하는 인간들의 집합소로 해석될 수 있다. 도시 속의 연속적인 건축물들은 이러한 집단들이 결합이 되어 인간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복잡한 구조의 도시의 건축물들은 풍경 안에 존재하는 미적 조형 요소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 풍경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난 순수한 정서적인 심상의 시선으로서, 바라보아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보통 사실적인 풍경화에서는 모든 사물이나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 따라 원근법을 적용하고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작가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미술에서는 작가의 영혼과 감성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상이 중시되었다. 풍경은 또한, 인간을 삶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으로써, 평범한 일상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그림들은 사실적인 그림들보다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풍경과 인간사회에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상주의 화풍들은 19세기의 근대 회화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조로 알려져 있다. 주로, 이 시기에는 풍경화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순간적인 묘사와 우연의 효과를 적용한 인상적인 판단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선과 형태가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예시로, (도판-66)의 클로드 모네의 도시풍경을 보면, 어두운 색조의 희미한 건축물의 풍경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군상들의 실루엣이 묘사되었다. 거의 감각적으로 풍경에 대한 시선을 고정된 채로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대상의 형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건물과 인물의 희미한 색조는 도시 발달로 사라져가는 인간상을 은유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하며, 현대적인 시

각으로서 풍경을 해석하였다. 풍경의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화가의 주관적인 감각과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술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작가의 뚜렷한 주관적인 판단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찾기 위해 작가는 주변 인간의 삶과 풍경을 계속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도판-66), 클로드 모네, <국회의사당>, 캔버스에 유채, 93x82cm, 1904

풍경은 인간의 일상사를 담고 있는 내면의 자화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 작가들은 이러한 인간의 삶과 풍경을 그려가는 방식을 항상 사고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의 내용의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 방식을 전개한다. (도판-66)의 모네의 작품과 같이, 도시풍경이 일상적이지만, 빛의 아름다움을 흐릿한 명암법과 대담한 묘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더 강조시켰다. 풍경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풍경 작품에 빛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빛은 희망적인 메시지의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현대인들의 일상사를 그대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빛은 하나의 생명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생명력은 피폐해져 가는 도시풍경의 부정적인 내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줌으로써,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축시키는 것이다. 관객들은 풍경의 아름다움이라는 가식적인 것에 집중하여 정작 작품의 중요한 핵심내용을

놓칠 수 있다. 우리는 작품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작품을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작가가 살아왔었던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작품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관람할 때 겉으로 보이는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작가의 생애와 인간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사실적인 풍경의 묘사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풍경 내면에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반영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작품의 구성은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도시풍경의 형식적인 구성은 이상적 재현을 뛰어넘은 빛을 통해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되는 진실성이 담긴 묘사의 방식을 기본구성으로 삼고 있다.¹¹¹⁾ 하지만 이러한 고전의 규범에 얽매이려 하지 않는 인상주의 작가들은 기본적인 선과 형태의 조형적 요소가 새로운 미술적 언어와 조합되면서 이야기의 전달 효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만큼의 작가의 주제의식과 독특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적인 구성에서 풍경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현대 도시 문명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급속도로 변하는 19세기의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와 이러한 문명에 혼란스러워하는 인간들의 내면이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로써, 풍경의 가식적인 면에 숨겨져 있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양면성에서 보이는 인간의 진실된 모습은 도시의 삶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사고와 현실 안에서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지만 반복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은 도시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사회라는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홀로 고독을 느끼는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현대인의 부정적인 인간상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군상들의 형태와 구도에 대한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배치의 새로운

111) 이흥왕, 「도시 풍경화 그리기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술전공, 박사학위논문, 2023, p.76

시도를 하여 도시풍경의 새로운 회화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작가의 시각은 일반인의 시각에 비해 사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자유연상을 통해 무의식적인 접근으로 해석한다. 무의식은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처럼, 연구자의 작품 속의 도시풍경은 거대한 건축물들의 권위주의적인 상징과 인간들의 타락한 삶에 대한 자화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인 제시를 통해 관객들이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의도적인 표현방법을 고안하였다. 일례로, 현대문명의 건물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네온사인의 조명들은 비구상적으로 표현하면서 무의식적인 표현의 행위로 작품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비구상적인 미술의 조형적 언어들을 자기 예술 세계로 이끌어 나가고, 작품 주제의 내용 전개와 표현 방식은 본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작업의 패턴을 구체화하면서 형식적인 부분만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식적 도시 이미지의 표현방법과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가 앞으로의 작품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V. 결론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기술 혁명은 새로운 문명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넷과 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현대인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기계 문명에 의존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익명성은 비도덕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 감추어진 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개인주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익명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가식적인 도시 이미지에 나타난 회화적 함의에 관해 연구하였다.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모든 삶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 아동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은 대면의 소통은 점점 단절되어가면서 손바닥 크기의 첨단 기계 문명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다운 정서와 사고, 정체성을 잃어가며 개인주의화 경향이 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화려한 도시풍경 안에 숨겨진 가식적인 현대인의 자화상 탐구와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중독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내면을 다루고, 현대인들의 인간성 상실로 인해 타락되어가는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인간 군상들에 의해 화려하게 포장된 도시풍경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우리의 내면은 현실과 괴리된 스마트폰의 조그마한 사각형 액정의 세계에 빠진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 비춰주고 싶었다. 첨단 문명에 의해 인간의 삶이 기계화되고 이로 인해 이기주의로 변화해가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일련의 작품의 스토리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디지털 시대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특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익명성과 중독성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들을 논의하였다. 인간의 여러 가지 사고 및 방어기제들을 심리학적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초기 연구 작업의 방향성을 결정하였다.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는 부정적인 심리들에 대한 해석, 그러한 심리들이 어떤 미술 언어와 표현으로 구축할 수 있겠는가 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작업

주제 방향을 본 연구 테마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심리학적 관련 이론들을 미술과 통합시켜 연구의 확장성을 이끌어가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처음 작품 주제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표현기법의 연구를 통해 표현의 기술적인 부분, 반복되는 색의 중첩, 여러 가지 패턴화를 위한 연구자의 발상이 어떻게 하면 작품에 심층적 의미를 부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자화상(自畫像)과 가식적(假飾的)인 이미지,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과 연관되는 개념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구성하면서 분류하였다. 일례로, 자화상(自畫像)을 통한 연구자의 작품 분석에서는 현대인의 내면을 대표적인 작품 주제로 잡고 정체성, 집단과 공동체, 이기주의라는 키워드들로 나누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활용한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정체성은 현대인의 내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기계적인 감정은 이기주의로 비유할 수 있으며, 군상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도시풍경의 가식적 이미지와 군상들의 자화상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과 전개 과정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면서 작품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재해석과 심층적인 의미를 함축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을 보면, 배경화면의 풍경이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색채의 변화가 현실의 그대로 보이는 색채가 아닌 상상 속의 색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색채를 여러 단계의 중첩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작품 속의 색채가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복 효과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질감의 효과와 두께 감을 적절하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브제이다. 이는 연구 주제를 부각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작품 속의 스마트폰 액정을 거울로 표현한 것은 관객이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중독된 내 모습의 자각과 함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나’와의 일체로 인한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오브제는 입체감의 효과를 풍부하게 연출하기 위해 부조의 형태를 더 새롭게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탕화면의 중첩되는 색채들이 오브제와 상호 작용을 하며, 작품 안에서의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면서 작품 이야기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작업 방식

으로, 단순한 공간의 묘사보다는 작품 주제의 전달을 강하고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확장 가능성을 늘리고 표현 방식의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는 부정적인 심리들에 대한 해석,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미술 언어와 표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작업 주제 방향을 이러한 테마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심리학적 관련 이론들을 미술과 통합시켜 연구의 확장성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술치료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한 다방면의 심리분석과 이를 색채 심리기법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색채에 담긴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예술 경험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점이다.

이제 미술이란 영역은 사회, 윤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장르와 통합되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본 연구자가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미술의 역할로 잘 이끌어가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미술표현방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작품의 주제와 스토리를 더 집요하게 분석하면서 작업의 방향과 연구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며, 작품에 표현된 재료의 기법이나 표현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 방안을 꾸준히 시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강재영, 김예성, 황혜림, 김연우, 오가영, 아키토 유지, 유조 우에다, 이엔왕, 김효진, 마키코 사카모토-마트텔, 「사물의 지도」, 샘터, 2023
- 권석만, 「이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5
- 김남인, 이광석, 히어트 로빙크, 레프 마노비치, 서동진, 곽영빈, 빅토리아 이바노바, 케이 왓슨, 홍이지, 사라 캔더다인, 레베카 칸, 우다퀸, 「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 2022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단편소설, 1965
- 김성래, 「학예사를 위한 예술론과 서양미술사」, 예문사, 2023
- 김용숙, 박영로, 「색채의 이해」, 일진사, 2016
- 고현, 김종임, 민형덕, 박광숙, 박신영, 배서영, 신철호, 조근호,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2018
- 노소영, 「디지털 아트, 우리시대의 예술」, 자음과모음, 2020
- 박우찬, 박종용, 「동양의 눈, 서양의 눈」, 도서출판 재원, 2016
- 박송화,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메이트박스, 2023
-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14
- 아트 로그니크, 「모스크바 크레물리」, 한글판, 2001
- 엄세나, 길효정,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유아 미술감상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9, p34
- 이광석, 「디지털의 배신」, 인물과 사상사, 2020
- 이광석, 「디지털 폭식 사회」, 인물과 사상사, 2023
- 이근홍,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 심성경, 백영애, 이영희, 이효숙, 박지애, 박주희, 「유아미술교육」, 공동체, 2013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치료심리상담사」, 2017
-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6
- 정유진,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9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2013

최옥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08

2. 번역본

에이미 뎀프시, 조은형 옮김, 「단숨에 읽는 현대미술사」, 시그마북스, 2019

에이브러햄 메슬러, 오혜경 역, 「동기와 성격」, 연암서가, 2021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이진 옮김), 「죽음과 죽어감」, 이레, 2018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 한승완 옮김, 「과학과 정신분석학」, 열린 책들, 2020

테리 바렛, 이태호 옮김, 「그림 읽는 즐거움, 미술비평」, 아트북스, 2000

프랑크 술츠 엮음, 황종민 옮김,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슬고와, 2023

캐롤 스트릭랜드, 김효경 옮김,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10

해리엇와드슨, 장연집, 최호정, 김태은 번역, 「임상미술치료학」, 시그마프레스, 2012

E.H.곰브리치(E.H.Gombrich), 백승길, 이종송 옮김, 「서양미술사(양장본)」, 서울: 예경출판사, 2017.

Otto G. ocivrik Robert E. Stinson Philip R. wigg Robert O. Bone David L. Cayton, 곽재은, 황진영 옮김,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2008

3. 학술 논문

강남훈, 「정보혁명과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논문, Vol. 7, No.2, 통권 18호 pp. 35-66, 2010, DOI : 10.26587/marx.7.2.201005.002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강은비, 정여주,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Vol. 20, No. 1, pp. 71-88, 2012

김정화, 이영호, 「대학생 집단의 SNS 중독경향성과 인터넷 중독의 차이: 온라인 익명성, 자기애, 정신건강 및 대학 생활 변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0호, pp. 27-52, 2018

김형기, 디지털 미디어이티드 아트, 도시, 김형기(편), 「2009 인턴 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벌」,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 2009

나은영, 차유리,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 25권. 제 1호, pp. 103-121, 2012

남수정, 「긴장과 낮은 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 외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 49권, 제 2호, pp. 63-74, 2011

박상규, 「중독자의 심리와 회복에 대한 영성의 역할-호흡과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Vol. 25, No. 1, pp. 73-87, 2022

유현경, 「코로나19 시기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1권 제3호 2023.09 132 - 156 (25page) DOI : 10.24301/MHSW.2023.09.51.3.132 Convergence. Sep2017, Vol. 15 Issue 9, p335-343. 9p.

이용승, 「정신분석에서의 동기 이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Vol., No. 36, 2010

임지선, 박근용,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통계실태조사, 2017

서응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집단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익명성 관점에서」, 한국유통과학회, 2015

서송석, 「예술과 손기술, 그 닮음과 차이에 관한 시대적 변주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나타난 예술 이해와 발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건립 이념 비교」, 한국브레히트 학회, 제 48호, 2023

송인섭,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아시아 교육 연구, 1권 1호, 2000,

신민섭, 설순호, 「강박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7권 1호, 2007

신승수, 김철수, 「건축에서 수직 이동수단의 반복과 공간 연속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계슈탈트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체육학 > 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실내환경디자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vol.16, no.1, 통권 70호 pp. 35-46 (12 pages)

전봉기,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6, pp. 333-339, 2014

정현희, 「디지털 아트 of 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 디자인학연구, Vol.

12, No. 1, pp. 204-212, 2011

조원영, 유재흥, 연구보고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쟁 환경 변화와 공정경쟁정책 개선 방향 연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2019

최원희, 손정우, 김영랑, 이상익, 신철진, 김시경, 주가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 익명성, 실재감, 상호작용성, 성취동기와의 연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 제 22권, 제 2호, pp. 103-111, 2011

최희재, 이준기, 김정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 사회적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0권 1호, 2009

G. Y. Cho, Y. H. KIM,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 3, pp. 1632-1640, 2014

S. B. Kim, J. I. Jang, 「A Study on the Discriminating Factors of Adolescents' Gambling Addiction: Focusing on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Impulsiveness, and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 8, pp. 630-636, 2016

Kim, Myungshi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 Theoretical Study on the Form of Continuity as an Architectural Principle - Focused on the continuity between architectural space and urban space and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 -」, 32(8), pp. 103-111, 2016

4. 학위 논문

강철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감정 표현연구」, 조형예술학박사 미술디자인학과 영상, 에미메이션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김인숙, 「회화공간의 변화에 관하여(르네상스의 원근법으로부터 추상표현의 공간까지)」, 미술, 디자인학과 서양화전공 조형예술학박사, 2008

나수빈, 「차원의 경계에 나타나는 조형성과 '이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이약빙, 「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옵아트(Optical Art)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이지언, 디지털 아트 미학 연구:퍼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지연, 「오브제의 기호적 변환을 통한 욕망과 상실감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이혜령, 「중첩된 이미지를 통한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이흥황, 「도시 풍경화 그리기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술전공 박사학위논문, 2023

윤선, 「아날로그 감성표현을 통한 자아 회복과 치유에 관한 작품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입체미술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임창영, 「디지털시대 산업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퓨전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박사학위논문, 2004

조명식, 「현대미술의 해체와 다원성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진은정,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 탐구가 시사하는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 국외 문헌 >

1. 단행본

Chipp, Herschel Browning, 「Theories of modern art : a source book by artists and critic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Dekker, Annet, 「Curating Digital Art」, valiz, 2021

Gombrich, E.H., 「The Story of Art」, Phaidon Press, 1995

Gorn, Lester | Frey, James N., 「The Art of the Traditional Short Story」, Bearcat Press, 2012

Javier Portus Perez M. Leticia Ruiz Gomez, 「EL PRADO Obras Maestras」, 2003

J. J. De Lucio-Meyer, 「Visual aesthetics」, England: Lund Humphries, 1973.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Sicnac, Bonnard, Redin, and Their Contemporaries, 「The Avant-Gardes of

Fin-de-Siecle Paris」, 2013

Suzi Gablik, 「Magritte」, New York, N.Y. : Thames and Hudson, 1985.

2. 학술 논문

Joseph S. Valacich, Leonard M. Jessup, Alan R. Dennis & J. F. Nunamaker Jr.,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A conceptual framework of anonymity in Group Support Systems」, 1, PP.219-241, 1992

Jung Geumhye, 「Influences de l'Extreme-Orient dans les oeuvres du peintre Jean Degottex」, Thesis (doctoral) : Universite de Paris I:Pantheon-Sorbonne : Histoire de l'art, 1995

Latane, B. 「The Psychology of Social Impact」, American Psychologist 36, PP. 343-356. 1981

Meyer Schapiro, 「Theory & Philosophy of Art」, Style,Artist,and Society: Selected Papers, Vol.IV, 1994.

Nunamaker, J.F. Jr., A.R. Dennis, J.S. Valacich, and D.R. Vogel., Management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for Negotiating Groups: Generating Options for Mutual Gain」, 37(10), PP. 1325-1346, 1991

Powell, P., Bentall, R., Nye, F., et al, BMJ,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patient education to encourage graded exercise in chronic fatigue syndrome」, 322, pp. 387-390, 2001

yoon jong-gu, 「The body in installation practice : a contemporary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in Taoism」, Thesis(doctoral)--RMIT University: Fine art by project, 2003

< 전시 자료 >

광주시립미술관, 「진원장 : 꿈의 정원」, 2017

국립중앙박물관, 「거장의 시선-사람을 향하다」, 2023

대동문화재단, 「생명의 긍정과 환희의 풍경」, 1991-2011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 2019

< 비문헌자료 >

이강욱 ETRC 연구 기자 wook@etnews.co.kr [K리서치]"인터넷 익명성 중요하다 “
<http://barunict.kr/?p=7490>
<https://blog.naver.com/mirowiki/223011952884>
<https://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Chungbuk/LeeJun-Pyo/5.pdf>
<https://cerveza.tistory.com/8>
<https://dic.daum.net>
<https://edospia.com/54>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0621>
<https://m.blog.naver.com/ygpkw/100003173293>
<https://rocuri.com/5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http://www.epicurus.kr/Humanitas/386985>
<https://www.etnews.com/200812080135>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74&mlid=99>
<https://www.naver.com>
http://www.kclatc6.com/bbs/board.php?bo_table=co03&wr_id=43&page=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30>
<https://zh.wikipedia.org/wiki/Wikipedia>
<https://yusyong73.tistory.com/15954169>
<https://100.daum.net>

< 도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라크만의 강박 장애 인지 행동 모델
 이코노미 조선
 중독포럼 「연합뉴스」
 2017년 5월 1일자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보도자료 사이버안전국

<https://images.google.co.kr/imghp?hl=ko>

(재구성): Shin, Seungsu, 2021

Wikiart